

영적 삶이란 무엇인가 — 그리고 어떻게 그에 맞춰야 하는가

테오판 은둔자

편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 |

모스크바로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서면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도착하신 후 본인 소식과 새로운 환경에 대해 알려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지만, 벌써 이렇게 오래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건강하시기만 하시길. 성모 마리아께서 지켜주시길. 아니면 마음을 바꾸셨나요?! 무슨 일이든 있을 수 있으니,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금 글을 쓰니, 만약 그런 일이 있고 여기에 저에 대한 어떤 우려 — 부담을 주면 안 된다거나 다른 무엇인가 — 가 있다면,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당신께, 그것도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한 즐거움을 줄 것이며, 제 일상적인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만약 우리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마치 어떤 손실을 입거나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당신께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을 써 주십시오. 비록 큰 지혜를 저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모든 마땅한 것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께 상당한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이 모든 영역을 되살리고, 아마도 열정과 특별한 에너지로 그곳에 집중하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것에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긋남이 생긴다면, 그것은 거의 항상 악의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보다, 마땅한 일에 대한 열정과 열의의 부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글을 쓰십시오.

| 2 |

나는 추측에 헛갈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거야! 할머니가 조금 아프셨던 거지. 할머니라는 말은 승리의 말이야. 손녀들에게 할머니 결보다 더 따뜻한 곳은 없고, 할머니들에게 착한 손녀들보다 더 소중한 얼굴도 없으니까. 이 모든 것에 신께 감사드려야 해. 할머니를 더 자주 위로하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노년의 여성들은 삶의 경험과 고생으로 얻은 지혜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무심코, 평범한 말 속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운 교훈을 담아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비록 당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작은 별이라도 주어 고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이 편지를 썼다는 것과 그 내용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더 잘 고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겠다고 약속하시네요. 좋습니다! 솔직함은 서신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시작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편하게 써내려가십시오. 특히 머릿속에 떠오르고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문제들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책도 갈증 난 땅이 물을 받아들이듯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을 습득하고 마음에 굳건히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개념들은 사물과 일의 본질을 설명해 주며, 우리는 이를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제가 한 가지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당신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이렇게 합의한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일에 매달리거나 계획과 이론을 그리지 않고, 삶의 흐름이 이끄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당신 눈에 '반짝이는 것'을 써 보세요. 이틀 정도, — 말씀하시길, — 이곳의 일반적인 사교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극장에 앉아 있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저녁 모임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란인지, 무슨 말들인지, 무슨 모든 것에 대한 현명한 판단인지, 무슨 대인관계의 기술인지? 이 모든 게 저에겐 낯설고, 생각의 혼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졌겠지만, 좀 더 지켜보세요. 고요한 시골의 평범한 가정생활을 경험하신 후라면, 그런 감상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삶의 진실이 있고 어디에 거짓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질서를 비난하는 듯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에 대한 동정과 반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일부를 목격한 삶은 마비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편에 익숙해진 자가 미친 듯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여전히 그곳으로 끌려가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제게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그리고 진실로.

| 3 |

당신의 답변에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끌리지 않고 오히려 밀어냅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부서진 듯했고, 제 영혼은 괴로워하며 슬퍼했으며,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이 말을 쓰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기엔, 침묵으로 애뜻한 마음이나 가시 같은 것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세속적인 삶과 세속적인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감정이 영원히 당신 안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보아하니, 당신은 그런 삶과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파괴적이거나 당황스럽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더 적을 것이며, 그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보드카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첫 잔은 칼로 베는 듯하고, 두 번째는 매로 찌르는 듯하며, 그 후에는 그냥 마시게 됩니다. 담배 가게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눈을 따갑게 하고, 코를 찢러대며, 숨 쉬기조차 힘들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선한 담배들도 조금 있다 보면, 그렇게 눈을 찌푸리거나 재채기하고 기침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불편함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평온을 이렇게나 흔들어 놓은 생활 방식에 대해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마치 제 질문을 미리 알아차린 듯 말하네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삶과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삶이 아닌란 걸 알게 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삶이 아닌란 생각이 점점 확고해져. 움직임은 많지만 삶은 없어. 저기 내 재봉틀도 얼마나 분주한지, 하지만 그게 무슨 삶이겠어?” 아름다운 생각을 낳은 건 당신의 밝은 머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처지를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길 수 있겠군요. 감정 하나는 불안정합니다: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에 탄탄한 생각이 더해지면, 감정은 굳어지고 그 자체로 다시 생각을 굳힙니다. 둘이 합쳐지면 요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가 더

견고해지려면, 그 삶에 왜 생명이 없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계속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점이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삶에 생명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차지하고 양육하지 않으며, 단지 작은 일부만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삶의 가장자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하여 그 중심에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 삶은 다면적이고 다각적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이 있고, 정신적인 측면이 있으며, 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각각은 자신의 힘과 욕구, 그리고 그것들을 발휘하고 충족시키는 방식과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힘이 움직이고 모든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움직이는 힘이 한 부분뿐이고 충족되는 욕구도 한 부분뿐이라면, 그 삶은 삶이 아니다: 마치 당신의 재봉틀 에서처럼, 모든 부분이 작동할 때만 마땅한 움직임이 생긴다. 어느 한 부분의 동작이 멈추면 재봉틀은 멈춘다: 살아 있지 않다. 사람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 있지 않다. 기계에서는 그 생명인 움직임의 중단이 눈에 띄게 보이지만, 인간에서는 한쪽 부분만 움직이고 소수의 욕구만 충족될 때, 완전한 인간적 삶의 무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실제로 존재하지만, 앞서 말한 기계의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적용해 보자. 거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가? 손, 발, 혀, 눈, 귀, 후각, 촉각, 기억, 상상력, 환상, 그리고 판단력이 모두 함께 작용하는데, 이는 인간의 가장 낮은 측면으로 동물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충족되는 것은 오직 동물적 삶의 욕구 하나뿐이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삶의 놀이, 어린 양들이 초록빛 들판으로 내몰릴 때 그들에게서도 작용하는 그런 놀이이다. 이 능력들 외에도 인간에게는 두세 단계의 능력과 그 중심이 더 있다.

이제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삶이 과연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삶이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유의 작용이 지금 여러분께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생각은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 본성의 구조에서 모든 것을 마땅히 도출해 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살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분간 이 정도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

지난번에는 귀하께서 편지에서 언급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충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모두가 허둥지둥 서두르며 무언가를 쫓아 잡으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많은 거리나 장소를 지나다 보면, 그곳의 소란과 분주함이 어찌나 심한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그들의 마음속도 그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된다: 여기서는 서로를 밀치고, 엮매고, 억압하며, 아무도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원하는 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으며, 말하기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의 모든 것은 누군가 쓴 법에 복종하는데, 그 법이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법은 모두를 억누르지만, 아무도 그 법을 깨뜨리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폭군이 되어 버린다. 감히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 나는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한다. 이건 천국이나 다름없다: 나 자신도 즐겁고, 듣는 사람들도 즐겁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래를 부르게 된다. 매우 정중하게 권유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 스스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억지로 부풀려서 마음껏 노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았다. 이게 바로 자유란 말인가! 그런데 밖에서 보면 모두 자유로워 보인다. 손발이 묶인 자유로움! 이 때문에 나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 밖의 모든 것도. 그런데 어떨까?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애교는 가식적이고, 봉사할 준비도 가식적이며, 상호 존중도 가식적이다. 모두 가식이다. 매끄럽고 우아한 걸모습 뒤에는 전혀 다른 영혼이 숨어 있는데, 그 영혼을 밖으로 끌어내면 아무도 우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모일 때면 우리는 배우들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코미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모두에게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친구끼리 서로 영혼까지 바칠 것 같으면서도 주변에는 차가움이 감돌고 있다니!”

완전히 옳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지적되고 경고된 바 있습니다. 마카리우스 대성인은 귀하가 목격한 혼란과 무언가를 좇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은 이 땅의 체에 뿌려진 밀과 같아서, 이 세상의 번덕스러운 생각들 가운데서, 끊임없는 세속적 일들의 소동과 욕망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물질적 개념들 속에서 체질됩니다. 사탄은 영혼들을 흔들며, 즉 세속적 일들로 온 죄악된 인류의 종족을 체질합니다. 타락한 때부터, 아담이 계명을 어기고 그 위에 권세를 잡은 간사한 왕에게 복종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유혹과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이 세대의 모든 아들들을 체로 거르며 땅의 체 안에서 충돌하게 한다. 체로 체질하는 자의 체에서 밀알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던져져 그 안에서 뒤집히듯이, 간사한 왕은 세상의 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흔들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헛된 생각과 불결한 욕망,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계에 매달리게 하여 끊임없이 온 아담의 죄악된 후손을 사로잡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사탄이 그들에게 반역할 미래를 예언하셨으니: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추수하려고 청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눅 22:31-32). 이는 창조주가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과 결정 때문입니다: “너는 땅에서 추방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창 4:12)는 모든 죄인들에게 은밀한 형상과 본보기가 되니, 이는 아담의 후손이 계명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 은밀히 이 본보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온갖 혼란과 욕망, 온갖 종류의 쾌락이라는 번덕스러운 생각들로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영혼을 흔들며, 마치 체에 끊임없이 휩쓸리는 밀알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을 흔들며, 모두를 흔들리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쾌락, 두려움과 혼란으로 사로잡습니다.” (대화 5, 1, 2).

이것이 당신의 관찰에 대한 보충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존재하고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성 마카리우스는 그 원인과 근본적인 근원을 지적했습니다. 이 관점은 논의 중인 그 집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관점을 습득하시고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며,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세속 생활의 유혹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방식과 더 친숙해지기 위해, 성 마카리오의 이 다섯 번째 대화를 모두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은 제가 당신의 어머니께 드렸고, 그녀도 구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 쪽에서 덧붙이자면, 이 무언가를 좇는 것과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쓴 것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본성 전체가 충족되지 않으며 그의 모든 욕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되지 않은 측면은 마치 배고픈 자처럼 자신의 갈망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요구하며, 사람을 그것을 찾게 만듭니다. 사람은 달려가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굶주린 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똑같은 고리 안에서 맴돌기만 하니, 만족은 오지 않고, 굶주림과 갈증은 사라지지 않으며, 음식에 대한 요구도 멈추지 않고, 추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들을 눈멀게 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잘못된 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실수를 깨닫지 못하게 하며, 이 어둠 속에서 이 가련한 영혼들을 괴롭히고 질식시킨다. 원수가 그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었기에,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할 용기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포효할 것이다. 이것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의 포효가 아니겠는가(벧전 5:8)?

세속적(세상적) 삶의 다른 측면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타락한 인류의 삶이며, 그 본질적 특징은 자기애, 즉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모든 것과 모든 이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그로 얽매이게 하려는 원인이 있는데, 당신이 매우 적절히 폭정이라고 명명한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욕망을 미화하려 해도 그 뒤에는 항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돌리거나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여기에는 위선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위선의 본질은 자신의 나쁜 점을 고치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숨기려는 긴장된 교활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차단되고, 따라서 그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갇혀 주변에 따뜻한 삶의 빛을 퍼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아마도 몇몇 마음에 드는 성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인다. 이러한 성품은 인간이 타인에 대해 지닌 친족적 감정의 잔재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기주의가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인 이기주의자가 이런 친근한 척하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후자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일을 이끌어 가는지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자에서는 거의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당신은 끊임없이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은 나중에 당신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열 가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기서는 모두 정직을 강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부정직함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은 이기주의의 가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해 종종 가장 비열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듣거나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기주의자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기심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 평가는 자신을 이용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이기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수도사들까지도 이기주의로 꾸짖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수도사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잘 곳도 없이; 밤낮으로 발로 뛰며, 순종하며, 자신의 의지와 욕망도 없이 — 결국 이기주의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세속인들 사이에서 마주치거나 마주칠 '와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낮이 들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세속적인 삶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평을 내렸다는 걸 알지만, 말을 거두지는 않겠다. 아마도 제가 쓴 내용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당신께서도 세속 생활에 꽤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기에 저도 같은 어조로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 이후로 이 말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서신 교환을 통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세속적인 사교 생활의 원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십시오. 그리고 원치 않는 데도 끌려들어갈 때는, 마치 당신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눈앞을 스쳐 지나가게 하고, 들리는 것은 귀를 스쳐 지나가게 하십시오. 겉으로는 모두처럼 활짝 열린 듯 행동하되, 마음은 동정과 열정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몸만 거기에 있을 뿐 영혼은 거기에 있지 않게 되어 사도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취하는 자들은 취하지 않는 자들처럼 하라"(고린도전서 7:31). 여기서 세상은 우리에게 세속과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요구하는 자, 즉 세속적 삶과 접촉할 필요가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당신의 마음을 멀리할 때, 당신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 자, 즉 동정과 욕망으로 그 삶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실제 처지에 의해 강요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장황한 글로 귀하를 지치게 하였으나, 귀하께서 저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쓴 내용을, 특히 마지막 몇 줄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 |

이전 두 편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는지! 이는 당신 안에 부지런하고 생기 넘치며 수용력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게 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부터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군요: "인간 본성의 측면, 힘, 욕구에 대한 당신의 말씀이 저를 내면으로 이끌어 줍니다."

들어갑니다. 어떤 것은 보이지만, 대부분은 흐릿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측면이 무엇인지, 각 측면의 욕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존엄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 설명은 이후 모든 논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삶의 규칙이 외부에서 강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면, 그 규칙에 반박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은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기관은 육체적 생명에 필수적인 각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관은 세 가지입니다: 1) 위와 폐, 심장, 동맥과 정맥, 림프관 및 기타 수많은 혈관, 모세혈관, 그리고 혈액과 체액을 분리하는 다양한 샘; 이들의 기능은 모두 신체를 영양 공급하거나 육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2) 근육과 뼈의 체계로, 이들의 기능은 내부와 외부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3) 신경 체계로, 그 중심은 머리, 척수 및 신경절 체계입니다. 신경절 체계는 복부와 흉부 장벽 아래 어딘가에 위치하며, 그 가지들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 기능은 감각이다. 이 기능들의 진행과 상호 관계가 질서 정연할 때, 몸은 건강하고 생명은 위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질서가 깨지면 몸은 병들고 생명은 위협에 처한다. 각 기능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생히 느껴지는 자신의 요구를 가지며, 이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장, 즉 영양 공급과 육체 형성에 관여하는 부분의 필요는 음식, 음료, 공기, 수면이다; 근골격계의 필요는 근육을 긴장시키는 필요로, 오래 앉아 있으면 누구나 느끼게 되며, 바로 움직임의 필요로, 걷고, 산책하고, 무언가 일하게 만든다; 신경 부분의 욕구는 온도와 추위 같은 온도 변화와 같은 전신 신경의 쾌적한 자극, 특히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신경계가 외부로 드러난 우리의 오감에 대한 쾌적한 자극이다.

이 모든 것은 보시다시피 육체적인 것이며, 영혼은 이 모든 일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와 가장 밀접하게 결합하여 이를 자신의 인격으로 받아들였기에, 육체의 모든 욕구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자고 싶다. 걷고, 산책하고, 일하고 싶다. 다양한 색을 보고, 다양한 소리를 듣고, 다양한 냄새를 맡고 싶다 등등. 육체의 모든 욕구를 자신 것으로 흡수한 영혼은 그것들의 충족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음식과 음료, 잠과 옷, 거처 등 모든 것에 대해 분주히 움직이며, 온갖 방법으로 몸이 편안하고 성가신 요구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려 애쓴다. 영혼이 몸에 대해 가지는 이 태도는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적 충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종의 본능과 같다. 즉 생명 사랑, 몸 사랑, 몸을 편안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모든 것의 총합이 바로 인간 삶의 육체적 측면이다. 그러나 여기 모든 것이 똑같이 육체적이거나, 육욕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아니다. 오직 영양 공급 부분만이 강하게 육욕적이지만, 그것도 그 충족을 영혼 자체의 필요와 목적에 맞추면서 고상해진다. 운동 기관과 감각 기관은 몸보다 영혼의 필요에 더 많이 봉사한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체계 밖에 있는 듯한 하나의 기관, 바로 언어 기관은 오로지 영혼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정된 영혼의 기관이다.

육체적, 육욕적, 감각적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 삶이란 사람이 지나친 생명애와 육체애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요 목표와 관심사로 육체의 안락, 즉 오로지 육체적 욕구의 전면적 충족만을 두고 영혼은 물론 영은 더욱 잊어버리는 삶을 말한다. 이때 각 육체적 욕구는 자연스럽게 단순한 것이지만, 습관과 다양한 만족 방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수많은 부가적 욕구로 변져 나간다. 음식이나 음료, 의복을 예로 들어보자. 무엇이 가장 단순해 보이는가?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필수적 욕구가 있는가! 죽어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들은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쫓아다니느라,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혼과 정신이 필연적으로 굶주리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억눌리고, 짓눌려 감각성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다음 편지에서.

당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십시오,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행동과 움직임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요! 이것저것,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며,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혼은 항상 움직이며 한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영혼을 들여다본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그 행동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 종류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혼의 모든 행동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왔다 — 생각, 욕망, 감정, 각각을 영혼의 특별한 측면으로 명명했다 — 사고하는 측면, 욕망하는 측면, 감정을 느끼는 측면. 이 구분을 취해 각 측면을 살펴보자.

사고의 측면. 우리 내면에 혼란이 보인다면, 그것은 사고 속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한다. 욕망과 감정은 이미 사고의 작용 아래에서 요동친다. 그러나 사고의 범주에는 무질서한 움직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에는 일련의 진지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들이 사고 측면에서 영혼의 삶의 진정한 일을 구성한다. 바로 이러한 활동들이다:

1) 당신이 자신의 감각을 통해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으로 발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모든 것이 상상력에 의해 상상되고 기억에 의해 기억된다. 그리고 영혼에는 상상력과 기억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이후의 사고 활동은 상상력과 기억에 기반을 둔다. 기억이 보존하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때로는 생각이 영혼에서 직접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들도 즉시 형상을 입는다. 따라서 영혼의 사고 측면은 모두 형상적이다.

2) 그러나 상상력과 기억은 생각의 재료만을 얻고 저장할 뿐이다. 생각의 움직임 자체는 영혼에서 비롯되어 그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당신의 막내 동생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보고 즉시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야? 누가 만들었어? 이걸 뭐로 만든 거야?"라고 묻곤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답을 듣고 만족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사고력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낳는 데서 시작되며, 그에 대한 답으로 생각을 낳거나, 이미 다른 이들에게서 준비된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상상과 기억은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급 노동자, 보조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비롯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사고가 추구하고 생성되는 영혼의 능력은 이성이라고 불리며, 그 역할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숙고하며 요구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숙고와 고려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조차도 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어디에나 고려가 개입되어 앞서 언급된 질문들을 따라잡니다.

3) 당신이 생각할 때, 아직 명확한 생각이 없습니다. 명확한 생각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 생깁니다. 당신의 이성은 무엇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해결책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동의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했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일이 해결됐어." 이 해결책은 당신을 사로잡았던 대상에 대한 당신의 사고에 안식을 줍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성은 다른 대상으로 향하고, 형성된 생각은 마음의 기록 보관소인 기억 속에 보관됩니다. 필요에 따라 그곳에서 꺼내져 다른 문제 해결의 보조 수단으로, 다른 생각을 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든 개념의 총합이 바로 당신의 사고의 모습을 이루며, 이는 당신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말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낸 지식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해결한 문제가 많을수록 사물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나 개념도 많아집니다. 그러한 개념이 많을수록 당신의 지식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이처럼, 보시다시피 기억과 상상력 위에 당신의 이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성은 사고의 노력을 통해 사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견과 추측을 낳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명확한 지식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잘 알려진 사물들을 논의하면서 스스로 얻고 다른 이들에게서 빌려온 그들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개념이 너무 많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온 좋게도 적절한 의견과 추측으로 채울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범주가 충분히 인식되고 이해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얻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연관성과 순서에 따라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 대상에 대한 과학을 선사한다. 과학은 이성의 사고 작업의 정점이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고력의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활동이 무엇이어서 하는지 여러분께 더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부지런히 논의하여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모든 사람이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을 논의하여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사고력이 종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그 힘의 강함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항상 진지한 사고와 현실에 대한 논의라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 영역에서 무엇을 보느냐? 어떤 명확한 목적이나 질서도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미지들과 관념들이다. 생각이 생각에 이어 일어나서 줄을 서기도 하고, 서로 가로막기도 하고, 앞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돌아오기도 하고, 옆으로 달아나기도 하며,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생각의 방황과 산만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력이 가져야 할 상태와는 정반대인, 그 사고력의 병리 상태로,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어서, 산만함과 방황하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방해하며 사망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진지한 사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생각에 잠깁니다. 이게 무슨 상태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이 기억의 아카이브로 내려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 쌓인 잡동사니를 뒤적거리며, 개념들의 결합 법칙에 따라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있었던 일에 없었던 일, 심지어 종종 불가능한 일까지 덧붙이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깊이 생각에 잠겼다. 깊이 생각에 잠겼지만, 진지한 논의가 아닌 공허함에 빠진 것입니다. 이는 잠든 듯한 몽상, 즉 빈둥거림과 공허한 생각과 같습니다.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이런 공허한 생각과 방황하는 생각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날(그런 날이 더 많지 않을까)에는 단 한 가지 진지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 점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결해 보길 바란다: 이성적인 존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가? 나는 그동안 다른 종류의 정신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다.

| 7 |

바람직한 측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의지입니다. 의지는 자신이 유용하거나 필요하거나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을 얻고, 사용하고, 행하기를 원하며, 그 반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동요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므로, 의지는 본질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려는 욕구를 지닌 활동적인 힘이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통제하며, 필요할 때면 그것들을 모두 동원한다. 그 기초에는 열정, 혹은 열의—행동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자극제로는 쾌적함, 유용함, 필요함이 있다. 이것들이 없을 때 열정은 잠들고 활동적 힘은 긴장을 잃고 쇠퇴한다. 이들은 욕망을 지탱하며, 욕망은 열정을 불태운다.

이 측면의 정신적 계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육체에는 본능적 욕구가 있으며, 여기에 세속적 욕구—가족적·사회적 욕구—가 더해진다. 이러한 욕구 자체는 특정 욕망을 일으키지 않으며, 단지 그 충족을 추구하도록 자극할 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욕구가 한 번 충족되면, 그 후에는 욕구가 깨어남과 동시에 이미 충족된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난다. 욕망은 항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정 대상을 지닌다. 다른 욕구는 다양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욕구가 깨어날 때마다 다양한 욕망이 생겨난다: 이것, 저것, 또 다른 대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다. 드러난 인간의 삶에서 욕구는 욕망 뒤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속에는 오직 이 욕망들만이 맴돌며, 마치 스스로를 위한 것처럼 충족을 요구한다.

영혼은 이 욕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에게는 선택이 주어진다. 갈망하는 대상들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지. 선택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 — 선택한 것을 만들거나, 얻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후에는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 방법과 순서를 정한다. 그 다음에는 마침내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때로는 이 모든 행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욕망에 이어 즉시 행동이 따릅니다. 선택, 결정, 수단은 그때 이전의 일들에서 가져오며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에게는 거의 모든 일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소의 일과 지식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업이나 시도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미 형성된 삶은 그에 상응하는 일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습관, 성품, 삶의 규칙, 그리고 성격으로 자리잡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습관, 규칙, 질서의 총체에서 유명인의 생활 양식이 정립되듯이, 확립된 개념들의 총체에서 그의 사고와 견해의 양상이 구성된다. 누군가의 생활 양식을 알면, 그가 특정 시점에 무엇을 생각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추측할 수 있다.

활동적인 삶의 지배자는 신중함으로, 이는 이성과 같으나 의지의 중복으로서 있는 것이다. 사고 영역에서 이성은 존재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바람직하고 활동적인 영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원하는 것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한다. 그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서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항상 또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에게 현명함, 즉 수단과 목적을 정확히 고려하고 일을 외부 상황과 조화롭게 이끌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정당하게 평가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아, 의지의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의지는 우리 모든 힘과 삶의 주인이다. 그 역할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 욕망이나 그 욕망을 대체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방식, 방법, 정도를 결정하여 삶이 마땅히 흘러가도록 하고, 살아가는 이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 일상적, 사회적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삶이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자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에 맞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확립된 규범에 따라 모든 일과 시작을 포함해 삶을 건전하게 영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바람직한 측면 또는 활동적인 측면의 과제이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십시오,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혼란과 산만함, 방황하는 생각이 있고, 바람직한 쪽에는 번덕스러움과 무질서, 제멋대로인 욕망이 있으며, 그 뒤를 따라 행동도 그러합니다. 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허송세월하는가: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 일을 하고 다시 고치지만, 그에 대한 건전한 설명을 할 줄 모른다; 시작은 시작을, 일은 일을 잊지만, 결국 나오는 것은 소란과 허영뿐이다. 욕망이 생겨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욕망만 부추겨잡니다. 한 번쯤은 팬찮겠지만, 거의 매시간마다 그러니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인 의지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분노, 증오, 시기, 인색, 허영, 교만 등이 있습니다. 욕망의 근원은 가정과 사회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필요여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있나? 그것들은 오직 본성과 삶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이 야만적인 침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나는 서둘러 결론으로 넘어가겠다.

| 8 |

감정의 측면은 마음이다. 우리 삶에서 마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에는 영혼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과 영혼의 사고적·활동적 측면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이 쌓인다. 또한 마음은 영혼이 외부로 드러내는 모든 것을 통과한다. 그래서 마음은 삶의 중심이라 불린다.

마음의 역할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의 상태를 느끼며, 동시에 다양한 영혼과 육체의 개별적 행동, 주변과 마주치는 사물, 외부 상황, 그리고 삶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인상들을 느끼며,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즐거운 것을 얻고 불쾌한 것을 피하도록 강요하고 이끌어낸다. 몸의 건강과 병약함, 활력과 무기력함, 피로와 강건함, 상쾌함과 졸음; 그리고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맡은 것, 맛본 것, 기억된 것과 상상된 것, 생각된 것과 생각 중인 것, 행해진 것과 행해지고 있는 것과 행해져야 할 것, 얻어진 것과 얻어지고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 그것이 사람인지 상황의 합치인지, —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반영되어 기쁘거나 불쾌하게 자극한다. 이를 보면, 마음은 한 순간도 평온할 수 없고, 폭풍 전의 기압계처럼 끊임없는 동요와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감되기도 하고, 많은 것이 그에게 흔적도 없이 지나간다. 여러분이 그 사례들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 어떤 곳에 가게 되면 그곳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면 거의 그렇지 않다.

마음에 미치는 모든 영향은 그 안에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지만, 그것을 구분할 만한 우리 언어에는 단어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즐겁다 — 즐겁지 않다, 좋아한다 —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있다 — 지루하다, 기쁨 — 슬픔, 애도 — 즐거움, 평온 — 불안, 짜증 — 만족, 두려움 — 희망, 반감 — 호감. 자신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 이러저러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경제에서 심장의 의미는 단순히 고통스럽게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만족스러운 상태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증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힘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일, 마음이 가는 일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내는지!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손이 떨어지고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필요한 일을 만나면 그 안에서 즐거운 면을 서둘러 찾아내어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고, 일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유지합니다. 열정 — 의지의 원동력 — 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적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주제는 더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논의됩니다. 이때 생각은 저절로 샘솟고, 아무리 긴 작업이라도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모두에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똑같이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에 더,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 더 마음이 쏠린다. 이는 이렇게 표현된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타고난 성향에, 부분적으로는 — 아니 더 큰 부분은? — 첫인상, 양육의 영향, 삶의 우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취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꾸미고, 자신의 취향이 가리키는 대로, 그리고 그것들로 만족하며 평화로워지는 사물과 관계들로 자신을 둘러싸도록 만든다. 마음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에게 달콤한 평안을 주며, 그것이 바로 각자에게 맞는 행복의 척도를 이룬다. 아무것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

만약 사람이 항상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성을 지키고, 행동에서는 신중함을 유지한다면,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우연한 일들을 가장 적게 만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정신적 부분은 드물게 제 역할을 다하며, 꿈과 산만함에 빠져들고, 활동적 부분은 정상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본성의 필요에 의해 자극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정욕에 의해 자극된 번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 양측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한, 평안을 가질 수 없다. 가장 심장을 괴롭히는 것은 정욕이다. 정욕이 없다면 물론 불행은 찾아오겠지만, 정욕이 심장을 괴롭히는 것처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분노가 심장을 얼마나 태우는지! 증오가 심장을 얼마나 찢어 놓는지! 악의적인 시기가 심장을 얼마나 갇아먹는지! 만족되지 않거나 모욕당한 허영심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고통을 주는지! 자존심이 상할 때 슬픔이 얼마나 짓누르는가! 하지만 좀 더 엄격히 살펴보면, 우리 모든 불안과 마음의 고통이 정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정욕들은 만족될 때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반면 만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만나면, 오래 지속되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준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분명히 삶의 근원이자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사람의 상태가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며, 다른 힘들을 활동으로 이끌고 그 활동의 결과를 다시 받아들여 사람의 상태를 결정하는 감정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그에게 삶의 통제권 전체를 맡겨야 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였고, 아마도 본성상 바로 그런 목적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정욕이 앞섰고 모든 것을 흐려버렸다. 정욕이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마음이 잘못 알려주고, 감상은 있어야 할 모습과 다르게 되며, 취향은 왜곡되고, 다른 힘들의 자극은

마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법칙은 마음을 손에 쥐고 그 감정과 취향과 욕망을 엄격한 비판에 맡기는 것이다. 정욕에서 깨끗해진 자는 마음껏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 그러나 정욕이 아직 강한 동안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온갖 잘못된 길로 자신을 내모는 것이다. 가장 나쁜 행동은 삶의 전부를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 즉 삶 그 자체에 바치는 자들의 것이다. 육체적·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급한 감각성에 빠지고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하는 경계선 아래로 떨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영혼과 영적 삶의 모든 측면입니다! 나는 각 측면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일부러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기시키지 않아도 당신 안에 첫 번째를 따르고 마지막을 멀리하려는 준비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 9 |

쓰셨군요: “저는 생각을 진지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사유하는 습관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좋은 책을 가져와 그것으로 마음을 실용적인 사유에 집중시키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자꾸 옆길로 새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흘러갔어요. 결국 나는 완전히 생각에 잠겼고, 어디에 있지 않았고 무슨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우리 중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철학하는 거야? 무슨 생각?” 저는 전혀 철학하는 게 아니라 꿈꾸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지만,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이제 보니, 이걸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어찌겠어요?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당신의 그 관찰에 다른 것도 덧붙여 보세요: 하루만이라도 화내거나 짜증 내지 않고 지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말해 보세요.

그러고는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과 영혼의 삶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덕목에 대해서도, 경건함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에게서 그것들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방금 전 제가 쓰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말하려는 것을 전하려 했지만, 기다려서 당신이 모든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질문이 왔군요. 제안된 내용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당신의 훌륭하게 구성된 머리에 걸맞은 일입니다. 당신이 지적한 누락은 누락이 아니라, 당신이 빠진 것으로 여긴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그런 것들에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일이지, 영혼은 전적으로 우리의 일시적인 삶, 즉 지상의 삶을 꾸려가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지식은 오직 경험이 주는 것에 기반하여 구축되며, 그 활동은 일시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감정은 오직 눈에 보이는 상태와 상황에서만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영혼의 일이 아닙니다. 비록 그 안에 위에서 말한 것보다 높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더 높은 영역, 즉 영의 영역에서 그녀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이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에 불어넣으신 힘으로, 그의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 위의 모든 생물의 종류를 낳았다. 땅에서 나온 것은 모든 생물의 영혼이기도 하다. 인간의 영혼은 비록 낮은 부분에서는 동물들의 영혼과 유사하지만, 높은 부분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인간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영혼이 영과 결합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그것과 결합함으로써, 그것은 모든 비인간적인 영혼보다 훨씬 높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동물들에게서 보이는 것 외에도, 영혼이 갖든 인간의 영혼에 고유한 것,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영 자체에 고유한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인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찾습니다. 어떤 영적인 은밀한 직감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신하며, 그는 자신에게서 온

전적인 의존성을 느끼고, 그분께 온갖 방법으로 기쁘게 해 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영적 삶의 움직임이 더 뚜렷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발전 단계에 있든, 최고 존재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모든 일에 그분께 의존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그분이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자이자 보응자이심을 안다. 이것이 영에 기록된 자연스러운 신앙의 상징이다. 이를 고백할 때, 영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2) 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는 영은, 양심이 이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지정된 자연스러운 신앙의 상징 안에서 자신의 전지전능함의 일부를 영혼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의 거룩함과 진리와 선함의 요구사항을 새기셨으며, 그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스스로 지켜보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그에게 맡기셨다. 영혼의 이 측면이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쁘고 기쁘지 않은지, 무엇이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은지를 가리킨다. 가리킨 후에는 권위 있게 그것을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이행하면 위로로 보상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으로 벌한다. 양심은 입법자요, 법의 수호자요, 재판관이요, 보응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연스러운 돌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양심의 작용을 봅니다.

3)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는 만물이 지닌 완전한 선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으로 표현되며, 또한 만물이 지닌 불만족에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불만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물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맞보고자 하며, 그분과 살아있는 연합과 결합 속에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를 이룰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지만, 이루기 전까지는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조물과 복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에게는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듯이, 모두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다. 찾고 또 찾지만, 찾은 것을 버리고 다시 찾기 시작하여, 그것도 찾은 후에는 마찬가지로 버립니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는 그들이 올바른 것을, 올바른 곳에서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땅과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늘의 것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의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을 그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여 우리 안에 분명히 영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바로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를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영은 우리를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은 존재로 만듭니다. 물론 당신은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가의 영, 민족의 영.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적인,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포착하기 어렵고 만질 수 없는 특징들의 총합입니다.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작가의 정신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람의 정신은 그 안에 살아있는 힘으로 내재하여 생생하고 느껴지는 움직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정신의 움직임과 행동이 없는 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 10 |

물으시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현상을 보이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많지 않나요?" 그 민족들은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정의하려다 그들은 착각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태양을, 어떤 이는 달이나 별 또는 다른 것을.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심하게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사건 후에 민족들을 땅 위에서 흠으셨을 때, 그들은 모두 그때까지 지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즉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창조주, 섭리자, 심판자, 보응자이심을 함께 지니고 갔다. 그가 창조주, 섭리자, 보응자이심을 모든 사람이 보존하였으나, 그가 무형의 영이심을 모든 사람이 보존하지는 못하여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나니”(롬 1:23)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했으며, 즉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21절). 동방 민족들 중에서는 페르시아인, 인도인, 아시아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세분화했습니다.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적 영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개념이며, 스스로에게 맡겨진 영은 이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인도인들은 신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탐구했지만, 신의 보이지 않음, 전능함, 만능함에 대한 개념을 유지한 채, 신의 창조적·섭리적 행위를 더 정확히 규정하려다 많은 모순을 낳고 수많은 신화적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여행자들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는 민족들과 소수 민족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 증언에서 맞는 것은 그들이 신앙 고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둘 다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그 민족들 사이에 좀 더 오래 살아봐야 했을 것이다. 베커는 우리 시대에 한 달 동안 어떤 민족 사이에서 살았는데, 나일강이 흐르는 호수 근처에서 살았지만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초승달이 뜬 날이 다가오자, 왕이 어딘가로 가려고 준비하고 모든 장로들도 모여 소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정해진 날이 되자 그들은 작은 언덕으로 가서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내가 이틀이나 사흘 먼저 떠났더라면, 이 민족이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증언할 수 있었을 거라고 베커는 말한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쓰지만, 그들의 입과 펜이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 척하지만, 그들의 양심 앞에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두 양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미래의 삶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과 신념을 지탱하는 힘은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은 인간 삶의 가장 높은 측면이며,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이 힘은 인간을 특징짓고 지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별한다. 이 힘을 다양한 정도로 약화시킬 수 있고, 그 요구를 왜곡해 해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억누르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의 불가분의 속성이며, 누구에게나 각자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질문이 저를 이런 이야기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쓰려던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과 결합함으로써 영의 영향으로 마음속에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 11 |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결합함으로써 영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온 영혼이 변모하여 본성상 동물적인 상태에서 인간적인 상태로 바뀌었고, 앞서 언급한 힘과 작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그것은 그 이상의 더 높은 열망을 드러내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 영혼이 영성화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영혼의 영성화는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사색적, 활동적, 감성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정신적 부분에서 정신의 작용은 영혼 속에 이상을 향한 열망을 낳는다. 본래 영혼의 정신성은 모두 경험과 관찰에 의존한다. 이 방식으로 분열되고 단절된 상태로 인식된 것들로부터 그녀는 일반화를 구축하고 추론을 하며, 이처럼 알려진 사물의 범주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한다.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신은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 모든 사물의 의미를 창조물의 총체 속에서 규명하려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는 인간에 대한 관찰과 일반화, 추론을 통해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질문을 던진다: "창조의 총체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탐구하며 어떤 이는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의 정점이자 관이다; 또 다른 이는: 인간은 제사장이다 — 모든 피조물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모아 지성적인 노래로 지고하신 창조주께 찬양을 드린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종류의 생각과 다른 모든 종류의 피조물, 그리고 그 모든 총체에 대한 생각은 영혼이 낳고자 하는 욕구를 낳는다. 그리고 낳는다. 그것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지만, 영혼이 그것들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찾고 낳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상성에 대한 열망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의미는 그 사물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 추구는 모든 것에 공통적이다. 경험적 인식 외에는 어떤 인식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지 않고는 이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이념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구축한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추측들, 그것 없이는 어떤 지식의 영역도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은 가장 낮은 계급의 사상들이다.

이상적인 관점의 형상은 형이상학과 진정한 철학으로, 이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간 지식의 영역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힘으로 항상 내재하는 영혼은 창조주이자 섭리자로서 하나님을 관조하며, 영혼을 그 보이지 않고 무한한 영역으로 이끌어간다. 아마도 영은 그 신성함에 따라 모든 사물을 하나님 안에서 관조하도록 예정되었고, 타락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존재를 이상적으로 관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이 영 안에 새겨 놓으신 그 상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상가들은 그 자체로 이미 철학자가 아니다. 영혼이 영의 감화에 기초하여 구축하는 사상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영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산물이지만, 이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적인 부분에서 정신의 작용은 이타적인 행위나 미덕을 원하고 실천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 미덕을 지향하는 열망이다. 본질적으로 영혼의 이 부분(의지)의 역할은 인간의 일시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에게 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수행하며, 그녀는 행하는 일이 즐겁거나, 유익하거나, 자신이 꾸려가는 삶에 필요하다는 확신에 따라 모든 일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범위를 벗어나 일과 시도를 행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필요하거나 유익하거나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선하고 선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해 온 열정으로 달려가며, 그것들이 일시적인 삶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며 그 대가로 이루어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너무나 강렬하게 나타나서, 그는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모든 것에서 초연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종류의 열망의 표현은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 밖에서도 발견된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혼에서 온다. 양심에는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삶의 규범이 새겨져 있다. 영과의 결합을 통해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영혼은 그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일과 삶의 영역에 그것을 도입하기로 결심하며, 그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열망을 동정하지만, 모두가 전적으로 그 열망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의 노력과 재산을 그런 정신의 일에 바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정신의 작용은 영혼 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사랑,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아함에 대한 갈망을 낳는다. 이 부분의 본질적인 역할은 영혼이 자신의 상태와 외부 영향이 정신적·육체적 욕구의 충족 또는 불만족이라는 기준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감정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의 영역에서 이기적인 감정들—그렇게 부르자—와 함께, 욕구의 충족이나 불충족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타적인 감정들, 즉 아름다움에서 오는 즐거움의 감정들을 볼 수 있다. 눈은 꽃에서 떼고 싶지 않고, 귀는 노래에서 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단지 둘 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거처를 이리저리 정리하고 꾸미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산책을 나가 장소를 고르는 것도 오로지 그곳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것은 회화 작품, 조각 작품, 음악과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며,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시적 창작물이 주는 즐거움이다. 우아한 예술 작품들은 외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특히 내적 내용의 아름다움, 지성적으로 관조되는 아름다움,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준다. 이런 현상들은 영혼 속에서 어디서 오는가? 이는 다른 영역, 즉 영혼의 영역에서 온 손님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오직 그것으로만 기쁨을 찾으려 한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지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그

아름다움의 예감을 은밀히 품고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지시하며, 피조물에 만족하지 않음으로 그 증거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맛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영혼의 필요이며, 그것의 생명이며 천국의 생명이다. 영과 결합하여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은 영혼은 그것을 좇아 매료되고, 자신의 영적 형상으로 그것을 깨달으며, 기쁨 속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그 반영으로 보이는 것(아마추어 예술가들)에 달려들거나, 스스로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안하고 창조한다. (예술가와 연기자들). 바로 여기에서 이 손님들—감각적인 감정으로부터 초월된 달콤한 손님들, 영혼을 영으로 고양시키고 영화시키는 손님들—이 온다! 참고로, 인공적인 작품들 중에서 나는 오직 신성한 아름다움, 즉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만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며, 비록 아름답지만 여전히 평범한 정신적·육체적 생활이나 그 생활의 일상적인 배경을 이루는 지상의 것들을 묘사하는 것들은 제외한다. 영혼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의 표현을 아름다운 형태로 찾는 것이다. 그 세계는 영혼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유혹한다.

바로 이것이 영혼과 결합한 영이 영혼에게 준 것이며, 영혼이 어떻게 영성화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당신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글씨를 대충 훑어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영성화되었습니까? 당신도 노래하고 음악을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지시된 요구사항, 즉 미적 예술이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이 측면을 함께 비판해 보겠습니다.

| 12 |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측면,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의 단계가 있는지요! 영적인 삶의 측면과 단계가 있고, 영적·정신적인 것이 있으며,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같네요 — 여기에는 상상력과 기억을 통한 관찰, 육체적 욕구에서 비롯된 욕망, 육체적 상태와 인상들에 대한 감각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섯 단계이지만 사람의 얼굴은 하나이며, 이 하나의 얼굴이 때로는 이 삶으로, 때로는 저 삶으로, 때로는 세 번째 삶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사느냐에 따라 특별한 성격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의 견해와 규칙, 감정에 반영된다. 즉 그것은 영적인 것—영적인 견해, 규칙, 감정을 가진—이거나, 정신적인 것—정신적인 개념, 규칙, 감정을 가진—이거나, 육체적인 것—육체적인 생각, 행동, 감정을 가진—이다. (중간 상태인 영혼적·영적 상태나 영혼적·육체적 상태는 너무 세분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영적일 때, 영혼과 육체가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영성이 지배적이 되어 영혼과 육체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스며든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서적일 때 그의 영성과 육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때 정서성이 지배적이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에 자신의 색채를 부여하며 영성 자체를 정서성의 외피로 감싼다는 뜻이다. 또한 사람이 육신적일 때 그의 영성과 정신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그의 모든 것이 육신화되어 영성과 정신성마저 육신적이며 육신에 복종하고 짓밟혀 그 노예 상태에 머문다는 뜻이다.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든, 그의 삶의 다른 측면들은 그에게 여전히 내재해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도 그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는 항상 한 측면을 약화시키고 다른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도 영혼과 육체에 빠질 수 있고, 육체적인 사람도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자가 영혼과 육체를 사랑하고, 후자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말이다. 인간은 항상 자유롭다. 자유는 자아의식과 함께 주어졌으며, 자아의식과 함께 영혼의 본질과 인간성의 규범을 이룬다. 자아의식과 자유를 없애면 영혼도 사라지고,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삶의 단계들을 오르내릴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위에서 아래로 가든 아래에서 위로 가든 똑같이 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하루에 여러 번 방을 옮기듯 빠르고 자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나는 이것으로 단지, 자신을 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의 내적 상태의 책임자이며, 만약 그가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음에도

그 상태에 머문다면,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 삶의 모든 단계나 표현은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 자체로 비난받을 수 없다. 생각이 방황하고, 떠돌고, 요동치며, 욕망이 번덕스러워지고,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외부에서 온 정열에 의해 자극받으며, 마음의 감정이 바로 그 정열들 때문에 동요하고 흔들리는 상태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신적 삶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안의 이러한 비자연성을 일부러 강조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지금도 일부러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에 맞게 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의 방황, 욕망의 번덕, 마음의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제대로 된 일을 하나도 하게 하지 않고 항상 거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 병은 비록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적은 이 병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알고, 누군가를 유혹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그를 이 소용돌이에 빠뜨리려 한다. 즉, 먼저 생각의 흐름에 빠뜨린 다음, 그 아래에서 욕망의 불을 지피고, 이로써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자에게는 유혹이 익어 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넘어지고, 넘어진 후에는 생각과 욕망과 감정의 격렬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는데, 때로는 잠시, 때로는 오래, 그리고 종종 영원히 그러하다. 그 삶, 그 일부를 기억하시다시피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삶은 온통 이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가고, 동네마다 더 격렬한 곳도 있고, 더 잔잔한 곳도 있고, 더 수수한 곳도 있고, 온몸을 드러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 내면의 격동을 벗어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아니—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이다. 방황하는 생각과 상상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 우리의 병을 잘 살펴보라 (당신도 이미 그 일부를 깨달았을 것이다, 생각의 억제 불가능함을 불평하며)—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치료의 수고를 시작하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나쁜 것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언제든 여러분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영혼과 육체에 관해서는, 그것들 자체는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따라, 혹은 더 나쁘게는 육체에 따라 형성된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는 지배할 운명이 아니며 종속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자신 안에서 지배하게 한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은 자연스럽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비자연적이다. 마찬가지로 육신성도 자연스럽지만,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비자연적이다. 여기서 최악은 종속적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 독점적으로 우세해지는 데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영성이 지배할 때, 비록 그것이 그의 특별한 성격과 기분일지라도, 그는 첫째로, 영성이 인간 삶의 규범이며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진정한 인간인 반면,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로,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영성과 육체성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정신성과 육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들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고 영혼에 복종시키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성(과학적 지식, 예술, 기타 일들에서)이 넓지 않고 육체성이 강하게 억제되어 있더라도, 그는 진정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지식이 풍부하고, 예술가이며, 사업가인)은 물론이고, 더욱이 육체적인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과 열망으로 삼지 않는, 다방면에 능통하고 우아한 사람보다 더 높다. 이것으로 문학과 예술 작품도 판단하라. 모든 것이 육신적인 작품은 손에서 내던져질 만큼 나쁘다. 그러나 영혼이 지배하는 작품들도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 비록 그것들이 육신적인 것들보다 낫지만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요소가 결여된 작품들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대적인 작품들은 바로 적의적인 유혹이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부터 당신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영으로 살아야 하며, 영에 복종시키고 영으로 모든 영적인 것, 더 나아가 육적인 것, 그리고 그것들에 이어 모든 외적인 것, 즉 가정과 사회 생활까지도 관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으로 살고 모든 것을 영에 복종시키도록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그렇게 살기로 한 결심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단호한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인간 삶이 본래 지향하는 수준에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보셨고, 물론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묘사된 대로, 즉 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학문도 공부했고, 가사도 잘하며, 음악과 노래에도 능숙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 안에 영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영혼과 육체의 삶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우리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빠른 결론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3 |

지난 편지 끝에 실린 질문에 답하려 했으나, 당신의 수호성인의 날이 다가와 이 기회에 당신께 드리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이 있어야만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복을 얻고, 그것들을 누리거나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사람에게 무슨 위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감각이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영적 위안뿐입니다. 그것들은 건강 상태에 좌우되지 않으며,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극심한 고문 속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했으며, 단지 입으로만 기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랄까요? 보통 행복을 바랍니다. 저도 당신께 행복을 빕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행복이 무엇인지,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당신께 바라며, 행복을 빕니다! 당신이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길 바랍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개념과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리건대, 아직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셨다면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육체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행복과 비슷한 무언가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는 덧없는 행복의 환영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들 사이에는 영혼과 육체 사이에 형성되고, 열정적인 생각과 욕망, 감정에 의해 휘말리는 격렬한 환경이 항상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는 정욕의 독 때문에 고통을 잊게 하는 취기만 가능할 뿐, 아편에서처럼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은 그 삶의 불가분의 속성이다. 그러나 영혼은 모든 동요를 초월하여 그 경계 너머로 나아가 그 안에 사는 이를 데려가고, 그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자신의 선함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를 진정하고 견고하게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로써 축복을 끝내야 할까? 아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삶으로 끝난다면, 물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관을 넘어 계속되며, 거기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드러나니, 축복의 완전을 위해 저는 당신께서 그곳에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행복하시기를. 저는 이를 온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 현세에서 평안히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당신의 온전한 행복이 있는 왕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물론, 당신의 의식에는 매우 가혹한 조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결단력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혹독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저는 아직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당신에게는 그것이 혹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고 물려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절을 맞아 사탕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제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당신과 어떤 아주 미세한 원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빛보다도 더 얇은 그 원소는 에테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 가장 미세한 원소가 존재하며, 모든 것을 관통하고 어디에나 스며들어 물질적 존재의

최후의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 원소 안에는 모든 복된 영들—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들 자신도 이 원소로 만들어진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소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영혼의 외피이기도 합니다(이 말에 우리 인간 영혼의 영혼인 영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영혼 자체는 영으로, 비물질적이지만 그 외피는 이 미묘한 비물질적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육체는 거칠지만, 영혼의 그 외피는 가장 미묘하여 영혼과 육체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영혼은 육체에, 육체는 영혼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 점은 잠깐 언급하는 것에 그친다. 다만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영혼은 가장 미세한 외피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영혼의 그 외피는 모든 영들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그 보편적인 가장 미세한 원소—이 외피들이 비롯된 곳이자 모든 영들이 떠도는 곳—이 우리 영혼과 그들의 영들 사이의 상호 교감을 위한 매개체임을 쉽게 추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상상에서 벗어나 우리 사이의 평범한 일들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모스크바에 살고, 아파트 벽 안에 앉아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어디를 보든 장애물만 마주칩니다: 수많은 사물들이 당신의 눈의 예리함과 원시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어떤 공 위에 올라 모스크바 위로 떠오른다면, 당신은 모스크바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간다면, 당신은 주변에 무엇이 더 있는지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력을 강화하고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 런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시력이 예리해져서 보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원소는 어디든지 통과하며 어디에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은 유리를 통과하고, 그 원소는 유리나 벽과 땅과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통과하듯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도 필요할 때면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세주께서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들어가셨을 때처럼, "그의 제자들이 모인 집의 문들이 잠겨 있었음에도"(요한복음 20:19). 그들은 특정 장소에 거하지만, 명령을 받거나 허락을 받으면 즉시 필요한 곳으로 그 원소를 통해 옮겨지며,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 필요할 때는 옮겨지고, 필요 없을 때는 제자리에 머물며 사방으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땅, 즉 우리 죄인들에게 돌릴 때면 우리도 분명히 봅니다... 다만 이 거친 육체는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니,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나니,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의 외피를 통해, 그들의 외피와 그들 사는 그 원소와 유사한 것을 통해 보나니, 영혼의 상태는 그 외피에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자의 영혼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상대방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육체라는 거친 장막 뒤에 영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성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영혼이 있는 그대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껍데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안에 거룩한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그 껍데기는 밝고, 각 거룩한 감정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빛난다. 그러나 그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순수하지 않다면, 그 껍질도 밝지 않고 각 불순한 감정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두워져, 때로는 안개처럼, 때로는 밤의 어둠처럼 보인다. 만약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 천사의 시력을 얻었다면, 물론 이 육신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 육체마저 벗어난다면, 땅을 내려다보며 다양한 인간 군중 대신 어떤 빛나는 그림자, 반쯤 빛나는 그림자, 안개 같은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 어둡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영혼이 더럽다면, 그리고 누더기를 입은 자들이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영혼이 순수하다면 말이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보는 모습에 따라 우리를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녀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지금, 그녀가 당신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시니, 당신도 그녀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항상 당신 곁에 계시는 수호천사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이 당신을 보는 그대로가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당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당신의 축제를 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영적인 위안과 기쁨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어둡거나 흐릿하게 보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아 밝게 보입니다. 적어도 당신의 수호성인의 날에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하늘의 존재들이 항상 당신을 밝게 보도록, 당신이 항상 그러하시고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곧바로 그들에게로 건너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14 |

이전 말에 덧붙여 같은 주제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혼이 자신의 육체적 외피를 통해 내적 기분에 상응하는 모습을 정확히 취한다는 몇 가지 사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 안드레이(그리스도를 위한 미친 사람)가 살아 있을 때, 콘스탄티노플에 한 사제(미혼)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식자, 은둔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드레아가 그를 만나 보니, 그는 어두운 안개 같은 것으로 감싸여 있었고, 목 주변에는 '은육의 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뱀이 감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했다. 성 안드레아의 영적인 눈이 보았다. (성 안드레아는 이 사제와 단들이 이야기한 후 그를 회개하게 하여 그가 고쳐졌다. 여기서부터는 1914년 판본에 따른 주석이다). 그러나 하늘의 존재들에게는 그들의 눈이 더욱 밝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셀 수 없이 많은 눈들이 보고 있다. 보라,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가! 우리를 향한 눈들은 더욱 많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양심, 즉 부패하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양심은 잠시 억눌릴 수 있지만, 항상 억압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양심이 완전히 무더진 사람에게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 목소리가 항상 맑고 청량합니다. 그것은 존재하며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불립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시선을 보내는지 반영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때, 그 양심의 증언은 빛으로 우리 영혼 주위를 비추며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밝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우리가 더럽다고 책망할 때면 우리는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수호천사들은 우리의 내적 기분, 지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에 따라 누군가는 어둡게, 누군가는 밝게 보입니다.

천사와 성인들 외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영혼이 밝을 때는 박쥐처럼 빛을 두려워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만 그것을 응시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무리를 지어 슬금슬금 다니며, 어두워진 영혼을 발견하는 즉시 무리 지어 달려들어 생각과 욕망, 감정의 동요로 이리저리 흔들어댄다. 내가 말한 그 격동하는 영역, 즉 영혼과 육체 사이에 불법적으로 형성된 곳은 악령들이 영혼에 달라붙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휘저어대는 장소다. 그들은 밝은 영혼들에게도 접근하려 하지만 빛의 광선처럼 화살처럼 쏘아져 물리치고 쓰러진다. 안티오키아에는 마술사 키프리아노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에게 마술로 자신이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여성 유스티나를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쳐다보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그에게 복무하는 악마들을 여러 번 그녀에게 보내, 자신들 나름대로 그녀 안에 청년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거처에 다가가기는 했으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돌아와서는 그곳 안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불태우는 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스티나가 마치 구름처럼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이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과 마법사 모두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습니다. 참조: 성자전).

이것이 바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양심이 깨끗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는 하느님의 두려움이 가득 차서 영혼을 건드릴 수 없게 지켜준다. 그때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오시니, 영혼 전체가 빛이 되어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깨끗하고 빛나는 상태로 보존된 영혼은 육신을 떠날 때에도 똑같이 빛나며 저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성 안토니우스가 제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하늘로 올라가는 빛의 줄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고 무엇인지 알아차린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 아몬이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 외적인 모습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보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되는 것이 낫다. 바실리오스 대성인의 말씀을 떠올리노니, 그는 말하길: 몸은 우리의 것이다. 몸 외에 우리에게 있는 것, 옷부터 시작하여,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영혼(과 영)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몸 자체에서 벗어나, 마음을 모아 자신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 영혼이여, 너는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잠시 벗어난 곳, 즉 어떻게 해야 영으로 살며 영으로 영혼과 몸과 모든 외적인 것을 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 15 |

그 자연의 힘에 관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니 매우 기쁩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요! 당신도 아마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는지, 혹은 스스로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설명이 이어지지만, 질문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원리를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신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명한 장치를 작동시키면, 그 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행동이 모스크바의 유사한 장치에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같은 의미로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장치들이 동일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전선이 그 장치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선의 작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성인은 마치 두 개의 동일한 장치와 같습니다. 성인들이 있고 우리 영혼을 둘러싼 그 매개체가 바로 그 전선입니다. 진정한 기도, 즉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영혼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원소(媒介)를 따라 빛의 광선처럼 성도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바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을 위한 전신 장치입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에서만 나와 입으로만 나오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빛을 내지 못하며, 거기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단지 기도의 형식일 뿐입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말한 바를 경험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쓰셨는데, 곧바로 안정을 찾으셨고, 당신을 괴롭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면에서 받으셨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도를 하늘로 보이지 않게 그 원소(元素)를 따라 보내는 전선에 비유한 제 비교가 옳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하늘로 향한 충격이나 빛이 갔고, 같은 선이나 같은 빛으로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응답이 왔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의 성취가 항상 즉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들리는 것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려 노력하십시오. 입으로만 말하거나 머리로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여기에 그 생명의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은 오직 당신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에만 의미가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을 때는 영이 멈춰버렸거나,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수호천사가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는 오지만, 힘쓰지 않는

하면 된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인가?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개별적인 상황들이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각자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며, 각자의 삶의 흐름 또한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의 일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과 매 만남 역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 가난한 사람이 당신에게 온다 — 이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 도와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오신 하나님은 물론, 당신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시며,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 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지막 목표인 하늘의 유업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화하면, 어떤 경우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서둘러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십시오. 누군가 칭찬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꾸짖었습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가? 기도하라. 일할 시간인가? 일하라 — 그리고 그 밖의 일들도, 그 밖의 일들도, 그 밖의 일들도. 만일 이 모든 것을 논의한 후, 모든 경우에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심한다면, 곧 당신의 일이 계명에 따라 꾸준히 행해져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도록 한다면, 당신의 삶에 관한 모든 과제는 이로써 완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목표는 무덤 너머의 복된 삶이며, 수단은 모든 삶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계명에 따른 행위들이다. 내 생각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단순하니, 복잡한 문제들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진보주의자들이 떠드는 다방면에 걸친, 인류 전체를 위한 유익한 활동에 대한 모든 계획을 머리에서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평온한 틀 안에 담겨 소란 없이 주요 목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름에 시달리는 이에게 건네준 한 잔의 찬물조차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차라리 순종과 감사, 사랑으로 하나님이 삶의 흐름 속에서 정해 주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당신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따뜻하고 안전하며 편안합니다. 멀리 생각해 빠지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며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신만의 삶, 특별한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에 대한 최선의 생각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좋으신 대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운명이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덤 너머의 복된 삶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화려한 운명을 꿈꾸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여러 상황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생각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헛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부모님과 형제자매, 다른 친척들과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삶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순서대로 하는 모든 일은 일이 될 것이며, 계명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글에 담긴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언하건대, 완전한 평안을 얻으시고 더 이상 "내 삶은 쓸모없어—유익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많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니까요. 물론 마음이 없어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통제 없이는 마음이 곧바로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지난 편지에 쓰인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기로 동의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려 함입니다. 이 삶은 짧지만, 저 삶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삶이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온 영원을 위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그곳으로 작은 예금처럼 보내집니다. 모든 예금이 모여 하나의 큰 자본이 되고, 그 이자가 예금자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더 많이 예금한 사람은 더 풍요로운 삶을, 적게 예금한 사람은 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즉 그곳에 더 많은 헌금을 보내는 일에 온전히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는 것을 주님 자신이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복음 11:30)고 말씀하심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에 대해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면 아무 유익 없이 살게 되고, 평생 아무 유익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신성한 성사를 통해 은혜로운 힘을 받아, 복음의 계명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수고를 하였기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보도록 일부러 덧붙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하라, 일하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믿으라,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믿음을 행함과 결합하고 행함을 믿음과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를 계명 이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계명을 행하라.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라. 주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우리 행위의 가치를 그 규모나 위대함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내적 태도로 판단하시며, 그 사이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로 둘러싸셨으니, 우리가 스스로를 살핀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를 위해 진보주의자들처럼 바다 건너갈 필요는 없다. 매일 매시간 주변을 살피라. 계명의 인장이 찍힌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일을 서둘러 행하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다른 일이 아닌 그 일을 요구하신다는 확신으로 행하라.

노력하여 이런 생각에 더욱 굳건히 서십시오. 한번 확고히 자리 잡으면,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밀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심지어 동생의 양말을 꿰매라는 말을 듣고 주님의 계명—순종하고 돕는 것—을 위해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는 일들의 총합에 더해질 것이다. 이처럼 모든 걸음, 모든 말, 심지어 움직임과 시선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따라서 매 순간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모든 인류와 최소한 자신들의 민족 전체를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인류나 민족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기에 지금 당장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행하는 것은 결국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각자가 인류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를 위해 가능한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합쳐서 매 순간 모든 궁핍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충분한 자와 부족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로 이루어진 인류 전체의 복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인류 전체의 행복을 염두에 두면서도, 눈앞에 있는 것()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다. 결국 그들은 공통된 것은 할 수 없으면서도, 사적인 것은 지나쳐 버리므로, 삶의 주요 목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신사가 어떤 젊은 개혁가 모임에서 — 진보주의 열풍이 한창일 때였죠 — 인류와 국민에 대한 사랑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모시던 하인이 문 열기를 좀 더뎠습니다. 그건 그에게 이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촛불을 가져오는 것도 더뎠고, 담배 파이프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으며, 방 안은 좀 쌀쌀했습니다... 결국 우리 자선가는 참지 못하고 하인을 꾸짖었다. 하인은 무슨 항변을 하려 했고, 자선가는 그를 가슴으로 밀쳤다. 자, 우리 친구는 저기서는 인류애에 불타올랐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대하지 못했구나. 그때 우리에게진 진보주의적 망상이 한창이었는데, 미녀들은 책 제본소에 뛰어들어 종종 어머니들을 빵 한 조각 없이 내버려 두면서도, 그래도 자신들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 인류의 복지를 이루고 있다고 꿈꾸곤 했다. 모든 불행은 지나치게 넓은 시야에서 비롯된다. 차라리 겸손히 눈을 내리깔고 발밑을 살피며 어디에 어떤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두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억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진보주의적 꿈이 영혼에 불러오는 혼란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 18 |

이제 우리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에게 세 가지(중간 단계를 포함하면 다섯 가지) 삶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고유한 욕구를 낳습니다. 이 욕구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 어떤 것은 더 높고 어떤 것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을 적절히 충족시킬 때 인간은 평안을 얻습니다. 영적 욕구는 가장 높으며, 그것이 충족될 때 다른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욕구가 풍족하게 충족되더라도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욕구의 충족을 '유일한 필요'라 부릅니다.

영적 욕구가 충족될 때, 그것들은 인간에게 다른 욕구들의 충족을 그것들과 조화롭게 하도록 가르친다. 그리하여 영혼이 충족되는 것도, 육체가 충족되는 것도 영적 삶에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돕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 안에는 삶의 모든 움직임과 표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생각과 감정, 욕망과 행동, 관계와 즐거움의 조화. 이것이 바로 낙원이다! 반대로,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 유일한 요구가 잊혀지면, 그때 다른 모든 욕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 자기 것을 요구하며, 그 수가 많아지면 그들의 목소리는 시장 소음처럼 가난한 사람을 멍하게 만들고, 그는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러나 평안은 결코 없다. 왜냐하면 하나가 만족하면 다른 것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만족을 받은 것보다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마치 어머니가 한 아이를 먹이면 다른 다섯 아이가 울부짖듯이, 집요하게 자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내면에는 소음과 소란, 사방으로 흩어짐과 모든 것에 무질서가 있다. 바로 여기서 앞서 특별히 언급했던 그 격렬한 과도가 생겨나며, 더욱더 모든 내면을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때로는 지쳐서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다가, 때로는 빙글빙글 맴돌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일과 영혼의 과멸입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측면이 우리 안에서 우세하게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우리 삶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건대,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삶이 제대로 발전했다면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는 영적 욕구만큼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영적 욕구 충족처럼 삶에 혼란과 동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와 자연스러운 상호 종속 속에서 발전했다면, 인간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흘러갔을까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그것은 싹을 틔우고 줄기와 잎을 내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면,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도 타인도 훌륭하게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뒤틀리는가?

당신이 그 소용돌이나 격동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빠져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내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같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무와 정신적 과멸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질서를 무질서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의 무질서를 우리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야 그 무질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지만, 당신의 양육은 경건한 가족과 친척들의 질서 정연한 영향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가족과 친척 관계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혼란을 체화하고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혼란에 빠지는 원인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가족과 사회에 혼란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걸모습이 속과 같습니니다. 가족과 사회에 무질서가 들어온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면에 없다면 겉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외부는 내부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내부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내부에는 대체 어디서부터 혼란이 들어온 것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외부의 소용돌이는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스스로 재생산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용돌이의 씨앗과 그에 대한 소질이 이미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혼란스러워했고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였습니까? 당신은 침묵했고,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 이틀 동안 격동하는 삶에 뛰어들며, 당신은 매료되었고,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것에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공감에서 격동과 혼란이 당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니다. 정신을 차리고, 당신은 자신 안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심이 당신에게 이 새로운 것이 당신의 일이며,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보고했고, 그 때문에 당신을 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에 순종하여, 당신은 그때 모든 것을 잘 논의하고 그 삶을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이후로, 만약 당신이 다시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마음이 동정심으로 뛰쳐나오려 할 때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멀리 떨어뜨려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토록 괴로워했던 그 고통을 다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지나가며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지금까지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온 당신에게서 그 무질서에 대한 동정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것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했지만 숨겨져 있었고, 이제야 드러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 영향은 새로운 것을 주지 않고, 단지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자극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예쁘게 태어나고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병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들은 부모와 다른 나병 환자들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에서 나왔습니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에서 왔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여러분은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면에서 생각과 감정, 욕망, 시작, 행동의 혼란을 보고 그 속에 휩쓸린다면, 이는 그 모든 것의 씨앗이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 무질서의 씨앗이 우리의 힘과 욕구가 드러남과 동시에 드러나면서 그 속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써 우리 삶의 전부를 혼란스럽고 격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질문,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려는 사람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는 올바른 과정을 거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19 |

비록 제가 당신께 판단해 달라고 썼고, 저 자신도 우리 안에 내적 혼란과 무질서의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당신도 그 근원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 상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씨앗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께서 우리 본성에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들어온 것, 즉 우리 조상들의 타락의 힘으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고 믿습니니다. 그들은 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

본성을 손상시키고 파괴했으며, 그 파괴되고 손상된 본성을 그들의 후손, 즉 온 인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져 우리 안에 혼란과 무질서를 일으키며, 그로 인해 개인의 삶과 가정, 사회 생활에 모든 무질서가 발생합니다. 이 무질서는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씨앗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인간 본성에 속하지도 않고, 인간 본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없이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병이며, 오직 그것을 제거할 때에야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본성에 따라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적 품위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을 기억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병을 고치십시오 —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적 혼란과 무질서는 우리에게 타고났지만, 본성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 본성의 본질적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성적 부분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교란시키고, 각 부분의 활동과 상호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것이 본성적이었다면, 그 존재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본성적인 것은 삶의 기쁨을 이루지만, 본성에 반하는 것은 그것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이것이 본성적이었다면, 누군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게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부터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여전히 인간, 진정한 인간이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입는 모든 이가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요일 3:3)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과 같이 되게 하는 영역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말하노니 이 무질서는 우리에게 타고났으나 본성적은 아니니라 — 기억하고 그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 이 확신은 이 병을 치료하려는 열정을 당신 안에 지탱해 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본성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누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열정에 불타지 않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순수한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 천사들조차도 그것이 그러할 때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본다. 우리도 그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도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 안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복과 안녕은 바로 이 병에서 벗어나는 데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상태에 있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막겠는가? 반대로, 이 병이 본성적이라면, 그것은 결코 고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하여 그것을 몰아내려 해도, 그것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손을 내리며 스스로 말할 것이다: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바로 이것이 그 해로운 무관심이며, 그 속에 빠져들면 사람들은 '방탕함에 빠져 모든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행하게' 된다(엡 4:19).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우리의 무질서가 우리 본성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뭐 어찌겠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자신을 다스리려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로잡고자 열망하며, 겪었던 고통을 다시는 허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20 |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 본성의 부분과 힘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동일한 법칙과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자유와 함께 그곳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분과 힘의 상호 관계를 교란시키고, 그들의 원초적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의 전반적인 활동과 삶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우리에게 본래적이지 않은 파괴적 힘의 특별한 계급—정욕—을 낳았으니, 이는 우리 모든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만큼의 권세를 얻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을 위해 창조하셨으며,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생생한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그분의 생명의 숨결, 즉 영을 그의 얼굴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의 본질적 속성은 의식과 자유이며, 그 본질적 움직임은 창조주이자

섭리자이며 보양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 완전히 의존한다는 느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분께 끊임없는 관심과 경외심,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항상 기쁘게 여겨지는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법칙을 세우신 양심에 따라 행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맞보고 그분으로만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사람에게 영으로 주어진 것은 의식과 자유이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이 유일한 목표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영혼과 육체를 다스릴 힘을 주시며, 나아가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상태였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라고 명하셨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은 그들에게 작은 계명을 주셨다: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명하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고 낙원에서 행복을 누렸다.

그들에게 시기한 것은 그 전에 교만으로 타락한 영이었고,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했다. 그는 그들에게 금지된 열매를 맛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마치 신처럼 될 것이라 유혹적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믿었고, 맛보았다. 먹은 일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닐지 몰라도, 믿은 것이 문제다. 누구를 믿었는지 알지 못한 채 믿었다는 것이 문제다. 아마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독처럼 주입한, 하나님에 대한 그 끔찍한 범죄적인 생각과 감정이 없었다면 말이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그들도 신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은 이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생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이상, 그분께 대한 불친절한 감정과 자기 멋대로의 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네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하겠노라!'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그분께 맞서서 우리 스스로를 꾸려 나가겠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끔찍하게도 범죄적인 것이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백한 배반과 그분에 대한 적대적인 반란을 의미한다. 그들 안에서는 악한 영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 보좌를 구름 위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대적인 결심이였다. 그리하여 의식은 교만해지고 자유는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이 이루어졌으니, 어떤 혐오와 적대적인 반역으로 말이다. 이에 하나님도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물러나셨고, 생명의 연합은 끊어졌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나, 자유로운 피조물들이 그분께 자신을 바칠 때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단아결면, 그분은 그들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품으시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상들도 홀로 남겨졌다. 만약 그들이 빨리 회개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게 버티었고, 명백한 책망에도 아담도, 하와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시다. 심판이 내려졌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에게 부과된 벌을 받아야 했고, 그 뒤를 이어 우리 온 인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에게서 물러나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과 다시 결합시키기 위한 놀라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좀 멀리 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영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끊어지자 신성한 힘의 공급도 끊어졌다. 스스로 내버려진 영은 더 이상 영혼과 육체의 지배자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 그들에게 사로잡혔다. 인간 위에 영혼성이 지배하게 되었고, 영혼성을 통해 육체성이 지배하게 되어 그는 영혼적이고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권능을 잃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양심의 불안으로, 때로는 피조물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그의 주장들은 무시당하고 단지 참고로만 받아들일 뿐, 모든 관심은 현세적 생활의 안정에 집중된다. 영혼이 바로 그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도 더 물질적인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현세적 삶은 육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모든 육체적 것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본성의 부분들 사이에서 질서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었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 감정을 제자리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혼란에 빠졌고, 무질서가 그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상태는 물론, 정욕이 없었다면 아직 견딜 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욕이 일어나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한다. 보라, 분노가 화를 내는 자를 어떻게 치는가, 마치 열병처럼. 질투에 사로잡힌 자는 질투에 갇혀 가련하게도 푸르스름해졌다. 슬픔에 잠긴 자는 슬픔에 말라비틀어져 뼈와 가죽만 남았다. 모든 정욕이 그러하다. 그것들은 자아와 함께 들어왔다. 조상의 마음속에서 '내가 바로 나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자아는 그에게 스며들었다—이 독과 사탄의 씨앗이. 그것에서 나중에 모든 정욕의 무리가 발전했다: 교만, 시기, 증오, 슬픔, 낙담, 정욕과 감각적 욕망—그것들의 수많은 다양한 산물들과 함께. 안에서 번식한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더욱 격분시킨다.

바로 여기에 병의 원인이 있다. 영혼이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었다. 그 대가로 권력을 잃고 영혼과 육체, 그리고 모든 외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영혼과 육체의 욕구와 욕망의 혼란, 특히 그 무한함이 비롯된다. 이 무한함은 그들에게 노예가 된 영혼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이 욕구들은 절제되어 있고 격렬하지 않다. 그것들이 절제를 모르고 격앙되는 것은, 영혼이 그 안에서 격노하기 때문이며, 본성상 그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식, 음주, 돈 모으기... 그리고 사람이 절제를 생각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나온다. 그러나 주요 병은 정욕, 즉 외부의 폭군들이다.

이제 여러분께 추측해 보시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질서로 되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쓰겠으니, 여러분은 당분간 생각해 보십시오.

| 21 |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전, 원래의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나는 내 생각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병이 들었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면, 그분과 다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떨어져 나갔다면,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우리는 해로운 결정을 내렸으니, 바로 이 '나 자신'이다. 이 해로운 '나 자신'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영은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본래의 힘을 잃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예가 되었다. 이 영의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 영혼의 권세가 끊어지자, 영혼과 육체의 욕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욕망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 모든 욕구를 다시 하나로 모아 그 질서 안에서 상호 복종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파멸적인 나 자신과 함께 우리 삶의 영역에 야생 짐승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욕망의 무리가 침투해 들어왔다. 이 욕망들을 추방해야 한다.

보십시오,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그 필요성의 다양성과 중요성만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첫 번째 단계, 즉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결합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일은 우리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스스로 그분께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을 강제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하려 하겠는가? 특히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경멸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모독하며 제멋대로 행함으로 그분의 권능을 짓밟은 후에 말인가? 내가 말하길: 회개하라 — 그리고 회개한다. 그러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네 일이 아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실 때에야 가능하다. 그 자체로는 무엇이겠는가?! 다쳐서 아프다 — 그게 뭐가 대수냐?!

그렇다, 하나님과의 재결합은 우리의 권능에 있지 않다. 그 조건과 성취 방식,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런데 재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루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즉시 영이 힘을 얻어 영혼과 몸을 지배하고, 욕구와 소망을 질서 있게 하며,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재결합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재결합의 법칙과 질서를 정하셨다면, 서둘러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감사함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정해지고 설명되었습니다! 받아들이고 활용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려와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실 길을 열기 위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께 당신의 일을 맡기셨으니,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떠나심을 알리시고 그들로 슬퍼하게 하신 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 16:7). 그리고 그보다 앞서 성 복음사가 요한 신학자는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시며 덧붙이셨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으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요 7:38-39). 육신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머무르셨고, 그분의 머무심은 믿는 자들에게 그토록 절박한 것이어서 다른 사도가 그들에게 놀라며 물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바로 이것이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시며, 그들 안에서 이 아들이 기도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21).

그가 어떻게 이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영과 결합하여, 그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탄생이라 부르며, 믿는 자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성 요한 복음사가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영적 삶의 법칙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요 3:5-6).

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 묻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받아들이고 지키십시오. 궁금해하면 원수가 다가와, 한때 하와에게 그랬듯, 유혹을 속삭이며 믿음을 흔들고, 그로 인해 믿음의 열매까지 빼앗을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바로 그 맛봄에서 비롯되었듯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신 후 승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섭리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 우리의 회복이 달려 있으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에 대해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보통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마디 하곤 하지만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곧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대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편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 22 |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화목의 중보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적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어떠한지 하는지는 그분께서 자신의 인성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의 은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역사 아래 우리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이 다르다고 말할 때, 그분들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그분들 사이에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로 경배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 베드로가 서신을 쓴 사람들에게 친절한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순종과 뿌림을 받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히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2)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성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비슷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고린도후서 13:13). 삼위일체로 경배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는 일은 그분의 우리 영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한 인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 인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가 우리와 교제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주 주님은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마 28:20). 이는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나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리라"*(요 14:23). 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살아가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성경의 증거를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전 3:16).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로 다할 수 없는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거처는 어떻게 마련되는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 은밀히 역사하여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우리 영은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보우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본연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감을 일깨우고 경외심을 되살립니다. 이것과 저것이 양심을 뒤흔듭니다. 양심은 우리의 행실과 감정을 증언하고 심판하는 증인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것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뒤흔들린 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느낌과 함께 사람을 자신의 처지가 막다른 골목임을 깨닫게 합니다: *어디로 가겠는가, 어디로 도망치겠는가?*(시 138:7). 그러나 도망갈 곳은 없다: *잡혀서 심판자이자 보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느낀다 (롬 1:18).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와서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해 줍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 영혼의 이러한 각성은 해로울 것이며, 필연적으로 절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복음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 각성으로 인해 마음속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달려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긴 사람에게 복음은 선포합니다: '어디로, 왜 달려가야'

하겠는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가라 —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 그리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리라. 사도들은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뒤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으라 —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성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첫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려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38). 성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먼저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나타내시되" (롬 1:18),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롬 3:22 등).

누군가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출구와 피난처를 가리키는 지시를 만나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붙잡는가.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으며, 복음의 복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희망을 품는다. 이러한 우리 영혼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준비되게 하며, 지금까지 외부에서 작용하며 자극하던 성령의 은혜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성사를 통해 내면에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행 2:38). 이것이 바로 생생하고 효과적인 신적 교제의 행위이다. 이 행위는 성도 사도들의 초기 전도 시절에 이처럼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들 이후에도 나타났고, 우리 쪽에서 마땅히 행해질 때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으며, 이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한 후, 하나님은 멈추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행동으로 마치 묻는 듯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시에 따르는 자는 은혜의 더 깊은 역사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며, 그 은혜가 그를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은혜의 더 깊은 역사를 막아버리며,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합니다. 설교 후 성 디오니시오와 몇몇이 그를 따라가 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이들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행 17:18)라고 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때에 들겠다"(행 17:32)고 했다. 하나님은 누구도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시며 오직 구원을 선택한 자만을 구원하신다. 만일 우리의 자유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순간에 구원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딤후 2:4). 그렇다면 전혀 멸망하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 의지는 항상 이성적이지 않으며, 완고해지고 하나님 자신께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나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구원받는 편에서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항상 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처지의 절박함을 깨우치고 복음이 그 출구를 가리킨 후, 재난의 감정에 더해 자신이 모든 일에 잘못했다고 깨닫고 그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안된 구원의 방식이 효과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구원받고자 갈망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모든 것을 전심으로 행할 완전한 준비를 보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면, 성사(聖事)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그 안에서 확신을 얻었다는 것 — 이 행동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며 그곳에서의 표현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준비 —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위한 활동적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구원 활동과 구원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준비는 우리 혼자서만 나타낼 때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에 임하면 그때 비로소 전능해져서 장애를 모르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끝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오직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바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1:4)를 이루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딤후 2:14).

나는 일부러 이 열심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당신이 이 열심에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 이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 쪽에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이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심이 있을 때—믿음과 구원을 추구하는 영역에서—그때 모든 것이 있고 우리 구원의 이루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행되어 그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 질투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긴 우회로를 거쳐서야 당신을 이 지점까지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논증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자신에 대해 함께 논해 보겠습니다.

| 23 |

지난번에 나는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끝까지 마치지 못했는데, 바로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일이었다. 이것의 결론은 이러하니, 아시라, 우리가 말한 그 질투—효과적이고 생생하며 불타오르고 지치지 않는 그 질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재결합함으로써 그 힘과 권리를 회복했다는 증거이다. 우리에게도 질투의 불꽃이 일 때가 있지만, 일었다가 곧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항상 타오르고, 지속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질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은혜를 입었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그런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체, 본성의 모든 욕구와 삶의 모든 관계와 시민적 관계를 모두 손에 쥐고 오직 한 가지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일로.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께서 이에 답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정을 질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영적 열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소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 생각이나 감정,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는 그녀가 거울처럼 깨끗하게 지키는 양심이 지시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 외에는 어떤 것에라도 집착하지 않도록 지키며, 모든 세속적인 희망을 끊고 자신의 희망으로 다른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녀는 일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지만,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은 그녀에게 부수적인 것이며,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명심하십시오, 질투에는 영적인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생활의 질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과학성에 대해 잠 못 이루며 질투하는가; 누가 예술성에 대해 온 세상을 누비며 질투하는가; 누가 산업과 무역에 대해 힘을 아끼지 않고 질투하는가; 누가 다른 것, 세속적이거나 시민적인 것에 대해 질투하는가.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사람의 관심과 힘을 사로잡으면 영적 질투를 꺼뜨린다는 점이다. 영혼의 질투는 앞서 언급한 가장 좋은 모습조차도 영적인 것에 냉담하며, 영적 질투를 만족시키는 일에 대한 모든 열의를 꺾어버린다. 다른 질투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이 영적 질투에 얼마나 반하는지. 왜냐하면 허영심에 찬 질투(옷차림 등에 대한)도 있고, 악한 질투—부도덕하고 죄악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투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것들은 영적 열정을 식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적대적이며, 양심 속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억누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서도 그것을 쫓아내고 박해한다.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라,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지 않은지?

영적 질투는 정신적(과학성, 예술성, 일상성, 시민성) 것을 쫓아내지 않고 오직 그것을 절제하고 질서 있게 하며, 자신의 형태로 이끌어 그 자체에 반하는 어떤 것에 대해 질투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오직 헛되고 열정적인 것만을 몰아내고, 그것들이 자신이 지배한 인간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그녀는 정신적 질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바로 그 질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과 활동들—과학, 예술, 기술, 가정생활, 시민적 직무와 직위—이 그녀 자신에게 활로를 주지 않고, 그녀를 억누르고, 식히고, 꺼뜨릴 때이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지배한 인간을 정신적 질투가 주관하는

삶의 질서에서 완전히 떼어내고, 오로지 그녀—영적 질투—를 만족시키기 위해만 종사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영적 질투를 모든 외부의 것들로부터 분리하여,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그것에 대해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불로 오셔서 우리 본성의 땅에 떨어지신 그 불입니다. 그 불은 거기서 모든 불필요한 것을 태워 없애고, 필요한 것은 모두 다시 녹여 정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솔로니가)에 편지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살전 5:19)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한 것이다. 비록 이 성령이 은혜로운 영이시지만, 그분의 우리 안에서의 임재는 영적 열정의 불타오름으로 증거되며, 이 열정이 꺼질 때 그분도 꺼지시기 때문이다. 그가 로마인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를 뜻했습니다: “열심에 게으리하지 말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며 주님을 섬기라”(롬 12:11).

열심과 게으름이 없는 것이 바로 열심이며, 영으로 불타는 것이 그 존재와 효력을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열심의 방향과 정신이다. 이러한 열심을 지향하며, 같은 사도는 빌립보인들에게 명령한다: “오직 참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과 찬미가 되는 것만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빌 4:8-9).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난 영이 질투하는 대상이며, 이러한 질투로 인해 그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또한 열정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며, 그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할 수 있으리라”(롬 12:1-2). 마음의 새김은 우리 영의 은혜로 새김을 받는 것이다. 살아난 영은 이 세대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며,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거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린다.

자, 이것이 바로 열심이 무엇이며, 그 힘이 어떠한지, 그 방향이 어떠한지입니다! 이 열심의 의미가 이토록 크기에, 우리에게 그 열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축하드리며 여러분께 제 인사말과 축복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새해 복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여러분께 편지를 쓰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 24 |

새해 인사를 간단히 드렸는데, 문득 생각나서 특별히 새해 인사를 드리며 특별한 것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특별히 바라는가? 바로 당신이 새것처럼 되기를 바란다. 새것처럼? 마치 새 옷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얼룩 하나, 주름 하나 없이; 그로부터 신선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당신의 영혼에게 바란다. 몸은, 옷에 비유하자면, 바늘에서 막 나온 것처럼 완전히 새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낡은 것을 지니고 나오며, 그 낡은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것을 맞보지 못한 채 낡은 채로 남습니다. 영혼 속의 낡은 것은 허영과 욕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새것이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전설을 들려드리면, 무슨 일인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사막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장이 아팠습니다: 폐인지, 심장인지, 간인지, 아니면 모두 함께였는지.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기에,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는데 그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그를 갈라놓고, 아픈 부위를 꺼내어 깨끗이 씻고 무엇인가로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무엇인가로 뿌리니, 마치 절개한 자국조차 없었던 것처럼 모두 아물었다. 깨어난 노인은 완전히 건강해진 채 일어났는데, 마치 병든 적도 없었던 것처럼 새것 같았고, 마치 전성기의 청년 같았다.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요? 당신의 영혼 속에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지고, 병든 것과 낡은 것은 버려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 제자리에 놓여 생명의 물로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새롭고 싱싱하며, 밝고 기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갈고닦는 사람 중 한 명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차갑게 외쳤습니다: 오,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에게도 그 노인 몸에 한 것과 같은 일을 해 주기만을! 이 탄식에는 기도와 함께, 자신의 노력으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싶은 욕망도 묻어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교활함도 낫설지 않다. 선택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을 위해 노력하기에는 손이 떨어지는 것이다. 영혼을 닦고 치유해 줄 천사들은 오지 않는다. 그들의 지시와 훈계도 있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 즉 도구와 의학 기구들이 주어졌습니다. 스스로 가져다가 필요한 곳을 아낌없이 베어내십시오. 다른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권능으로 영혼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은혜롭게 들어갈 것을 청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화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타인에게 떠넘길 것인지. 너희는 아직 제대로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작하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예언하노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오, 천사들이 와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면 좋으리! 그러나 천사들은 이 일을 맡지 않을 것이다, 비록 바로 너희 곁에 있다 해도. 정화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하며, 자기 연민 없이 해야 한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는 질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쓴 바로 그 질투입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자, 은혜로 갈고닦아지고 그 은혜의 인도에 따라 움직일 때 매우 잘 작용하는 칼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무자비해지기도 하며, 베이는 자의 비명을 듣지 않고 베어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일은 신속히 진행되어 곧 끝이 나는데, 모든 것이 베어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려나간 후에는, 그 질투는 더 이상 칼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 그 모든 맹렬함을 구원의 적들에게 돌린다. 그 성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 뻔뻔함은 누구도 평안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질투심이 있는지 더 정확히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없이는 여러분의 영적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영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며, 영이 잠들어 있을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 25 |

주님의 세례일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만 드리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일 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인가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세례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과 신성한 은총을 결합하고 융합시켜, 세례반에서 나오는 사람은 마치 작업장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 예를 들어 종과 같이 구리에 은이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비슷한 은이 없는 놋쇠 방울은 겉보기에는 은이 있는 방울과 같지만, 그 구성은 다르고, 소리도 다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가치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세례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결합되기 때문인데, 물론 세례받은 동시에 성령으로도 세례받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 실상 그 구성은 매우 다르다.

성례에서 우리 본성에 새로운 초자연적 요소가 더해져 우리 안에 숨겨져 은밀히 작용한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으며, 비록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은혜는 우리와 결합되어 그때부터 우리의 의식 밖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모와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세례 때부터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고, 빈둥거리지 않고 그 본성에 맞는 방식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믿음으로 인도되고 세례를 받는 연령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은혜의 작용은 그들에게 즉시 드러났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느껴졌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였습니다. 특히 성품과 삶의 변화가 놀라웠는데, 예를 들어 성미 급한 자가 온유해지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며, 인색한 자가 관대해지고, 방탕한 자가 절제하는 등이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세례반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자신 안에 선한 면모를 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것으로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자만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연스러운 것을 변화시키고, 많은 것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은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서 은밀히 작용합니다. 성체와 성혈의 성사(聖事)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며,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믿음과 경건함으로 가득하다면,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나며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성장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합니다. 당신이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인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은혜는 은밀히 작용하지만, 종종 성스러운 충동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주 자신을 갈고 닦으며,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따라 걸으시면, 은혜의 작용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는 불이 있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나무에 문지르면 연기가 나고, 그다음 불이 나타납니다. 호박과 밀랍에는 전기가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지르면 즉시 어떤 작은 입자들을 끌어당기는 힘과 심지어 불꽃으로 드러납니다. 전신기도 침묵하지만, 기계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즉시 전기가 깨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는지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딸이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따라 걸으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당신 안에서 생생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전기 태양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알려진 장치들로 많은 전기가 자극되어 그 자극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은혜의 작용 아래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주어지고 당신 안에 존재하는 은혜 말입니다. 자, 다시 같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때로는 베고 때로는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걸으려는 매우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 26 |

기독교인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본성과 은혜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고 드러나며, 우리 존재 전체를 관통하여 심지어 바깥으로까지 드러나 우리 본성을 삼켜 버리는 사람들뿐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아내가 누룩을 가져다가 반죽에 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받은 반죽은 즉시 신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죽 속에 넣어진 누룩은 조금씩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 결국 반죽 전체가 발효됩니다. 그 반죽으로 만든 빵은 부드럽고 향기롭고 맛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 본성에 스며들 때, 갑자기 온전히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모든 곳에 스며들면, 온 존재가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후에 행하는 일들은 모두 특별한 종류의 일들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들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향기, 특별한 맛, 특별한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일들만을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은혜가 우리 온 존재를 스며들어 활동할 공간을 얻으면, 나중에 밖으로 나와 보는 눈이 있는 모든 이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비유를 들어 보겠다. 불이 철을 스며들 때, 그 불이 철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와 그 불의 힘을 모든 이가 느낄 수 있게 드러내듯이, 은혜도 우리 온 존재를 스며들고 나면 모든 이에게 만져질 수 있게 보이게 됩니다. 그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은 그 안에 내재된 비범한 힘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 안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가 영적인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그의 모든 말은 한낮처럼 명료하게 흘러나와, 그의 말은 곧바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권위 있게 자신과 일치하는 감정과 기질을 형성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에게서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스며나오고, 어떤 힘이 흘러나와 도덕적 에너지를 자극하며 온갖 영적 일과 업적에 대한 준비를 낳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순간부터 은혜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성장하여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의 일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열성적으로 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가족이 경건하게 자녀를 기독교적 생활 방식으로 양육할 때, 은혜는 그들 내면을 스스로 평온하게 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적이고 자비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리켰을 텐데, 당신이 자신을 과대평가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만한 것이 없지만, 아직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은 남의 것이며, 주어진 것이며, 가꾼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좋은 것을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높이고 늘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좋은 기초 위에서 있고 좋은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에 아직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결정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지금 이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교육으로 당신 안에 심겨진 모든 것은 견고하지 못할 것이며,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라져버려, 단지 즐거운 기억, 혹은 불쾌한 기억만을 남길 것입니다.

세속 생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을 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경건한 가정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당신이 그 무질서한 질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품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내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당신을 괴롭혔던 그 슬픔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 동정심이 없었다면, 그 괴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 다시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거기서 보고 듣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괴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거기에 가시기도 하고, 가셨을 때 제가 쓴 대로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스스로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시니, 이제 스스로 행동할 나이가 되셨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건대, 당신에게서 나올 것은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공허하고 헛되며 정욕적인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인물일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인물은 당신이 온전히 그 삶에 빠져들 때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선하고 거룩하며 영적인 과거를 잊고 그것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아는 저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그저 그저한 존재—영적이지도, 세속적이지도, 기독교인도, 이교도도 아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라온 경건한 질서를 지키면서도 세속적 삶의 질서에 대한 동정심을 마음속에서 경계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지, 당신이 말하듯 때로는 필요할 수 있는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정은 당신을 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할 것이며, 당신은 마음의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습관 때문에 그 속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세속적인 영역에도, 진정한 영적인 영역에도 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어중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천사 중 한 명에게 내리신 심판과 같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네 입에서 너를 토해 내리라"* (계 3:15-16). 하나님과 모든 신성한 것에는 뜨겁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차갑지도 않고 신성한 것에 뜨겁지도 않으며, 양쪽 모두 미지근하고 반쯤 차갑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마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기독교적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바로 지금, 당신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전부입니다. 선택한다면, 이러니저러니 하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당신의 거듭나고자 하는 소망에 매우 기쁩니다. 당신은 그 소망으로 뛰어나왔지만, 주님, 이 소망을 결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하소서. 그 일은 글자 그대로는 그리 어렵고 길지 않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일생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결심에 이르는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작의 의식적이고 밝은 끝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힘의 에너지를 적절한 긴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효제처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과 세세한 곳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에 공간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그 후 덧붙여,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은혜는 즉시 작용하기 시작하며, 방해받지 않는다면 영혼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낸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혼이 성장하여 자신의 의지로 이미 은혜에 의해 심겨진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기초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의식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은총의 편에 서게 되면, 그때 은총은 이미 그 사람 스스로에게 어떻게 자신과 화해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지를 가르치며,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기 전까지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그 순간에서 계십니다. 당신의 의지와 자유에 따라 은총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첫 번째를 선택하고 삶의 수고를 통해 은총의 삶이 주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당신의 내면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까? 마치 빛나는 별처럼 사방에 밝은 빛을 퍼뜨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했고, 나중에 내가 내 말로 당신을 망쳤다고 썼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더 나왔는데, 내 지시에 따라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혼란만 보인다고요: 생각도, 감정도, 욕망도 모두 제멋대로이고, 이를 어떤 질서로 이끌 힘이 없다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것은 당신의 의식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아직 어느 편을 택할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가능한 질서를 부여해 왔고, 그것은 당신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은혜가 더 이상 혼자서 작용하지 않고 당신의 결정을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은혜는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떠나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대편으로 밀려나고, 어쩌면 마음으로 그 편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면의 혼란이 줄어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거기에는 더 큰 혼란과 어수선�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당신 안의 질서는 오직 당신이 은혜의 편에 서서 그 정신에 따른 삶의 질서를 당신의 삶의 시급한 법칙으로 삼을 때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당신 안에 생기는 순간, 당신 안에도 중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강력한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는 당신의 의식과 자유를 장악한 은혜, 혹은 은혜와 결합된 당신의 의식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부활이나 영의 회복이라고 불린 것과 같습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본성의 다른 모든 힘, 영혼과 육체의 힘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며, 그 모든 활동으로 다스려 선한 것은 보존하고 악한 것은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적 재생입니다. 이 재생이 완성되면 그때는 모든 것—작은 것도 큰 것도—하나의 중심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내면에는 가장 완전한 조화가 자리잡고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본성의 내적 성전을 덮을 것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 4:8-9). 얼마나 황홀하고 지극히 복된 상태인가. 당신은 당신의 갈망에 매우 합당한 대상에 대한 갈망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십시오, 어디에나 존재하는 가장 미세한 원소, 모든 것을 관통하며 우리 영혼의 외피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것에 대해 말했던 것을. 영혼이 은총 밖에 있을 때, 그 외피는 마치 가장 어두운 밤처럼 어둡거나, 누군가 정욕을 방종하고 그에 종사할 때 그렇습니다. 또는 누군가 정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으나 헛된 일에 살 때, 불분명한 안개처럼 흐릿합니다. 은총의 작용 아래, 영혼이 은총으로 스며들수록 그 껍질도 점차 밝아지는데, 이는 마치 흐린 날씨가 점차 개이는 것과 같다. 영혼

전체가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외피 또한 온전히 밝고 빛나게 된다. 이 경우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되어 거기서 모든 움직임과 행동이 발출되듯이, 외피의 밝고 빛나는 모습 또한 영적 행동에 이어 동일한 중심에서 발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광채이다. 내면이 은총을 받은 자는 영적인 빛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빛으로도 별처럼 빛난다.

이러한 내적 광채는 종종 외부로 터져 나와 타인에게 보이기도 한다. 194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 마침 한 수도사를 내게 맞아들였는데, 그에게서 은총의 뚜렷한 작용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점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깊어짐에 따라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지더니, 결국 눈처럼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세라핌 사로프스키 신부에 대해서도, 특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주 빛을 발했다고,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전해줍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성인들의 전기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예를 들어 한 성인은 기도하러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자마자 양손의 모든 손가락에서 빛의 뭉치가 꽤 넓은 공간으로 흘러내렸다고 한다. 또 다른 성인은 제자가 무언가를 보러 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몸을 숙여 구멍을 들여다보니, 노인이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빛의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아주 많다. 성 티혼에 대해서도 내가 어릴 적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주님의 변모 사건, 그분이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나타나신 것도 이와 같은 기원의 것이다.

다른 삶으로 넘어갈 때의 그런 광채는 이미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때는 이 거친 육신이 벗겨져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이 제자들과 앉아 이야기하던 중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고, 충분히 바라본 뒤 이렇게 말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빛의 기둥을 보았다. 이는 암모니아의 영혼이 주님께로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시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어느 정도 그 작용을 시작했지만, 온전히 본성에 스며들지는 못한 자들뿐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섯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잔에 불이 없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 은혜를 자신 안에서 불태우려 애쓰지 않았고, 그 은혜가 자신 안에서 온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총을 꺼뜨렸으니 빛도 없었고, 우리 안에서 은총 외에 어디서 빛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문 앞에 서서 거절당하고 신랑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쓰라린 운명입니다! 이 순간을 자주 마음속에 되새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주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 28 |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 같은 주제에 관한 몇 줄을 더 보내드립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자신 안에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죽여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먼저 은혜의 선물을 빼앗기고, 그다음에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는 구세주께서 미나 비유(눅 19:12-26)에서 밝히신 바이다. 모든 종들에게는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 은혜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한 달란트로 열 달란트를 더 벌었고,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싸서 놓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보다도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더 수고했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절반만큼 수고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 자신 안에서 은혜를 키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후 상은 은혜를 받거나 은혜의 작용으로 내면을 밝히는 일에 대한 수고에 따라 주어졌다. 마지막 사람은 이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처음에 그렇게 관대하게 주어진 것마저 빼앗겼다.

보십시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세례받은 자들은 모두 은혜의 순간 —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서 먼저 혼자서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비록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스스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작용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갈구할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기울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즉시, 그 은혜는 다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며 굳건히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은 우리의 갈망과 그 갈망을 위한 노력에 비례한다. 만약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그 의미로 갈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마치 강제로라도 우리 안에서 혼자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그 안에 들어가 활동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활동에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한 순간에 모든 사람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순간이면 모두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칙이 그러하니, 사람이 스스로 원하고 구해야 한다. 그때 은혜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오직 그가 그 은혜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구세주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밭에 감춰진 보물과 귀한 진주를 찾는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마태복음 13:44-46). 한 사람이 밭에서 십일조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물이 묻혀 있음을 보았다. 그는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십일조를 샀다. 물론 그는 나중에 보물을 파내어 부자가 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밭이나 십일조는 우리의 영혼이다.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은 거룩한 세례를 통해 그 안에 심겨진 은혜이다. 이 비유의 사람이 보물이라고 본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 곧 성령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순간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 보물을 얻기 위함, 즉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깨우고 현실로 이끌기 위함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상인은 보석 장사꾼이었다. 그는 어디선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보석이 있는 곳에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이 부분은 내가 덧붙인 것이다). 그 보석을 얻고자 했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석을 샀다. 물론 그는 부자가 되었다. 이 보석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며, 그 은혜가 자신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불타오르도록 힘쓴다.

이 비유들에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이 기대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1. 자신 안에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깨닫고;
2.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 소중함이 생명보다 더 커서 그 없이는 삶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3. 온 마음으로 이 은혜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 은혜에 맞추고자 갈망하며, 즉 자신의 온 존재로 그 은혜를 깊이 받아들여 깨우침과 거룩함을 얻고자 하는 것;
4. 실제로 이를 이루기로 결심하고
5. 이 결심을 실행에 옮겨 모든 것을 버리거나, 마음을 모든 것에서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맡겼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다섯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내적 재탄생의 시작이 놓여지며, 그 후에도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꾸준히 행동한다면 내적 재탄생과 깨달음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믿음과 자기 헌신에 따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제가 그 가정교사 이야기, 급격히 변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그녀는 이미 엘레즈 여성 수도원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1876년 《방랑자》에 실렸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작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불타는 열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 은총을 갈망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지 않고, 오직 그 갈망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순결한 대순교녀 에카테리나에게 그랬듯이, 이전에는 불완전했던 이집트의 마리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 러시아에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부든 처녀든! 복된 영혼들, 복된 영혼들! 복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영적인 삶의 속박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나, 영적인 것을 알고 갈망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속박을 끊게 했습니까? 그가 들은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의 은총이 빛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배운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외쳤다: "이 단순한 사람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우리의 모든 학식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든 위엄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바꾸어 성 안토니우스가 걸었던 그 길로 열정적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미루거나 날마다 미룰 것입니까?! 주님, 당신의 계몽의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소서.

| 29 |

아직 다 말하지 않았습시다.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것을 쓰려 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제의 중요성이 저를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스며든 영혼의 광채는 불이 철을 녹이듯 매혹적인 상태이다. 이를 듣는 자마다 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한다. 당신도 이와 같은 충동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동은 영혼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안다는 뜻이긴 하나, 이 경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못한다. 달려들었다가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충동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충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수고와 장애물,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의식한 채, 그에 맞서 목숨을 걸고 맞설 용기 있는 결의를 다지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결심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 전체에 스며들기를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것과 같으며, 영혼의 구원을 열망하는 것과 같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름과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나는 더 명확한 측면을 선택했다. 어떻게 부르든, 그 대상 자체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천국,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냐?" — 영으로 대답하리라: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하라: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라," — 그러면 손이 떨어진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항상 생기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욕망이 어떻게 결심으로 이어지는지 모두 이야기해 드리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상과 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그 대상에 마음이 쏠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쏠리지 않으면 그에 대한 기억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쏠리는 대상은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이 쏠린다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고 상상하는 것은 즐겁지만,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아직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한다: 좋은 물건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라. 우리는 그것들을 감상하며 즐기지만, 그것들을 향해 손을 뻗거나 그쪽으로 끌리는 유혹은 느끼지 못한다. 무언가를 원하려면, 원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개인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것 없이는 지루하고 괴롭게 살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물건에서 그런 측면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욕망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가정해 봅시다, 원하게 되었다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직 아니다. 에너지 부족이나 실행을 위한 힘의 결핍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이 얼마나 많은가.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나 결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영혼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물건을 얻거나 그런 일을 해내겠다고. 이 말이 영혼 속에서 발화되면,

그 뒤를 이어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고려가 시작된다: 수단을 숙고하고, 시간과 장소의 유리한 상황을 고안하며, 장애물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할 방안을 마련하며, 일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그려지면, 마음은 그 일을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나, 아직 일은 시작되지 않았다 — 일을 시작하고, 꾸준히, 인내하며, 적절한 열정으로 계속해야만 끝까지 이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마치 여러분이 목재 절단기를 톱질 준비를 마친 것과 같다: 증기가 공급되고, 나무가 놓여지며, 모든 것이 제대로 조정되었다. 이제 가동하기만 하면 — 일이 시작된다. 이 가동하기가 바로 모든 이전 준비의 정점이며, 마치 일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듯하지만, 일의 성패는 모두 여기에 달려 있다. 바로 욕망이 결심과 행동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이 무르익고 모든 것이 실행을 위해 준비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행위, 즉 모든 힘이 담긴 행동을 시작하는 일만이 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은 내면에서 일어났지만, 이제 우리의 내적 행위—지적인 행위—는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다른 것들과 함께 흘러가야 한다. 첫걸음만 내디디면, 그 일을 시작한 자가 들어선 환경 자체가 그를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이다—시작한 정신과 질서대로 계속해서 행하도록. 바로 이것이 일의 전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한 그 소망이 실제로 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완성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헛된 꽃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그것을 결심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덧없는 결심이 아니라 무겁고, 숙고된, 굳건하고, 이성적이며, 무엇보다도 되돌릴 수 없는 결심으로 말이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자신의 목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처럼 필요한 일에 대해 마음을 깨닫고 밝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당신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당신에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 안에 기록된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 30 |

참을 수 없구나. 나는 붓을 들고 다시금 당신께 그 매력적인 축복받은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이루고, 습득하고, 그 안에 정착하도록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지금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를 지닌 마카리우스 대성인의 말씀, 특히 그의 열여덟 번째 대화를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숨겨진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보물과 부를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물(은혜)을 얻고 가진 자들도 이 보물로 모든 덕을 얻으며, 그 보물로 더욱 큰 하늘의 부를 더해 간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절그릇에 담고 다닌다”(고린도후서 4:7), 즉, 아직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보물, 곧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자신 안에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늘의 성령의 보화를 얻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자는, 흠 없이 깨끗하게 그 보화로 계명에 따른 모든 진리와 덕행의 일을 강요나 어려움 없이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여, 우리에게도 그분의 성령의 보배를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모든 계명 안에서 흠 없고 깨끗하게 거하며, 모든 진리를 깨끗하고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여 하늘의 보물인 성령을 얻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다잡아야 하며,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했던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수월하고 쉽게 흠 없이 순수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 보물은 부지런한 구함과 믿음과 이 구함에 따른 수고 속의 인내를 통해 얻어집니다. 마음의 아픔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과 효력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이 작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묘사한다: “때로는 마치 왕의 연회에 초대된 것처럼 기쁨에 차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또 다른 때는 신부처럼 신성한 평안으로 신랑과의 교제 속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때로는 육체를 벗은 천사들처럼, 아직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 안에 같은 가벼움과 날개 달린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마치 안식 중에 취한 듯, 성령으로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여, 신성한 영적 비밀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그들을 사랑으로 불태우시어, 가능하다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작은 자로 여깁니다. 때로는 그들의 영혼이 어떤 위대한 침묵과 고요함, 평화 속에 안식을 얻기도 한다. 때로는 은혜로 어떤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도 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와 혀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지식을 얻기도 한다. 때로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되기도 한다.”

얼마나 갈망되는 상태인가! 여기에 은총으로 깨달은 내적 상태에 대한 또 다른 작은 묘사가 있다.

“영혼이 모든 정욕에서 완전히 정화되어 성령의 완전함에 이르러, 말로 다할 수 없는 교제 안에서 위로자이신 성령과 하나가 되고 녹아들며, 성령과 함께 녹아들어 스스로 영이 될 자격을 얻게 되면; 그때 그녀는 온전히 빛이 되고, 온전히 눈이 되고, 온전히 기쁨이 되고, 온전히 안식이 되고, 온전히 사랑이 되고, 온전히 자비가 되고, 온전히 은총과 선함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수행자들이 추구했고 이루려 애쓴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건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으로의 접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초월이나 정원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이러한 복이 약속되었고, 그것을 얻기 위한 보증금—성령의 은혜—가 세례와 견진성사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 안을 뒤져 이 보물을 꺼내는 일뿐입니다. 우리 정원의 보물은 삼만 들고 파기 시작하면 됩니다. 삼을 쫓는 첫 순간부터 은과 금이 딸랑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바로 그곳에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지난 편지에서 나는 결심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생각들 때문에 그 결심이 생겨나고 최종적인 긴장 상태에 이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단히 이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매력은 에너지를 자극하지만, 여기서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도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손에 잡히는 수단이 분명히 인식될 때, 그때야 비로소 결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게으름뱅이가 방에 앉아 있어 불려도 나오지 않지만,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디로든 뛰쳐나갈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유부단함에 대처하려면 우리 주변에 위험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즉,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시켜야 합니다. 이 생각이 의식에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도덕적 에너지가 온전히 깨어나 불가항력적으로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죽음이 닥칠 텐데,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 악한 종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은혜의 선물인 한 뼘을 빼앗고, 그 자신은 철축 같은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리십시오! 아니면 미친 처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문이 닫히고, 들을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결국 그 어느 쪽이든, 우리 안에 은총을 불태우지 않고 그것으로 깨우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자신을 그런 상황에 더 명확히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우유부단함()이, 만약 있다면, 이에 맞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옛 현자도 말했습니다: *"네 모든 일에 네 끝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시라 8:39). 이것을 더 명확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인식을 약화시키거나 흐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돕기 위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라는 책을 가져다가 읽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단의 손쉬움은 극한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어 재난을 극복하게 하고, 그로 인해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번째 요소이다. 반면, 이것이 없다면 극한 상황의 필연성은 절망에 빠지게 한다. 제시된 예에서, 자유로운 문이나 열린 창문이 없다면, 불에 휩싸인 자에게는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주제에서도, 우리가 진실로 처한 절박한 위기(은혜 없이는 천국을 잃을 수밖에 없음) 속에서,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수단이 없다면, 그러한 절박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후의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손에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을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망설이고 하루하루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당신에 대해 덧붙이자면, 특별히 무언가를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라온 그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정과 친척들 속에서 보는 그 경건한 질서를 지키십시오. 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온 마음으로 바로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스스로 기꺼이 끝까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마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끌려 왔습니다. 이는 매우 유익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선택으로 바로 이 삶을 택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가피한 법칙으로 삼지 않는다면 불안정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속적 삶의 악한 영에 휩쓸리거나,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서둘러 결심을 굳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31 |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쓰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불태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곧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주요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길의 시작이자, 계속됨이며,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고 작용하는 자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이끄는 고갈되지 않는 힘을 지니며, 동시에 깨어 있는 파수꾼이 있어 원수의 공격과 길목에서의 자신의 일탈로부터 지켜줍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태우고 항상 그 힘을 지키게 하소서!

아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적인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고 있나요?! 만약 오로지 독서와 기도만 하도록 한다면, 물론 그것은 특별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조금 읽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모든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같은 규칙을 지키고 계실 거예요. 이 독서는 앞선 기도와 함께 영혼을 굳건히 하고 하루 종일 힘을 줍니다. 의사들은 공복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침 기도와 독서로 이를 실천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것들로 채워지면 더 이상 굶주린 채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 제안드립니다. 공책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복음서나 다른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함이 보인다; 나에게는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에 실천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소; 주님, 도와주소서! 이 일은 사소하지만 그로부터 얻는 유익은 얼마나 크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오.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움직이는 영이 당신의 마음으로 옮겨가서 그것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는 상처에 바르는 기름과 같습니다!

독서와 기도 중에 생각이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 죄는 없고, 부적절함만 있을 뿐이다. 죄가 되는 것은 누군가 스스로 다른 생각을 키울 때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딴 데로 가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누군가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갈 때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그 생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기도 중에 생각이 방황하는 것을 줄이려면,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 전에 명상과 절로 마음을 달구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기도의 본질은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음 날에는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잠자는 동안 보호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침 기도의 본질은 잠과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 종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분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자신의 육체적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때로는 외적 필요를 고백하며, 어린아이처럼 말씀드리십시오: 보소서, 주님, 이 병과 연약함을! 도와 주시고 고쳐 주소서! 이 모든 것과 비슷한 것들은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잘 된다면 기도문을 완전히 버려도 되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기도문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기도 없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면, 이를 위해 여가 시간에 —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 앉아서 정해진 기도문들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후 아침이나 저녁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읽을 때, 목상으로 얻은 모든 생각과 감정이 되살아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기도를 서둘러 읽지 마라. 또한: 기도를 암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산만한 기도를 방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생각하도록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일할 힘이 생기며, 일들이 질서 있게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당신의 소망은 이 방법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 아래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죽음과 영원한 행복 또는 고통에 대한 기억을 더하십시오. 이 두 가지 기억은 생각 속에서도 모든 악한 것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허세 부리지 않고 진심으로 모든 선한 것으로 이끌 것입니다. 죽음의 기억이 삶을 독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독살하지 않고, 조심하고 삶을 독살하는 모든 것에서 자제하도록 가르칩니다. 죽음을 더 많이 기억한다면,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 모두에서 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애를 탐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표현을 살피고 즉시 잘라내십시오. 자기애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아끼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자만심 많은 사람들도 겉으로는 대부분 자만심 없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합니다. 다만 그들을 이끄는 방향이 다르고, 그들 안에 품은 의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일은 이 의도를 자만심에서 자기희생으로 바로잡고, 그에 따라 일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주님, 축복하소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가차 없이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내 앞에 순수하고 밝게 서 계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내 눈에 비친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32 |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금식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금식을 서둘러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바꾸지 마십시오. 성주간에도 금식하지만, 그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성주간에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성찬을 갈망하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 강요당하거나, 금식의 수고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거기서는 단 사흘만 수고하면 되니까요. 당신께는 첫 번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대로 금식하시도록 축복하소서. 당신이 마음먹은 모든 것은 금식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금식하고, 교회에 다니고, 혼자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회개로 영혼을 정화해야 합니다. 회개를 마땅히 행하기 위해 — 진실한 통회와 다시는 주님을 모독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 이를 위해 다른 모든 대림절의 수행들이 정해진다: 교회에 다니는 것, 가정 기도, 금식, 그 밖의 모든 것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속적인 일과 걱정, 그리고 세상 속을 방황하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자신의 일들을 중단하고 일 보러 다니는 대신 집에 머문다. 이 번잡함을 끊는 것이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대충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 당신의 번잡함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들은 존재하며 당신을 산만하게 한다. 금식에 착수하라, 모든 것을 미루어 두라.

가령,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았다 치자.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혼자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금식에 이르는 활동을 취해야 한다. 어떤 것일까? 기도, 독서, 묵상이다.

이 기도는 교회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당연한 것이지요.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마치 친근한 하나님의 집처럼, 쩡그리지 않고 지루해하지 말고. 교회에 가는 것은 단지 예배를 서서 참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함이다 — 마음의 온기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와 겸손과 경외의 감정을 쏟아내며, 자신의 영적 필요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려면 미리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예배 중에서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 향한 열망이 솟아오른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며, 예배를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한 방향으로 향하는 다양성은 산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하고 창조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의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노래되고 읽히는 것, 특히 액테니아(기도문)에 깊이 몰입하라.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요약한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생각은 방황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생각이 교회에서 벗어났음을 깨닫는 즉시, 그 생각을 되돌려 놓고 의식적으로 꿈꾸거나 생각으로 방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 지금, 금식 기간 동안이나 다른 어떤 때에도.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떠날 때는 아직 작은 죄이지만, 교회에 서서 일부러 여기저기 생각으로 헤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죄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은 마치 왕에게 무언가를 청하러 왔으면서도 왕 앞에서 춤추고 맴돌며 왕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이 전혀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긴장해도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꿈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각의 방황에 관한 이 두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황을 발견하는 즉시 생각을 되돌리고, 2) 의식적으로 생각이 방황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방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마음의 집중, 즉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온 마음을 쏟고, 그로부터 물러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주님께 고정됩니다. 그것들로부터 마음의 온기가 생겨나, 그 온기가 우리의 집중을 유일하신 주님께로 끌어당깁니다. 수고하여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묶어두는지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수고와 긴장 없이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의 따뜻함을 위해 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 절과 땅에 엎드리는 절을 자주 하십시오.

주여, 교회에 머무는 달콤함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하여 추위에서 따뜻한 방으로 달려가듯 교회로 달려가게 하소서.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금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합당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그 일을 돕고 보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해 계속하겠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오직 교회와 집만을 압니다. 집에 왔을 때,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가능한 한 주님께 경건한 마음과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바로

자신의 방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몇 번 절을 하며 인사하고, 주님께 경건하게, 영혼에 유익하게 다가올 고독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런 다음 잠시 앉아 쉬어야 한다. 그러나 생각들이 방황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되뇌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쉬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거나 수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언제 할지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영적인 일로만 할 수는 없으니, 수고스럽지 않은 수작업을 하나쯤은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시작할 때는 영혼이 지쳐서 읽지도, 생각하지도, 하느님께 기도하지도 못할 때여야 합니다. 만약 그 영적인 일들이 잘 진행된다면,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시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없으면 빈둥거리게 될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항상 해로운 것이며, 특히 금식 기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당신이 말한 대로 평소의 기도 규칙보다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문을 더 읽는 것보다 기도책 없이 더 오래 기도하며, 자신의 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영적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문을 읽되, 기도문 읽기 전과 후에 자신의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문 사이사이에 자신의 기도를 삽입하며 허리 절과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과 성모 마리아, 수호천사께 귀찮게 하십시오.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지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자신을 알게 해 주시고, 알게 된 후에는 고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고칠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회개와 겸손의 영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너무 길고 긴 규칙으로 자신을 얽매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주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 종일 조금씩, 그러나 자주 절을 하여 하루 종일 절로 채우십시오. 마음으로는 주님께게서 전혀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 중이든 다른 일을 하든 말입니다.

기도 후에는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읽는 것은 기억에 다양한 지식과 개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훈을 얻고 이 금식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이행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읽되, 읽은 모든 내용을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여 마음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물론 영적인 책들뿐입니다. 그중에서도 성 티혼의 글들보다 더 추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라는 책이 있는데, 성 티혼의 글 중에서 회개로 이끄는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또 회개와 성찬에 관한 책, 대사순절과 그 준비 주간에 대한 설교들도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시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들었습니다: 책 전체가 오직 회개와 성체성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독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책들은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적절한 책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 일에 힘쓰십시오. 기도 후 아침(저녁에 아침기도를 듣습니다)에는 모든 시간을 그 일에 할애하십시오, 시계가 울릴 때까지. 그것은 교회 기도에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계가 울린 후에도 마음이 내키고 집중이 될 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독서 중에 기도할 마음이 들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혼자 읽을까요? 혼자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자 읽으면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고 읽은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독서 중에 삽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가 공상에 빠지고 묵상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읽었고, 생각했고, 절도 했으니 — 이게 집에서 금식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든 일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주의를 유지하는 건 항상 쉽지 않습니다. 지치면,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앉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하셨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 안 됩니다. 이미 식사도 적게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오래 서 있을 힘과 집에서 절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몸에게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니 금식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잠도 조금 줄이고 깊이 잠드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신에게 희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희생하십시오. 이 기간에는 온갖 종류의 결핍이 적절합니다.

대화하는 것은? 대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같은 주제로요. 대화 대신 함께 읽는 시간을 정하고 함께 읽으십시오. 저녁에는 특히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회개와

성찬의 힘이 드러나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함께 읽을 책으로는 '체티 미네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덧붙이겠다.

| 34 |

금식에 관한 우리의 대화를 계속해 보자.

지금까지 말한 것은 금식이라는 틀, 즉 일반적으로 착한 금식자들이 지키는 외적인 규율과 질서입니다. 당신도 이를 지키려 노력하십시오, 선한 금식자가 되고 싶다면. 다만 우울한 표정을 짓지 말고, 얼굴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꺼이, 선하고 기쁜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오. 왕의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은 오직 그 잔치가 어떻게 될지, 왕을 어떻게 만날지, 무엇을 말할지, 왕이 어떻게 인사할지, 어떻게 더 잘 차려입고 체면을 구기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고 높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고하여 단장하고 준비하여 왕께서 기뻐하시게 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주시며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단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그러니 어떻게 단장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옷은 모두 버리고 새 옷을 준비하십시오. 낡은 옷 중 쓸 만한 것이 있다면 깨끗이 빨고 다림질하여 마치 새것인 양 차려입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들고 버리고, 좋은 것은 붙잡고 고치고 완성해야 합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 일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당신 안에 들어가 당신의 양심의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하십시오. 저는 이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지침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라고 권해 드린 책들에도 이에 관한 많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보려면 우리 활동적인 삶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들 —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별 행동들; 일들 아래 숨겨진 마음의 성향과 특징적인 경향들;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기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끊임없는 일련의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 말, 행동들이 서로를 대체하고 서로를 쫓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 특히 각각을 다시 살펴보고 그들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하루 동안 행한 자신의 행위들을 되짚어 보고 판단하려 해도,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수정하는가! 고백에서 고백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르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일일이 살살이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에게는 깨어 있는 수호자, 양심이 있다. 잘못된 일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건 괜찮고 저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변명해도, 양심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심이 지적하는 모든 일을 변명 없이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이라 부를 수 있겠다: 즉 양심이 고발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피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 자체가 모든 일에 흠잡을 데 없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혼란으로 인해 알아채지 못하고, 어떤 것은 오래되어 잊어버리며, 또 어떤 것은 무지나 우리에게 의무적인 일들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여기서 양심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에 의지해야 하며,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이러저러한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면 잊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기억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며 누구나 얼굴이나 옷에 있는

얼룩이나 먼지를 보는 것처럼,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열거된 계명들을 살펴보며 자신이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은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즉시 거짓 없이 이를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일이 있다.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 계명들을 당신이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계명은 누군가 구걸할 때마다 자선을 베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항상 그러지 않았는지: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단순히 거지를 경멸한 적이 없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그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죄입니다. 계명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용서하라, 심지어 불쾌하고 상처 주는 일도.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양보했는지, 다툼이나 큰 말다툼, 심지어 싸움은 없었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목하고 또: 죄, 비록 양심이 보통은 그런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더라도. 또 하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랬습니까? 평상시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무엇에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나아갈 것이며, 일이 해결되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께 감사할 것이며, 자신의 방법들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 깨닫고 기록하십시오: 죄입니다. 모든 계명에 대해 이렇게 행하고, 어떤 계명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는지 기록하십시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교리문답을 배웠는가? 거기에는 각 계명이 해석되어 있고, 어떤 선한 행위가 어떤 계명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며 어떤 죄악이 금지되는지 보여준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기억하기로는, 당신 집에 고백하는 법과 고백받는 법에 관한, 플라톤 코스트롭스키 대주교의 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백하는 이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매우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라면, 아마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이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자신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 후에는 다른 때에도 이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노력하십시오.

이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35 |

계속합니다. 삶의 두 번째 측면은 마음의 기분이나 성향, 즉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동만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마음을 살펴보고, 행동보다 여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우연히 남을 돕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마음이 자비롭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인색함 때문에 돕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두 행동이 같아 보이지만, 행동하는 이들의 내적 기질에는 큰 차이가 있다. 행동은 단발성으로,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향은 마음의 지속적인 기분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결정하고 그의 가장 큰 소망과 행동의 방향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중 선한 것은 미덕이라 불리며, 악한 것은 악덕, 악한 성향과 정욕이라 불립니다.

기독교인이 마음에 가져야 할 성향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복에 관한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다. 즉, 겸손, 통회, 은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마음, 자비, 순수한 마음,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이다. 성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로서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은유함, 절제함” (갈 5:22-23).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누구든지 누구에게 불평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옷 입으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친절하게 하라”(골로새서 3:12-15). 이와 반대되는 성향은 악덕이나 정욕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모든 악행의 근원이다. 그중 가장 주요한 것은 교만, 허영, 이기심, 절제하지 못함, 분노, 증오, 시기, 게으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정욕, 낙담, 절망이다. 사도는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조차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엡 5:2).

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한지요!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쁜 성향이나 정욕이 없는지. 조금씩은 누구나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은 깊지 않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가지 주요한 정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보다도 찾아내도록 힘쓰십시오. 비록 당신의 젊음 때문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깊이 살펴보면 그 흔적은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낸 후에는 다른 것들도 그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어떤 것이 그것에 더 가까운지, 어떤 것이 더 먼지.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귀중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신을 정욕과 나쁜 성향으로부터 정화하기 시작하면, 어디에 노력과 공격을 집중해야 할지 분명해질 것이니, 바로 자신의 주요 정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주력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쉽게 추격하고 마무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을 바로잡는 것은 쉽다. 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꺾고 바로잡는 것은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쟁이 필요하다. 투쟁에서 어디로 타격을 집중해야 할지 모르면, 힘만 소진하고 허둥대며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노력하라!

삶의 세 번째 측면은 삶의 정신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악한 정신은 너무 교활하고 선함과 적절함의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데 능숙하여,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가장 예리한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반면 선한 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이고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영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기주의)입니다. 이 영은 매우 자주, 아니 항상은 아니더라도, 부차적인 방향을 취합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삶의 정신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정신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당신이 누구를 위해 사는지, 혹은 아직 삶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누구를 위해 더 살고 싶은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끌리는지, 누구에게 당신의 삶을 바치고 싶은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기울이는지에 따라, 그 성질에 따라 삶의 정신을 정하십시오. 비록 지금 그것은 당신에게서 겨우 싹트기 시작했거나, 힘없는 새끼 새처럼 미약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의 정신은 경건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의 영혼은 자기만족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거나 욕욕적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자의 영혼은 평화주의적이거나 허영심에 차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당신 안에 어떤 영혼이 숨 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달려든 것을 보면, 당신의 주된 영혼은 선하고 진정한 영혼, 마땅히 그러해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속적인 삶의 질서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맞이하신 것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세상의 영혼은 당신 안에 자리 잡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로잡을 수도 있겠지요. 이기적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달려들었으니, 세상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기적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타오르게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 그리고 하십시오. 첫눈에 이는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한 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한 저녁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갈 필요 없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나 고해성사가 있는 그날 저녁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당장, 대립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하십시오. 서서히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만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선한 영의 이끌림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삶 자체가 당신을 더욱 완전한 자기 인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부분 자신을 알지 못하는가? 대충대충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모든 면에서 자신 안에 많은 결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36 |

그렇다면 얻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모든 결점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 없이 자신을 단호히 비판해야 합니다. 성찬례에서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기를"이라는 기도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거짓된 말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40:5)라고 노래할 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활한 변명으로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변명을 꾸며내는 자에게서 회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더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정죄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무죄로 선언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유죄로 보신다. 그렇게 보신다면, 정죄하실 것이다. 정죄하신다면, 합당한 벌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실 것이다. 지금이든 내일이든 이 벌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며, 하나님께 정죄받은 순간 이미 당신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전의 죄를 피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할 때, 죄의 용서를 바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점을 냉정하게 아는 자여, 그 결점들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후회하라. 뉘우침은 겸손한 결심을 낳아 결점을 피하게 하겠으나, 아는 것만으로는 경계하려는 의도만 따를 뿐 교만으로 이어질 것이니, 주여,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점을 피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지금부터 진정한 자기 수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인가에 화가 났다면,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화내지 않도록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결정하십시오.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미리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 두어야 다시 잘못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즉시 기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고칠지 적어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포괄적이고 완전히 올바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권능을 가지게 되고,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이런 행동 방식이 옳다는 인식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을 통제하게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때, 여기에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더하여 죄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시도록 청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깊이 확신해야 한다. 그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며 피하겠다고 약속하는 죄들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자비로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동시에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은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과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흔들림 없고 밝은 믿음 위에 내립니다.

이것을 행하시면 고백할 준비가 된 것이요, 고백 후에 죄 사함을 받으시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준비도 된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회개와 고치려는 굳건한 결심에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사 안에서 오셔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은 그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여!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자면! 3월 분 '체티 미네이'를 구해서 거기에 실린 복녀 테오도라가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3월 26일자 바실리우스 노보이의 생애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노인의 생애 기록 자체도 위대합니다. 테오도라의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여백에 적힌 메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인의 생애는 대략 이렇습니다. 바실리우스 신제는 처음에 콘스탄티노플 근처 사막에서 살다가, 간첩으로 잡혀 수많은 고문을 견뎌낸 끝에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느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익사로부터 구해 주셨고, 그는 몰래 도시로 돌아와 선한 어떤 이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광야에서처럼 수행을 시작했고, 그에게 성실히 섬긴 테오도라가 있었다. 이 노파는 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바실리우스에게는 또 다른 제자 그레고리우스가 있었는데, 평신도였지만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테오도라가 성 바실리우스에게 성실히 섬긴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곤 이 일을 노스님에게 물었다. 노스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곤 꿈속에서 테오도라가 바실리오를 위해 마련된 낙원의 장소, 빛나고 또 빛나는 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곤 그녀에게 어떻게 육신을 떠났는지, 어떻게 이 복된 곳에 이르렀는지 물었다. 이에 복된 테오도라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답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권한다. 매우 교훈적이다. 자기 성찰로 이끌 뿐만 아니라 눈물의 회개와 고백의 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게 심어줄 것이다.

책을 구하실 때까지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성녀 테오도라가 겪은 고난은 스무 가지였다. 첫째는 인간의 헛된 말과 행동, 즉 욕설, 조롱, 세속적인 음란한 노래, 무분별한 외침, 비웃음과 폭소로 인한 죄악을 고문하는 고난이었다. 두 번째는 거짓의 고난으로, 모든 거짓된 말이 심판을 받으며, 특히 맹세 위반, 헛되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짓 증언, 하느님께 한 서원의 불이행, 진실하지 않은 죄 고백, 그리고 와 같은 다른 거짓말들이 심판을 받는다. 셋째는 비난과 중상,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의 결점과 죄를 조롱하는 고문이다. 넷째는 탐식, 쾌락 추구, 과식, 잔치와 향락, 술주정, 금식 위반의 고문이다. 다섯째는 게으름으로, 모든 날과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는 자들, 무위도식하는 자들, 고용된 자들로서 받은 대가에 걸맞게 일하지 않는 자들, 주일과 명절에 교회 봉사에 소홀한 자들, 아침 예배와 성찬식에서 지루해하는 자들,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 고통받는 곳이다. 여섯째는 온갖 도둑질이다. 일곱째는 탐욕과 인색이다. 여덟째는 고리대금과 온갖 부정한 이윤 추구이다. 아홉째는 불의로, 불의한 재판관들이 매수되어 유죄자를 무죄로, 무죄자를 유죄로 판결하며, 고용인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매매 시에 불공정한 저울과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시기, 증오, 형제간의 증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열한 번째는 교만, 허영, 자만, 경멸, 거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열두 번째는 분노와 격노이다. 열셋째 — 원한 품기, 이웃에 대한 악의를 품고 복수하며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열넷째 — 살인, 여기서 강도질뿐 아니라 모든 상처, 머리와 어깨를 심하게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분노로 밀치는 것도 포함된다. 열다섯 번째는 마술, 유혹, 독살, 속삭임과 악령 소환이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는 육체적 죄악이다. 열아홉 번째는 이단, 신앙에 대한 그릇된 사색, 정통 기독교로부터의 배교, 하느님과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한 모독이다. 스무 번째는 자비롭지 못함과 잔혹함,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이다.

복된 테오도라가 겪은 것은 모든 영혼이 겪는 것이다. 사도는 악령들을 공중의 권세라 불렀다. 이 악하고 성가신 자들이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 할 때, 잡아먹지 못하면 위협으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회개의 눈물과 회개하는 행실, 특히 자선을 베푸는 것이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것이다. 복된 테오도라가 얼마나 자주 악령들이 그녀의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와 펼쳐서 그녀를 고발하려 했으나 거기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녀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를 따라다니던 천사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자의 죄는 지워진다고 말입니다.

쓸데없이 교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가르침에 따라 당신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십시오.

듣지 못하겠는데, 금식하기 시작하셨는지, 지금도 금식 중이신지요. 음, 금식하기 시작하시면, 금식에 관해 제가 써 드린 모든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말도 덧붙이겠습니다. 이 주제는 몇 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금식 틀, 즉 외적인 금식 질서 안에 자신을 넣어 놓고, 그 사이에 지시된 대로 자신을 엄격히 살펴보며 모든 결점을 점검한 후, 모든 일에 올바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이 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점이 핵심인데, 이를 모르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올바르게 되도록 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 나쁘다는 말인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나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고백을 시작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가 죄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띄게 나쁜 점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 편히 지내며 말하거나 비밀리에 느끼게 됩니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것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금까지 쓴 모든 글은 그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시된 대로 행한다면, 더 이상 당신의 입에서 "뭐 더 바랄 게 있겠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조금 더 이 문제에 집중시켜 보겠습니다.

일,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과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기쁘게,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나타나는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그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신중함과 하나님께 기쁘게 여김을 받는다는 분명한 자각으로 항상 행동한다면, 동시에 자신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으며, 비록 자신의 행위가 빛나거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그분께 기쁘지 않은 것을 의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양심의 평안과, 자신이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아니며 비록 위대하지도, 유명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기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보신다고 믿는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영적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우리 모두의 도덕적 삶은 이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방향성은 생각이나 의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일들은 제멋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삶의 주요 목적에 적합하다는 확신 없이 말이다.

최근에 나는 당신에게 삶의 정신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경건하거나, 자만하거나, 평화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를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비록 어딘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편지 26 끝부분). 이 정신으로 숨 쉬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은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반감도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야 한다면 가지만, 안 가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절 한두 번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모든 신성한 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눈에 띄게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자기 희생도 피하기 위해 항상 회피할 이유를 찾는다. 그들은 지나치게 평화주의자도 아니지만, 세상과 함께 세상의 일로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신을 기쁘게 하고 구원받는 일에 무관심하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시고 버리신다.

지금까지도 당신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온 일의 대부분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당신은 제쳐두기로 합시다. 확신하건대, 만약 성실히 모든 지시사항을 이행하신다면, 더 이상 그들과 조금도 닮지 않게 될 것이며,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만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들도 특별한 색채와 품격, 아름다움과 질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진심으로 이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고 그렇게 이끌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면의 평화가 임할 것이며, 마음의 평온함, 맑고 따뜻하며 기쁜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니, 그 속에 영혼의 낙원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삶에 대한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심이 생기려면, 중요한 것에 무관심한(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의 나뭇을 느끼고, 주의 깊은 삶의 경이로운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살아온 시간이 있지만, 그중 일부는 헛되이 보냈다는 것을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마음의 뉘우침은 앞으로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지금 신경 쓰십시오. 주님, 도와주소서!

구원받는 모든 이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 아무 의미도 없이 —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며, 천국을 얻는 길로 삼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바로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 38 |

그리고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읽고 나서, '아, 이건 너무 힘들어!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다 해도 발을 구르며 저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렵거나 엄청난 것도 없습니다. 모두 간단합니다. 조금씩 시작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해내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은 사소한 일에 엄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심과 뜻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려는 당신의 노력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만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일깨우고 굳건히 하여 영원히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라는 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받는 데 있어 시급한 조건입니다.

우리 구원의 일을 상기시켜 드리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리라. 우리는 조상들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며 그에게 나아와, 그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그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심함으로써 성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례와 견진 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탄생을 유아기에 받았습니다. 믿음은 부모와 대부모가 우리를 대신해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 것을 보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초기의 성사들에서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을 하는 것처럼 주어졌으나, 분명히 우리가 성장하여 자기 인식을 얻었을 때, 세례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선언한 의무들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 그때까지 혼자서 은밀히 작용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자유와 함께 작용하기 시작하며, 종종 자신을 뚜렷이 느끼게 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명백히 도움을 주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 이는 금식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금식하며 이 시기에 보통 행해지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를 더 근본적으로, 일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 한 그 서약을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이들이 당신을 대신해

사탄과 그의 모든 일, 그리고 그의 모든 섬김(세속적 삶)을 저버렸으니, 이제 당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저버리십시오. 그때 그들이 당신을 대신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분께 섬기고 경배할 것을 확언했으니, 이제 당신 스스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이를 선언하십시오.

이 확신으로 들어가서 그에 상응하는 결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하늘의 어머니와 당신의 수호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라는 성사 안에서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여러분이 이처럼 선한 마음가짐과 결심으로 그 성사들에 참여하시기를.

| 39 |

당신의 마지막 편지는 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밝아지고 마음의 결심이 올바르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미래의 새로운 삶의 질서에 관한 당신의 모든 계획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열기에 휩쓸려 이 일을 그릇되게 하지 않도록, 비록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편향은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 없는 질투요, 둘째는 게으름입니다), 서둘러 몇 가지 지침을 드리려 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재편할 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외적인 것은 당분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다만 그 본질 자체가 마음에 해로운 것, 즉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산만하게 하며 쓸데없는 일들을 쌓게 하는 것 등은 제외하십시오. 재편성은 물론 외적 질서에도 미쳐야 하지만, 그 형태보다는 이를 수행하는 정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외부는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나, 정신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외적 질서를 지나치게 급격히 깨지 않는 것의 이점은, 당신의 변화가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 바로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외부와 내부에서 생기는지요! 여러분이 화려한 길이 아닌 투쟁의 길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적대적이고 방해하는 것을 견딜 힘을 주시도록. 자신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희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도움은 항상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종 한 가지 고통만을 견디며 참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모든 열망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에도 실수와 실패가 스며들고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아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임. 마주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미리 이를 예견하고, 앞으로의 삶이 온갖 반대와 동요, 실패 속에서 흘러갈 것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준비하십시오 — 굳건한 용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작한 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평생 동안 다짐과 굳은 결심으로 새겨져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성공과 실수가 있을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두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성인들의 생애에서 관찰된 경험들로부터, 주님께서 그분께 따듯한 사랑으로 매달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원수가 적대적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시는 오른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은 신비로우시며, 무엇보다도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받는 자조차도 뒤돌아보며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적절한지요: "주여,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가 시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자에게는 전혀 방해하지 않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면에도 외면에도 장애물을 만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갑자기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고 나타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꿈꾸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곧바로 원수가 달려와 허영심 가득한 꿈을 키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로부터 자만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잃게 되며, 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상실하게 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적은 이미 폭군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에는 악을 부추기고 외면에는 강한 저항을 일으키며, 가련한 자만심에 빠진 자는 쓰러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인생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고민할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자신에 대해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그 속에 가장 위험한 원수의 매복이 있음을 깨닫고, 경계심을 더욱 강화하며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조금이라도 보이는 완벽함은 수고와 수고, 해와 해를 거쳐서 오는 것이지, 처음 시작부터나 첫날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이 첫날부터 온 힘을 다해 맹렬히 공격하여 시작하는 자가 길을 잃게 한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모두 반대다: 생각 속에서도, 감정 속에서도, 밖에서도 오직 선한 의도를 가로막는 것만 보이고, 아무런 유리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초보자를 처음부터 겁주어 그의 선한 뜻을 포기하게 하고, 무심하고 방심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려 한다. 그러나 초보자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보자마자, 적은 곧바로 물러난다. 용감하게 적에 맞서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여, 강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것이 적의 계략이며 그가 당신의 굳건함을 알아차리는 즉시 포기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에 쫓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에 대한 진정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도망치십시오. 아직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 40 |

당신은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시작해도 끝까지 해내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변덕스러우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을 모욕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약해져서 다시는 그런 열정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며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음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지나가고 구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대체되겠지만, 지금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질투를 불태우고 매우 해로운 방종의 유혹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간구가 생길 것입니다: 오 주여, 구원하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운명으로 이 불쌍한 자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강하고, 밖에서도 안에서 어떻게 폭풍이 일어나 혼란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 외치라: 오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선지자 다윗이 말한, 주님께서 멸시하지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미 이 위험을 보았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항상 그것을 느끼고 도움을 부르짖는 것이다. 주님께 병들 듯이 매달리는 이 감정은, 영적 생명의 흐름을 멈추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주변의 위험을 의식함으로써 생겨나야 하며 항상 지속되는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를 가진 자는 곧, 곧바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는 일에 대한 이 준비가 더 오래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더 오래가 아니라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준비 상태, 즉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열심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 또는 주님의 계명을 정확히 이행함으로써 주님께 자신을 바치려는 결심(이 모든 것은 같은 뜻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이 영적 삶을 구성합니다. 이 준비 상태가 있을 때 영적 삶이 있고, 없을 때 영적 삶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영적인 숨결이 멈추고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은 죽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시는 이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 준비와 열정과 부지런함을 온갖 방법으로 유지하고 복돋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 하나로만도 모든 후속 규칙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오직 이 열정과 준비 상태만을 지키라. 그것이 스스로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것을 명심하라!

이것은 이전의 고통스러운 주님에 대한 의지함과 함께 영적 삶의 뿌리이며,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성향의 적,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적을 당신은 잘 정의하셨습니다: 냉담함입니다. 오, 쓰라리고도 쓰라린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정의 식음이 해로운 냉담은 아님을 아십시오. 지나친 정신적 긴장의 결과로도 생기며, 육체적 힘의 쇠퇴나 건강 악화로도 생깁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의식적으로, 양심을 거스르며, 무엇인가 신성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 자의적으로 벗어남으로 인한 냉각은 비참합니다. 이는 영혼을 죽이고 영적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라, 불처럼, 죽음처럼 두려워하라.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결과로 생긴다. 그 두려움을 지키고 지켜서 그 무서운 악을 피하라. 힘의 고갈과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우연한 냉담함에 대해서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정해진 경건한 질서를 어기지 않고 참아내라. 비록 그 행위가 아무런 맛도 없이 이루어질지라도. 이를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는 곧 냉담함이 떠나가고 평소의 뜨겁고 진심 어린 열심이 돌아온다. 이 점도 유념하시고, 이제부터 첫째, 열정이 임의로 식어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고, 둘째, 우연한 냉각이 발생할 경우 확고한 확신으로 정해진 질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건조한 일의 수행이 곧 열정의 생기와 온기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최근 두 편지에 적어 드린 모든 내용은 나중에 새로운 삶을 실제로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삶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비록 아직은 정신적인 차원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이 그러한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마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영적 삶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봉사하려는 준비를 보시고 당신을 도우시니, 당신 스스로도 어떻게 이런저런 추측과 우려가 떠오르는지 모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수호천사가 당신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시작을 축복하소서!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외적인 지도와 지시들은 단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게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의 도움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며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 사람은 항상 진정한 일에 참여하지만, 그는 겸손으로 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금식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 41 |

이제 고백할 때가 다가왔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성사인 성찬의 가장 달콤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 모두를 당신께서 마땅히 이루게 하소서. 이를 위해 금식의 수고와 당신이 여기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왜 당신께서는, 글에 쓰신 대로,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당신께서는 왜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고해성사를 듣는 이는 단지 중인일 뿐이며, 죄를 받아들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고해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이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단지 누군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며, 누군가 죄를 고백하는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고백할 때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해진 대로 모두 행한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자주 고백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부터 주님의 만찬에 더 자주 참여하게 되고, 따라서 고백도 더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속에 털어놓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두고, 고해사제에게 가서 그 메모를 통해 모두 이야기하십시오. 진정한 고해성사는 스스로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고해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직접 말해야지, 고해사제가 묻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관행이 생겨서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백을 받는 사제는 필요에 따라 고백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묻고, 필요한 것은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가곤 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을 직접 말하고 메모 없이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스스로 모두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회개하는 영과 굳건한 결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후 모든 일에 바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나 두려움은 없게 하소서. 그것은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편지에서 잠시 뻗더니, 전하려던 생각의 실마리가 끊어졌습니다.

고백을 앞두고 두려움이 온다면,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귀한 일이지만, 당신에게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은 원수의 일입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원수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평온히 나아가십시오, 비록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비유에 나오는 나쁜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간 것처럼 나아가십시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꾸짖지도 모욕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팔을 벌려 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품은 이미 당신을 향해 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품으로 달려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랑으로 이를 이루십시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마음의 아픔과 앞으로 모든 일에 올바르게 되려고 노력하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결심은 이미 드러냈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당연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에 대한 마음의 아픔은 있습니까? 노력하여 일으키십시오. 아무리 당신의 죄가 적고 아무리 가볍게 여겨져도, 그것들은 여전히 죄이며 하나님의 불쾌함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 헛된 경솔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부끄러워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 앞에서, 그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 죄들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이 깨어짐에서 잘못에 빠지지 않는 힘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세히 다시 검토하고 고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마도 다 하지 못했거나 마음먹은 대로 완전히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여러분의 주요한 의도와 그분 앞에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되려는 결심이 소중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미 깨달은 모든 잘못과 앞으로 깨달을 모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양심이 당신에게 의무라고 여기는 모든 것과 앞으로 그렇게 여겨질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백은 저녁에 성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과 아침을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생각에 바치기 위함입니다. 이때 제가 드린 책에 있는 성찬 전 설교를 읽으십시오. 아니면 그냥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와 저 안에서 이루어 주소서, 다만 주님의 교제를 저에게서 빼앗지 마소서. 그리고 모두 이 짧은 기도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절을 더하십시오. 고백을 아침까지 미루면 저녁에는 생각이 분산되어 혼란스러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성스러운 성사에 임할 때에는,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신다는 완전한 믿음과 그에 걸맞은 경외심으로 임하십시오. 그 후 마음에 드는 바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많은 이들이 성찬에서 이것저것을 미리 바라고, 그러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당황하며 심지어 성사의 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립니다. 그러나 잘못은 성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나친 추측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께 오직 한 가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성찬의 열매는 대개 마음에 달콤한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때로는 생각에 깨달음을 주고 주님께 대한 헌신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후에 일들 속에서 약속된 올바름에 대한 큰 힘과 인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적하건대, 우리가 성체성사의 열매를 뚜렷이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드물게 성체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성체를 모시기로 결심하십시오 — 그러면 이 성사의 위로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며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두 성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선한 일에 주님께서 당신의 도우미가 되어주시기를!

| 42 |

이제 아마도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주님, 이 일이 당신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 주고,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며, 삶의 길에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앙 생활에 도덕적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니, 주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나이다. 한 이방 왕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의 오만함으로 말하길: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느니라.” 그것은 헛된 말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시던 중 폭풍이 배를 위협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망합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물결이 잔잔해지고 평온이 찾아오자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눅 8:23-25; 마 8:24-25). 이처럼 오직 주님께 대하여만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적이거나 외적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 22:4). 그리고 모든 성찬 참여자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보호자이신 야곱의 하나님이라” (시편 45:8).

이제 새롭게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셨으며, 주님의 임재로 격려받으셨으니, 주님의 일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토록 열성으로 받아들이신 그 일을, 생명의 저녁까지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위한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에 온전히 굳건히 서서, 그것이 주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며, 기억하지 않기에 우리가 기억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많은 것들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을 습관화하는 수고를 감수하십시오. 여기에 특별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려 애쓰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듯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며, 익숙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이로부터 영혼에 어떤 구원의 작용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심과 함께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더 쉽게 기르기 위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짧고 간결한 두세 마디의 기도문을 끊임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걸을 때나 앉을 때나 일할 때나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 항상 되뇌이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랜 연습 끝에 이 말들이 입에 붙어 저절로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각의 방황과 떠돌이를 매우 억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과 경외심을 함께 하십시오.

지금 당신께 더 말씀드릴 만한 것은, 당신이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자마자 이미 편지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외에 당신께 상기시켜야 할 것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진실하게 섬기는 길, 곧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할 참된 길에 들어선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도우시기를!

| 43 |

또한 여러분께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루 동안이라도 엄격히 관찰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혼란이 있으며, 이 혼란은 불법적으로 찾아왔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한때 내면의 억제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처할 수 없다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몇 마디로 다시 묘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모두 세속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 어떻게 해도 하늘로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은 헛되고, 감각적이며, 죄악된 것입니다. 안개가 계곡에 깔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생각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모두 땅을 기어 다니고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천함 외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름에 모기 떼처럼 밀려듭니다. 그 사이 그들은 행동 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아래에는 마음이 놓여 있고,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떨어져 들어와 그에 상응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어떤 생각이든, 그에 따른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기쁨, 분노, 시기, 두려움, 희망, 자신감, 절망이 차례로 마음속에 생겨난다. 멈춤도 없고 질서도 없으니, 생각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감정에 끊임없이 떨리니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일이 멈추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은 항상 어느 정도 강한 욕망을 낳는다. 뒤섞인 생각과 감정 아래에서 욕망들도 무질서하게 뒤섞인다: 이것을 얻고, 저것을 버리고; 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수하고; 모두에게서 도망치고, 한가운데 나서서 행동하고; 어떤 일에는 순종하고, 다른 일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그 밖에도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께끼 같은 생각들이 이것저것 끊임없이 마음속에 맴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을 잘 살펴보라. 이 모든 것이 마치 무대 위에서처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혼란과 어수선�함이 가득하다. 그로 인해 삶에도 혼란이 생기고 주변에는 어둠이 드리운다. 이 내적 혼란을 없애기 전에는 제대로 된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도 많은 해를 끼치지만, 특히 악마들이 그곳에 달라붙어 안을 더욱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더욱 나쁩니다.

금식 기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이것을 제거하고 저것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내면의 혼란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맞서 마땅한 열정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내면의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십시오.

당신은 주님께 일하고 오직 그분께만 속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고해 성사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고, 당신을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체 성사는 당신을 가장 가까운 교제로 이끌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를 새롭게 하셨으며, 온갖 은총의 힘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내적 삶을 바로잡는 데에 단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말하기만 하면 그 말에 즉시 행동이 따랐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최선으로 흘러가고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삶의 법칙은, 특히 본질이 손상된 존재에게는, 확고한 결심이 있고 은혜로운 도움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하고 싸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내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고 성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은총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자신에 대한, 자신의 내면에 대한 강화된 노력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란 내부에 군림하는 무질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질서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과 힘쓰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 내적 평화와 지속적인 기쁨의 상태가 따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수많은 일을 다시 하거나 알 수 없이 많은 규칙을 스스로에게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두세 가지 규칙, 두세 가지 경고 — 그게 전부입니다.

내면의 불온함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시며, 이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불온함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하십시오. 불온함의 원인은 우리 영혼이 그와 친근한 지탱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탱점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영혼이 그 지탱점을 밟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점을 썼고,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아시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항상 주님과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그분께 돌리며, 마치 왕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처럼 자신을 지키려 노력하십시오. 곧 익숙해지실 테니, 다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신다면, 내면의 혼란은 안으로부터 억눌려, 비록 헛되고 부적절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과 욕망의 형태로 터져 나오려 할지라도, 당신은 즉시 이 부당함을 알아차리고 이 불청객들을 쫓아내며, 매번 유일하신 주님에 대한 일치된 생각을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더 열심히 시작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 그러면 곧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집중이 자리 잡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내면의 평화도 찾아올 것입니다. 말하건대, 곧이지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몇 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다음을 덧붙이십시오: 양심이 금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양심이 하라고 하는 일은 크든 작든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양심은 언제나 우리의 도덕적 지렛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욕망이 허용되지 않는 흥분을 보일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양심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어 그 힘을 되찾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두 밝히며 양심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흔들림 없이, 죽을 각오로 양심에 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결연히 따르십시오. 이렇게 행동할수록 양심은 더욱 강력해지고, 여러분에게 마땅한 것을 더 완전하고 강하게 일깨워 주며, 마땅하지 않은 것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더욱 신속하게 질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경건한 하나님의 기억과 함께 참된 영적 삶의 샘물입니다. 우리 대화의 시작 부분에서 영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편지 9, 11-13).

이 두 가지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로 이를 보완하십시오. 갑자기 성공이 오지 않더라도, 지치지 않고 노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만족이나 세상 만족에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된 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므로, 힘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 전능한 무기로 무장하고, 실패를 보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인내 가운데 이 소망으로 용기를 내라. 이것이 사실임은 구원을 찾고 이루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경험으로 증명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양심을 따르며, 인내와 희망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작은 것이 모든 것의 씨앗입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 마음가짐을 지키게 하소서.

지난번에 저는 당신께 두세 가지 작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두세 가지 작은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코 무엇인가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연약함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내면에서 보이면 즉시 외친다: 바로 이것이다, 이루었다! 그런 생각은 떨쳐 버려라. 선한 것은 결코 갑자기 주어지지 않으며, 이는 적이 속삭이는 것이다. 그 속삭임에 조금이라도 굴복하면 즉시 에너지가 약해지고, 그러면 곧 다시 불만이 생겨난다. 이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마치 이 길에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잡아라.

둘째: 어떤 명목으로도 자신에게 특혜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동안 자기 관찰과 자기 강요의 수고를 하면, 적이 다가와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자, 이제 수고했으니, 이제 조금만 편하게 해주자고. 이것은 너무나 달콤한 속삭임이라, 갑자기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삭임은 너무나 악랄해서 조금만 굴복해도 내면이 모두 뒤흔들립니다.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은 독에 생긴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보이기만 하면, 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며, 물이 반드시 독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안에서도 관대함이 같은 일을 한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자신을 회복하는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장 악한, 비록 달콤한 말로 속이는 적처럼 두려워하라.

두 가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때는 특히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바로 부활절과 봄이다. 금식 기간에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절제하게 된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모두가 견디지 못하는가? 부활절에, 혹은 그 후 봄에 스스로에게 특권을 주기 때문이다. 부활절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이니만큼 마음껏 즐기더라도 괜찮겠지. 누군가는 그 말에 귀 기울여 좋은 기분에 빠져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한 후에는 다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욕신의 욕망과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봄은 즐거운 계절이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양들이 풀밭에 내보내지면 뛰고, 울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삶이 즐겁게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즐거움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모두 느낍니다. 여기에 죄악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감정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기쁨! 이를 느끼면, 우리 죄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기쁨의 자리도 남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 기쁨을 연장하려고 달려들다가 정신을 잃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기쁨이나 삶의 활력은 즐겁지만, 그것은 완전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이며, 그로부터 오는 욕구 역시 감각적이고 육체적입니다. 눈에 즐거운 것을 보고, 귀에 즐거운 것을 듣고, 코에 즐거운 것을 맡고, 공기를 마시고, 상쾌한 바람을 쐬고 싶어집니다 — 즉, 즐거운 감각적 인상을 늘리고 싶어집니다. 이런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의는 멈추고,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다시 끓어오르며 예전의 불온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안은 없어질 것이다. 양심에 시달리는 영혼은 말할 것이다: 내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내일은 또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 손을 놓게 된다. 다시 삶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영혼을 다스리기 위한 사순절의 모든 수고의 열매는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원하는 몇 가지 즐거움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다른 것들을 허용하면서도 내면의 것을 마땅한 경외심으로 지키지 못하고 외부에 휩쓸려 내면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이미 당신에게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만약 정말 견디지 못한다면, 그런 결연한 의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와 같은 되돌아가는 타락을 버려둔 옛 악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시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일곱 다른 악마들과 함께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유를 마치시며, 그 사람에게 첫 번째 것들보다 더 나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이것을 읽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왜 시작했을까! 아니, 아니!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마땅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삶을 통해, 오직 당신만이 처음 원했던 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결심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실 것처럼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안에 당신의 은혜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롬 8:31). "**세상에 있는 자보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니라**" (요일 4:4). 게다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삶은 어떤 위로를 빼앗으면서도 그 대가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양심을 따르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영적 기쁨의 고갈되지 않는 샘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상의 기쁨은 풀 앞에 있는 쭉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적인 것에서 자신을 박탈해야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에 참여하면서도 모든 것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이 두 편지에 기록된 규칙과 경고를 의미합니다). 많습니까? 아무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실행하기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크지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 미리 다짐하십시오. 기록된 대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아멘.

| 45 |

당신의 결론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렸군요!" 네,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는 자기 관찰을 위한 영적 기압계입니다. 기압계는 공기가 얼마나 무겁거나 가벼운지 알려주듯,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높게 또는 낮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작하신 대로. 하루 종일 자주 여러분의 성화상 앞에 서서 매번 몇 번씩 허리 절과 땅 절을 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니깐요. 아침과 저녁 기도는 제때에 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더 많이 해야 합니다 — 당신에게 정해진 대로; 그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께 자주 조금씩 경배하십시오; 그러나 평소 지인들을 만날 때처럼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열심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니, 이를 온갖 방법으로 복돋우십시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언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102:22). 이것에 가장 잘 이끄는 것은, 내가 이미 쓴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며,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 당신을 이 특별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분에 대한 기억과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행위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며, 그 수단은 앞서 쓴 대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는 짧은 기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제 시작하셨으니 계속하십시오.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무엇을 하거나 말할 때, 어떤 경우든, 어떤 순간이든 항상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마음에 두고 마음속으로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이 산만해진다고 말하세요. 갑자기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속 깊이 머무는 습관이 들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이 흩어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다시 모아들이고,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결코 방황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항상 마음속으로 머물며 생각이 방황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들이 떠나기만 하면 다시 되돌려 집으로, 마음의 감옥으로 돌아가 달콤하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십시오. 이런 법을 세웠으면, 꼭 지키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어기면 스스로를 꾸짖으며 벌을 주고, 주님께 이 가장 필요한 일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곧 성공할 거예요. 성공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 시작하고는 그만두거나, 시작하고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성공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성공은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다; 2)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자기 강요로 무장해야 한다. 게으름이 들거나, 느슨해지고 싶은 욕망,

심지어 '과연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의심까지 생기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결심한 대로 이 일에 자신을 몰아붙이십시오; 3)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대한 수고와 그 안에서 숙달을 추구하는 열성을 보시고 마침내 기도를 허락하시며, 그것이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아 스스로 샘처럼 솟아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이 지극히 복된 열매는 기도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이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기도하는 이들을 격려했으며, 이를 얻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복락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께서 이 열매를 당신께 허락하시기를! 그러나 노력 없이는 주지 않으시니, 꾸준하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인내하며, 희망을 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 "영적 삶에 관한 편지들"이라는 책자를 보내드립니다(성부들의 "절제와 기도에 관한" 작은 선집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온전히 주님께 대한 주의와 기도의 태도로 마음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기도의 수고에는 기도와 기도의 마음가짐에 관한 책이나 글을 읽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혜롭게 모시는 일에 더욱 굳건해질수록, 생각들도 점점 가라앉고 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내적 질서와 기도의 성공은 함께 간다.

기억하십시오, 편지의 시작부터 우리의 영에 대해 말해왔습니다(편지 20-21). 바로 이것이 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영혼과 육체, 그리고 외부 관계에 대한 활발한 삶의 재구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 46 |

당신은 주님을 섬기는 길에 그렇게 단호히 들어섰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1. 자만심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첫 번째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름은, 아직도 단지 의도된 것일 뿐인데도, 이미 우리를 다른 사람들, 심지어 과거의 자신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을 낳습니다. 특히 이 길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의로움에 조금만 머물러도, 그것은 놀라운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자신을 완전한 사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이 교만을 일으키기 위해 부추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에 굴복하여 자만심에 빠지면, 은혜는 즉시 그에게서 떠나 그를 홀로 남겨둔다. 그때 원수는 그를 무력한 전리품처럼 붙잡는다.

2. 두려움과 염려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그물망 속을 걷고 있습니다. 적은 결코 명백히 나쁜 것으로 즉시 유혹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의 외관으로 속인다. 경험이 없는 자는 미끼를 따라가 적의 손에 잡히게 되니, 마치 숲속을 무심코 걷던 짐승이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두려워하되 용기를 잃지 말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3.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보응이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아침에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과 함께, 이 마지막 것들에 대한 기억도 그분께 매달리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 생각을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앞에 무덤이 놓여 있도다!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도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떤 수호자들을 발견하게 될지.

4. 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락이 적은 사회에 더 자주 머무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 대한 당신의 관심, 가까이 있고 내면에 계신 분, 그리고 당신을 데려갈 준비가 된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가능한 한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눈과 귀와 다른 감각들이 주는 눈앞의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삶이 나쁜 점은 영혼에 너무 많은 사물과 사람과 일들을 채워 넣어서, 그 기억이 나중에 영혼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마음을 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곁을 지나가게 하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5.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처지에서 그것은 불편할 뿐더러, 당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료들과 더 자주 어울리십시오. 당신에게는 분명히 모든 규율이 잘 정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율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빈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6. 영적인 활동—기도, 독서, 묵상—은 매일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할지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나가기 전에, 가능한 한 이 모든 활동을 마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좀 더 길게 하십시오. 자신의 간절한 필요를 주님께 어린아이 같은 말과 어린아이 같은 신뢰로 표현하고, 기도서의 기도를 절과 함께 간절한 하나님께의 호소로 바꾸어 드리십시오. 기도 후에는 묵상하며 읽고, 읽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생각하십시오. 이미 쓴 바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매일 아침 복음서와 사도서를 읽으며 떠오르거나 묵상 중에 얻은 생각을 간략히 기록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여 꾸밈없이, 어떤 말장난도 없이 단순하게 수행하십시오.

7. 온 힘을 다해 수고하며,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영적 삶의 근원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입니다. 인내하며, 시작한 일에 굳건히 서십시오. 기쁨의 빛이 마음에 비추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되찾으며, 선한 영의 계획이 이끄는 곳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올라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때 당신은 새장 속에서 풀려난 새처럼 영적 영역에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그분의 보호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수호천사가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 47 |

기도 규칙에 대해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 규칙을 가져야 합니다. 한 편으로는 게으름을 방지하지 않고, 다른 한 편으로는 열심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자들()도 기도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해진 기도들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 후 계속해서 저절로 우리나라오는 기도가 생기면 정해진 기도들을 멈추고 그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야말로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도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도를 모으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한 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성심성의 기도에 열중할 때 지나치게 많이 모아져서 지키기 어려운 많은 기도를 서둘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서에 정해진 아침 기도문과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번 모든 주의와 적절한 감정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여유 시간에 특별히 그 모든 기도를 읽고 숙고하며 감정을 다해 느껴보십시오. 그리하면 기도 규칙에 따라 그 기도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거룩한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단지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신 안에서 재현하고 마치 우리 마음과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숙고하고 체감한 후, 암기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기도 시간이 왔을 때 기도서와 빛을 찾느라 분주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 중에 눈으로 보는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데 더 편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언제 어디서나 기도서가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 기도할 때, 마음이 딴 데로 가거나 감정이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온갖 방법으로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감정의 따듯함을 불태우십시오. 각 기도문 읽은 후에는 자신의 기도문으로 느끼는 필요에 따라 또는 평소처럼 짧은 기도로 절을 하십시오. 이를 통해 기도는 조금 길어지겠지만 그 힘은 커질 것이다. 특히 기도가 끝난 후에는 조금 더 오래 스스로 기도하며, 마음의 의지하지 않은 방향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겨라.

낮에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집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몇 편의 시편을 암기하여 일하거나 쉬는 사이에, 때로는 짧은 기도 대신 묵상하며 읽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이는 성 파코미우스와 성 안토니우스가 관례로 삼았던 가장 오래된 기독교 관습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후 저녁에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절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기도를 더 깊이 하며,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입에 짧은 기도를 올린 채 잠자리에 들거나 어떤 시편을 읽으며 잠들도록 하십시오.

어떤 시편을 외울까? 입을 때 마음에 와닿는 시편을 외우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시편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시편이 더 큰 감동을 준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50편)로 시작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시편 102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시편 145편) — 이 시편들은 전례의 대송 시편이다. 또한 시편 102편의 첫 구절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시편 145편의 첫 구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시작한다. (시편 102편) 그리고: “내 영혼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145편) — 성찬례의 대송 시편들; 또한 성체성사 예식 규칙의 시작 시편들: “주님께서 나를 치시니” (시편 22편), “주님의 땅이요 그 열매도 주님의 것이니라” (시편 23편), “내가 믿었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나이다” (시편 115편); 저녁기도 첫 번째 시편: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시편 69편). 시간별 시편... 등등. 시편을 읽고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외우면, 당신은 항상 기도의 완전한 무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 주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거나, 어떤 시편을 읽으십시오. 특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모든 혼란의 구름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 규칙에 관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 모든 것은 단지 보조제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심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규칙을 짧은 기도문과 자신의 기도 말로만 하는 절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서 절을 하며 말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 또는 다른 기도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게으름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 횟수를 정하거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 혹은 둘 다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적인 일에 몰두할 때는 시간이 마치 한 분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한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생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도를 드릴 때는 해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 기도를 드릴 때 짧은 기도와 함께 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유혹이 되어 막 시작된 기도를 중단시키고,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착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기도자들은 이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는 이들이 사용하도록 권하는 묵주를 고안해냈다. 사용법은 이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고 손가락 사이로 한 알을 넘깁니다. 다음 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알을 넘기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각 기도마다 절을 합니다. 허리 절이나 땅에 엎드리는 절을, 기분에 따라 하거나, 작은 묵주 알에는 허리 절을, 큰 묵주 알에는 땅에 엎드리는 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규칙은 정해진 수의 기도문과 절에 다른 기도문들을 자신의 말로 덧붙여 넣는 데 있다. 여기서도 기도문 낭송과 절을 서두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절과 기도 횟수를 정할 때 기도 시간도 함께 정하여 서두름을 막고, 만약 서두르게 되면 새로운 절을 추가하여 시간을 보충한다.

어떤 기도에 몇 번 절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슬레도반나야 시편' 끝에 두 가지 비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를 위한 것과 게으르거나 바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스키투나 특별한 케리아에서 사는 장로들, 예를 들어 발라암과 솔로브키에 사는 이들은 모두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치룹니다. 원하시거나 가끔 원하시면, 당신도 이 규칙을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해진 대로 지키는 데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마도 이 새로운 규칙 설정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위해, 당신에게 묵주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과 저녁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한 후, 앉아서 묵주를 손에 쥐고 짧은 기도를 중얼거리며, 평소

기도하는 시간 동안 목주를 몇 번이나 돌릴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 횟수가 바로 당신의 규칙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비록 같은 주의력을 기울여도 좋습니다. 기도 규칙은 이 방법으로 서서 절을 하며 행하십시오.

이 글을 읽고, 제가 당신을 수도원으로 보내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주 기도에 관해 저는 처음에 수도사가 아닌 평신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신도 남녀들이 이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외운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지루해지고 감동을 주지 않을 때, 이 방법으로 하루 이틀 기도한 후 다시 외운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하십시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본질은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당신을 축복하십시오!

| 48 |

생각을 어떻게 해도 다스릴 수 없다고 쓰셨는데, 모든 생각이 달아나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의 하느님을 떠올리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 생각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려면 꽤나 애써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바로 되는 일은 결코 없다. 당신이 이를 알아차리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이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의 혼란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든 그들과 화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걱정을 키우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미 썼듯이, 자신에 대한 노력의 지속성과 끊임없음이 영적 삶에서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생각의 확고한 평안은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자신의 노력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하느님도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당신께는 성 마카리오스 이집트인의 대화록이 있습니다. 19번째 대화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한 일에 자신을 강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도에도 자신을 강요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뜻에 반하여 자신을(즉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는 것을 보시고 진정한 기도를 주시니, 즉 산만하지 않고 집중된, 깊이 있는 기도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 후로는 그분에게서 물러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함께 달콤함이 따르는데, 이를 맞본 자는 다른 것을 맞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떠날 때 즉시 되돌려야 하며, 스스로를 꾸짖고 이 무질서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성 레스티니크는 이에 대해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기도의 말에 가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쓴 대로 기도문을 외우면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거기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금방 열릴 테니,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집에서 산만하지 않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능한 한 다른 시간에도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를 외울 때, 모든 단어에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말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기도하는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십시오. 집안일과 대화, 분주한 일과 후에 갑자기 기도하러 서지 말고,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의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세로 이끌어 준비하십시오. 기도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때는 없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필요, 특히 지금 당장 필요한 것—기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소망—을 의식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에 그러한 필요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생기면, 마음 자체가 다른 생각으로 도피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필요에 대해 주님께 간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더욱 깊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당신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 앞에 한번의 손짓으로 그 재앙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망설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임할 때, 온갖 재앙에 처해 있다는 느낌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분이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흔히 있는 작은 죄가 있으니, 다른 어떤 일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임하는 반면, 기도는 허둥지둥 시작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 한다는 것이다. 마치 기도가 부수적인 일이나 잡다한 일의 부속물인 양,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겠는가? 결국 기도는 어설프고 어수선하게 진행될 뿐이다. 아니, 이 죄악을 스스로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 대해 허투루 대하지 말라. 기도에 대한 그런 태도는 범죄이며, 가장 중대한 범죄, 즉 형사 범죄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직하십시오. 그런 다음 기도를 다른 일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 임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처방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이행하기 시작하면 곧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달콤함을 느끼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달콤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당신을 기도로 이끌고 힘차고 집중된 기도에 열정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49 |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당신의 불평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없이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악된 게으름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외부적인 관계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마땅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과 활동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거의 보편적인 믿음이 있는데, 집안일이나 집 밖의 일에 조금이라도 몰두하면 이미 신의 일과 신이 기뻐하시는 일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거나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도망쳐라, 집을 떠나 광야나 숲으로 가라!' 그러나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가정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사회적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입니다. 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시지 않은 영역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행동하여, 일상과 사회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도 지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버리고 확신하십시오. 집안일과 밖의 일, 공동체 생활에서 딸로서, 자매로서, 지금 모스크바 시민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이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진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일에는 특별한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느님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당신은 분명히 그 계명들을 하느님께 기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일들이 당신에게는 하느님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헛되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를 고치고 지금부터 모든 일을 계명을 지키는 일임을 의식하며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세속적인 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각자에게 제자리를 정해 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당신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이든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맡기신 것처럼 하십시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맡입니다.

집안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밖에 오거나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대할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 밖에서 할 일을 맡기셨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만약 그렇게 마음을 정한다면, 집안일이나 집 밖의 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일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행하게 될 것이며,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주의를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팎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지, 이 점은 책들을 지침으로 삼아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잘 이해하시어, 현재의 세속적·사회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일과 허영, 정욕, 사람 기쁨, 세상 기쁨으로 들어온 것들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살기로 결심하신 후에는, 물론 특별한 상기 없이도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믿음 외에도, 우리 일에는 또 어떤, 이렇게 부를까, 무기력함이 스며듭니다. 그것은 걱정입니다. 모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온 정성을 다해 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서운 벌로 보호받는 의무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갇아먹고 평안을 주지 않는 걱정, 혹은 지나친 염려는 타락한 자의 병으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꾸러가려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자의 병이다. 그것은 생각을 산만하게 하여, 심지어 자신이 애쓰는 일에조차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여, 만약 당신도 때때로 이 근심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을 몰아내고 발붙이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에 열심을 내고, 모든 정성을 다해 행하며,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께 성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근심을 억누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상적인 일과 업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 50 |

그리고 한두 마디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의식과 하나가 되어 녹아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억과 생각이 확고해지려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를 이루게 될 것이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영적 삶에서 어떤 성공도 얻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영적 삶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붙잡으려 애쓰실 때, 그 생각을 빈 껍데기로 두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개념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행적들을 그것과 결합시키십시오. 마음을 이것저것 깊이 파고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 사업,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진리와 은혜의 수호자인 거룩한 교회의 설립,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들, 즉 말로 다할 수 없는 선하심, 지혜, 전능, 진리, 전재, 전능, 전지, 전복, 그리고 위엄()에 대해서도 묵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그리고 더 나은 것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논의하십시오. 모든 것을 논의하고 분명히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구원의 생각이 동반되고 이끌어내어 마음에 작용하고 영의 활력을 일으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짧은 찬미 기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영광이여, 삼위일체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여! 영광이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영광이여,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타락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영광을! 우리를 위해 오시고, 육신을 입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당신의 교회를 세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주님! 영광이 주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각 개인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 영광이 주님께,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이 마지막 점을 특히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 최근에 결심한 그런 거룩한 결심들을 심어 주시고, 그 결심을 지탱할 힘을 마련해 주신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처음부터,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때부터 되돌아보고, 뜻밖의 재난에서 벗어난 모든 경우와 뜻밖의 기쁨을 얻은 모든 경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재난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여기저기에서 재난이 있었고 우리를 지나갔음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음을 아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들을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명백한 은혜의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닥칠 뻔했지만, 어떻게 피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특히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때 더욱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사랑을 불태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면, 그분께 냉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저절로 감사와 사랑으로 그분께 이끌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아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온기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어떤 상기나, 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단 한 순간도 사랑하는 주님을 잊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향해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 티혼의 글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은둔처 편지에서 가장 유익한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은 모든 하느님의 속성과 행위를 명확히 관조하며, 따뜻함과 확신으로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주의 깊게 읽으시면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 점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 51 |

성 티혼은 나에게 당신에게 유익한 다음 지침을 주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하느님을 상기시키는 도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집안일이 생각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돌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외부적인 것, 감각에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방법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주의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끌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야 하며, 이 재해석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눈은 감각적인 사물을 보지만 마음은 영적인 진리를 관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 옷에 얼룩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불쾌하고 안타까운지 느끼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께서 우리 영혼에 있는 죄의 얼룩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쾌하실지로 재해석하십시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세례의 물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회개의 눈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 남겨져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떠나갈 때 일어나는 소란과 소음으로 바꿔 생각하십시오. 장미 향이나 다른 향기를 맡으면 기쁘지만, 악취를 맡으면 싫어하며 코를 막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모든 영혼은 각자의 향기를 풍깁니다. 선한 영혼은 좋은 향기를, 정욕에 사로잡힌 영혼은 악취를 풍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15).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인들, 그리고 종종 세상의 의인들도 이 향기를 맡고 좋은 것에 기뻐하며, 나쁜 것에 슬퍼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시로 드는 말일 뿐, 모든 사물은 각기 다른 영적 생각을 낳을 수 있으니,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다른 이는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해석하십시오. 집에서 시작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재해석하십시오: 집 자체, 벽, 지붕, 기초, 창문, 난로, 탁자, 거울, 의자 및 기타 물건들. 거주자로 넘어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하인, 방문객 등을 재해석하십시오. 일상적인 삶의 흐름도 재해석하십시오: 기상, 인사, 점심, 일, 외출, 귀가, 차 마시기, 대접, 노래, 낮, 밤, 잠 등등, 등등, 등등.

도움으로 삼으실 분은 다시 한번 성 티혼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무려 네 권의 책을 '영적 보물, 세상에서 모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해석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가져다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자연스레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재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혹시 그 책들을 읽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시면, 그가 쓴 요약본인 『우연과 그에 대한 영적 고찰』(제2권)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176가지 사례를 각각 간결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재해석해야 할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반드시 제안된 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성서나 책의 한 장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당신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 것이며, 모든 일과 활동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각적인 세상 속을 영적인 영역을 건듯 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하느님을 말해 주고 그분께 대한 당신의 관심을 유지해 줄 것입니다. 매번 이 상기시키는 일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위대함 앞에 경외심을 더한다면, 당신에게 또 무슨 스승과 깨우쳐 주는 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노력과 긴장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요. 자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신을 아끼면 자신을 망칩니다. 아끼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일에는 수고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단지 생각하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일은 첫 번째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일의 중요성에 따라 수고도 따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곧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 52 |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남은 것은 오직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 이렇게 많이 설명한 것은, 바로 여기에 모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에 확고히 서게 되면, 텅 빈 것이 아니라 경외심과 주님께 대한 다른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기억은 당신을 모든 일에서 올바르게 만들 것이며, 그 올바름 속에 어떤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올바름이 투박하고 어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은 당신 안에서 모든 일의 주인이자 통치자, 건축자가 될

것이며, 특히 당신의 내적 생활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 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던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적 사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소서” (엡 3:16-18).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에 대해 기도할 때 특별한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엡 3:14).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굳건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표징이니,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이니, 바로 주님께 대한 어떤 따뜻한 감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지시된 것을 행한다면, 그런 감정이 곧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점점 더 자주 나타나다가 결국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감정은 달콤하고 행복하며, 처음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갈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않은 채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경외심, 헌신, 감사, 찬양, 겸손과 통회, 또는 희망과 신뢰와 같은 감정을 일으키지 않은 채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또한 기도 후에 읽을 때, 읽은 진리를 감정으로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읽기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 두 감정(접근법)은 서로를 달구며, 여러분이 스스로를 경청한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그 영향 아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접근법을 정확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오랫동안 햇볕 아래 있으면 매우 뜨거워지듯이,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아래,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정의 빛 아래 자신을 두면, 당신은 점점 더 지상의 열기가 아닌 신성한 열기로 달아오를 것이며, 결국 완전히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려 하노니, 내가 그것을 벌써 붙이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12:49).

여기에 다음과 같은 비유를 덧붙이십시오: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 그 물질은 조금씩 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불이 붙으며, 마침내 온통 불길에 휩싸여, 본성상 어두웠던 것이 불이 붙은 덕분에 밝고 빛나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불이 붙으면 영적인 불꽃이 타오르고, 당신을 부분적으로 스며들어 온전히 감싸고 밝게 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 스스로는 어둡지만 말입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영혼의 어떤 외피에 대해 말했고, 그다음에는 은혜를 입은 영혼의 광채에 대해 말했습니다(서신 13-14, 27).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리라. 그러나 먼저 수고와 땀이 필요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공평하지 않으심을 알라.

| 53 |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기로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내적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불꽃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녹여,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영성화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영성화할 때까지입니다. 그 불꽃이 오기 전에는 영성화가 없을 것이니, 아무리 영적인 것에 힘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불꽃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불꽃은 정욕이 활개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정욕을 방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정욕은 장작 속의 습기와 같습니다. 젖은 장작은 타지 않습니다. 옆에서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이 붙으면 장작은 젖은 부분을 말리기 시작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젖은 장작을 태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불이 젖은 부분을 몰아내고 퍼져 나가며, 놓인 모든 장작을 불길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작은 우리 영혼의 모든 힘과 육체의 모든 행위를 상징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습기—정욕—에 젖어 있으며, 정욕이 쫓겨나지 않는 한 영적인 불에 완강히 저항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며, 나는 우리 안에 어떤 무질서하고 격렬한 영역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곳에서는 생각과 욕망과 감정이 무질서하게 요동치며, 마치 먼지가 정욕에 의해 휘날리듯 합니다. 나는 이 영역을 영혼과 육체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이는 정욕이 본성에 속하지 않고 외래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혼과 육체 속으로 스며들어 가장 근본적인 정신—의식과 자유—마저 장악하여 온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것들이 악령들과 결탁할 때, 악령들은 인간을 지배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속박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냅니다. 영은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모든 정욕과의 연결을 끊고, 과거를 회개하며 단호히 결심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기로 합니다. 이 결심에 서서, 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후에 정욕을 영혼과 몸에서 쫓아내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영성화합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영혼이 그를 움아매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식과 의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며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영적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권리를 회복한 반면, 영혼과 육체는 여전히 정욕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욕에 맞서 무장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영혼과 육체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정욕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지배권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불법적인 것이지만.

그 전에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워했습니다: 왜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하는가? 하나님의 기억은 영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을 불태우고, 당신의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려는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다시 말하건대, 이는 영적 삶을 위한 지탱점이며, 덧붙이자면, 당신의 정욕에 대항하는 전략적 작전의 기반입니다.

물으시겠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주의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여기에 정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묻겠습니까? 보십시오, 그것들이 아직도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당신은 크게 화가 났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만과 자기 뜻과 경멸도 있습니다. 그 전에, 구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거절했다고 언급하셨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색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참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좋아하시는 것이 육욕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지나가며 드러난 것들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무엇이든 발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욕이 있고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존재는 불법적이고 해로우며, 영적 삶에서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에 맞서 무장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세 가지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 54 |

계속하겠습니다. 정욕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독립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인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영혼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본성에 들어왔고, 그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쫓겨난 후에도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남깁니다. 반면 그것들이 존재할 때는 사람을 망치고, 많은 경우 동물보다 더 나쁜 존재로 만듭니다. 그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그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그렇게 친숙해져서, 인간이 그것들에 따라 행동할 때 마치 자신의 본성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그것들에 복종하여 그것들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본성이다.

이 모든 것들(정욕)은 자기만족, 자기중심성, 자기에에서 비롯되어 그것들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심으로 불타오를 때, 바로 이 영적 행위 속에서 정욕들은 모두 그 지지를 잃고, 이전에 지배하던 의식과 의지 밖으로 밀려난다. 지탱하는 것을 잃으면, 그들은 이미 이전의 결정적인 힘을 상실하여, 사람이 그들을 따라 끌려가던 것처럼, 마치 주인을 따라가는 나귀가 끈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전에는, 욕망의 충동이 보이기만 하면, 사람은 즉시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만족시키려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 욕망들은 지금도 나타나지만, 사람이 그 욕망들을 빨리 만족시키려고 달려드는 대신, 이제는 그 욕망들을 물리치고 눈앞에서 쫓아낸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며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정욕은 아직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굳어지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존재했고, 당신은 그것들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이 자신에게 반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귀한 분노나 고귀한 자부심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조차 다른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로 비고귀했습니다. 그것들은 예전에도 당신의 거의 의식 없이 때때로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지배하지 못할 것이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그 결심으로 그들의 모든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이오 —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함께 끊어진 것이오. 그러나 이 일이 당신에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양보 없이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너무나 달콤하고, 정욕은 때로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정욕에 사로잡히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비록 당신이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 곧 선하고 기쁘시며 온전한 뜻”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롬 12: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조심하여 행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여, 때를 아끼라. 이는 날이 사악하니라” (엡 5:15-16). 이 악한 날들은 악한 때이며, 악한 상태와 처지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들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8).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가복음 13:33).

무엇을 깨어 지켜야 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어떤 정욕이 슬그머니 다가오지 않도록 예리히 살피고, 그것이 당신을 속여 그 정욕을 위해 크든 작든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비록 여러분이 눈치 채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무심코 그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악한 일이며, 하나님께가 아니라 원수에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원수가 여러분 곁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적이 슬그머니 다가오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잠들지 말고, 무관심에 빠지지 말고, 영혼과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착은 영혼을 취하게 하여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엄격히 살핀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마음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리하게 살핀다면, 여러분은 위에서 언급한 주님과 사도들의 명령을 진정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 곧 경계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적을 간파하고 놓치면, 곧 상처나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적은 발견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위협만 해도 도망칩니다. 우리 영적 적들의 속임수는, 자신들이 들통났다는 걸 알자마자 곧바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기에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파고드는 악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지금은 — 도망쳐라!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당신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두울 때는 큰 것도 눈에 띄지 않지만, 밝을 때는 작은 것조차 저절로 눈에 띕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자기 만족 속에 살 때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안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해처럼 그 안의 모든 것을 비춥니다. 자기 만족 속에 사는 자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욕망이 슬며시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 왜냐하면 자기 만족은 모든 욕망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을 받아들이고, 가리고, 정당화하며, 그들에게 유리한 일을 아무런 걱정 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무엇이 하나님께 기쁘지 않은지 보고 즉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 기쁘지 않은 것은 모든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셨기에, 영혼의 어둠을 쫓아내고 영 안에서 빛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신다면, 당신 안에도 영적인 태양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다가오는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이미 그 일에 대비하셨습니다. 고백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마땅한 행동 방식을 깨달았을 때, 그 과정에서 피해야 할 것들도 함께 발견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반대하는 정욕의 영역입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정욕은 교만과 허영을 가르칩니다; 온유해야 하는데, 정욕은 화내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뻐해야 하는데, 정욕은 질투를 일으킵니다; 모욕을 용서해야 하는데, 정욕은 복수를 불태웁니다. 이처럼 모든 마땅한 일에 정욕적인 감정과 움직임이 반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스스로 깨닫고 결심과 서약으로 굳혀 마땅한 일만 하고 마땅하지 않은 일, 즉 정욕적인 일은 모두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자신을 지키기만 할 뿐 아니라 경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가오는 모든 정욕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의 자기 감시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정욕이 항상 거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종종 그렇게 선량해 보여서 그것이 정욕인지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예를 들어 불타오를 때면 누구나 그것이 정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항상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종종 고귀한 분노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욕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고귀한 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귀하고 매우 쉽게 이 미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정욕적인 것을, 그 가장 사소한 표현과 가장 미세한 특징에서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다?! 따라서 알아차리고 내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그런 위선으로 위장하고 슬그머니 들어올 테니까요! 첫째,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느님께 돌아서서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맡겼다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깨우침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천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항상 경계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부당한 것을 고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둘째, 정욕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 당신 안에 영적 경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즉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결코 정욕에 사로잡힌 의식적인 것을, 아무리 사소하고 관대하게 넘어가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의 경험은 곧 성장할 것입니다. 성 바울은 한 곳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된 감각에 대해 언급합니다(히브리서 5:14).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도 생겨날 것입니다. 맛이 음식을 분별하듯, 감각으로 훈련된 마음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말해 줄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지요: 아직 배워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욕적인 것들이 계속 스쳐 지나갈 거라고. 사실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 당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물론, 어떤 욕망도 그 거친 모습 그대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만약 무엇인가 욕망이 도둑처럼

스며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욕망 속에서 의식적으로 허용된 것만을 묻고,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든 것은 묻지 않으십니다. 열정적인 것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로 정화하고 함께 그것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를 통해 열정과 모든 열정적인 것을 어떻게 다룰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를 온전히 지키면 열정적인 것이 눈에 띄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드물다.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다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자기만족에 반하는 일을 할 때면, 거기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 안에 배신자를 두지 말라."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기만족이다." —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잘 살펴보면, 모든 나쁜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맞서 단호하고 물러서지 않는 결의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바란다: 이 악한 배신자를 당신 안에 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받아들인 질투심(당신의 그 말을 기억하시나요?)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데 쉽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 56 |

당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 아니, 당신의 처지가 정욕에 대해 갖는 이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래 살지 못했고 깊이 열정에 사로잡히지도 못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모든 열정이 다 있지만, 그것들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그저 성가실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큰 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많은 경우에 열정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욕망을 충족시킨 사람들처럼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자신에게 맞서는 자에게 맹렬히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바로 열정적인 생각과 감정, 움직임이 가볍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일 아니야, 저절로 지나갈 거야,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은 당신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위험합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정욕적인 감정과 움직임이 마음대로 자라고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강해져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의 불쾌한 시선 하나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시오. 아무리 작고 약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열정적인 것은 가장 크고 강한 것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 그 안에 들어간 가장 작은 모기라도 꺼내듯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 가시가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함을 빨리 없애려고 서두릅니다; 눈에 아주 작은 먼지 한 알이 들어가서 시야를 흐리면, 눈을 빨리 깨끗이 하려고 큰 수고를 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의 법칙을 적용하여 정욕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서둘러 그것을 내쫓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무자비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쫓아내야 할까? 그것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노의 움직임으로, 혹은 그것들에 대한 분노로. 정욕적인 것을 발견하는 즉시, 서둘러 자신 안에 그것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려 노력하라. 이 분노는 정욕적인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정욕은 그것에 대한 동정심 없이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모든 동정심을 없애버립니다. 정욕은 처음 나타나는 순간 사라지거나 떨어져 나갑니다. 바로 여기에 분노가 허용되고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부들의 글에서 나는 분노가 바로 그것, 즉 마음의 정욕적이고 최악된 움직임에 맞서 무장하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여기에 예언자 다윗의 말씀을 덧붙인다: "분노하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시편 4:5)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는 후에 성 사도 바울로도 반복되었습니다(에베소서 4:26). 정욕에 분노하라 —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 분노로 정욕을 쫓아내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계기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에 대해 이렇게 무장하십시오. 정욕에 대한 분노는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그분 앞에 기쁘게 여겨지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뿌리내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 동맹의 본질은 이렇다: 네 친구는 나의 친구요, 네 원수는 나의 원수다. 그런데 정욕이 하나님께 무엇이냐? 원수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미움을 선포하고 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며, 재물 탐심은 우상 숭배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의 뼈를 하나님은 부수시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욕에 대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름조차 없게 하라(엡 5:3). 그러므로, 정욕에 대한 분노는 그것들이 나타나자마자 순서대로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욕에 대한 분노는 특별히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향해 겨냥된 적대적인 행동, 노력,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서 열정을 발견한 뒤 즉시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의 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왜 서둘러야 할까? 첫 번째로 나타난 정욕은 항상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자기만족은 우리가 자신을 분명히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안에 은밀히 살아남아, 이 결심을 조금도 어기고 싶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은밀한 자기만족, 즉 자기중심성은 항상 정욕을 호의적으로 맞이하며, 그 호의는 정욕에 대한 크고 작은 동정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이 동정을 물리치고 분노를 일으켜야 한다. 이 둘은 모두 의식과 인식을 통해 중재되고 촉진된다. 즉, 정욕적인 생각이나 움직임 속에서 드러난 적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아첨하더라도 말이다. 정욕의 적대감이 인식되는 순간, 그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분노는 저절로 생겨난다.

정욕적인 적에 대한 인식에는 복잡한 사고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정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정욕을 받아들이고 품는 모든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되살리면 충분하다. 따라서 정욕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파멸이다. 이러한 생각과 확신은 주의 깊은 이의 의식 속에서 순간적으로 빛나며, 곧바로 마음에 정욕에 대한 반감, 분노와 노여움으로 응답한다. 정욕과 씨름하며, 그것에 대한 갖가지 비난 사항을 생각해 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 성공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모든 기소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피고인인 정욕은 바로 그 자리에, 비록 피고인석에 앉아 있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변호사인 동정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임의로 불순물을 품는 것이며, 이는 위험합니다. 아니, 어떤 논리도 없이, 자신 안에서 그 열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즉시, 그 안에서 적을 인식하고 — 그에게 화를 내십시오.

| 57 |

우리 안에 열정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필연적인 재앙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결하다는 뜻이지만, 우리를 유죄로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의 죄책감은 우리가 발견한 정욕에 호의적으로 대할 때, 즉 그 안에서 적을 인식하고 분노로 무장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탄하며, 그것이 나타난 그 움직임에 취해 즐거워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욕과 친구가 되고자 하며,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롬 8:7).

방증이 시작되는 곳에는 죄책감도 함께 시작되며, 이는 정욕에 깊이 빠질수록 커져 간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다. 우리의 보통 상태는 이렇다: 생각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감정과 욕망은 흔들리지만 분명한 방향은 없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때로는 온종일 그렇게 지나가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로, 일상적인 일들과 손에 잡히는 일들에 매달립니다. 그 사이로 종종 공허한 생각이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몽상이 끼어듭니다. 텅 빈 생각과 헛된 생각들은 대부분 영혼의 표면에 모여 있다.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리하여,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인지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가지 사물이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 끼어들며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 순간을 주목하십시오: 끼어들며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 질문하십시오: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즉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나타난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얼굴이 한때 당신을 모욕했던 사람의 얼굴이라고 합시다. 분명 누군가가 이 얼굴과 그 일로 당신의 주의를 끌고, 당신을 분노와 격노, 심지어 복수심까지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상상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것이 당신을 이끌고자 하는 곳은 나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는 당신의 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적대적으로 대하십시오. 즉, 지난번에 말했던 그 방법, 즉 분노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를 명예롭게 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적의 계략이나 그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타난 인물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처음에는 단순하고 고립된 그 인물이 수많은 다른 생각과 이미지들로 둘러싸여, 당신의 상상 속에 그 인물이 당신을 모욕한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마음속에는 예전의 모욕감, 분노, 화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열정적인 대상이나 그에 대한 생각이 열정적인 감정을 낳은 것입니다. 열정은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열정에 불타오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는다면, 물론 그 안에서 적을 발견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마음에서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그 감정을 일으킨 대상 자체를 생각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불타오른 정열적인 감정에 다른 감정들이 더해져 그것을 부채질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그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길래? 나도 그보다 나쁘지 않은데.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모두 그냥 넘어가면 살 수도 없잖아.' 반드시 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하려는 욕망—크든 작든, 상관없이—당신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이건 이미 세 번째 단계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면 그 욕망도 떨쳐낼 수 있다. 욕망이 곧 결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한 순간에 찾아왔다가 다른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행동하면 잘한 거다; 안 하면 당신의 두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주목하십시오: 생각이 감정을 낳았고, 생각과 감정이 욕망을 낳았습니다. 영혼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마음속의 불순물과 죄악일 뿐입니다. 행동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욕망과 행동 사이에는 항상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항상 뚜렷하지 않다. 그것은 약한 형태로 이미 욕망 속에 존재하다가, 일을 숙고하는 과정, 즉 수단을 선택하고 방법과 상황을 정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자란다. 모든 것이 숙고되면 결심도 완성된다. 그때 일은 이미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죄는 이미 저질러진 것이다: 계명은 무시되었고, 양심은 짓밟혔다. 소망에서 숙고를 통한 결심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계명도 떠올라 양심이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충고는 경멸 속에 거부된다. 그러므로 결심 속에는 이미 범죄와 죄가 존재한다. 생각과 감정과 욕망은 온 영혼을 이미 사로잡았지만, 마치 영혼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죄에 대한 경향은 아직 없으며, 단지 그것을 향한 충동만 있을 뿐이다. 경향은 영혼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때 영혼은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결심이 생기면 자유는 없매이고, 영혼은 마치 반드시 계획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다. 이는 일종의 내적 자기기만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심한 일은 갑작스레 마주친 장애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고려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면, 사람이 스스로 그만두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일은 이루어졌다. 당신은 계획한 대로 복수했다. 욕망은 충족되었고 죄는 완전히 저질러졌다. 그렇다면 이전에 다져진 결심에 무엇이 더해졌는가?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 이미 숙고된 계획이 실행되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범죄성은 극한까지 증대된다. 첫째: 지금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이 단지 외면되고 무시되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짓밟혔다. 지금까지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면,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거나 스스로 도망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아들이 어머니의 설득에 맞서 어머니의

가슴이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다. 둘째: 이제 내적인 일이 외적인 사건들의 흐름 속에 도입되어 그에 따른 결과들 역시 외적인 것들, 즉 일상적인 것들로 동반되어야 한다. 그것을 펜이나 부정적인 말로 사건의 범주에서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여기에 영원히 남아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항상 붙어 그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맛보게 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자신의 원수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는 아래로 쳐져, 짐을 지고, 어떤 무게에 눌러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위에 비유가 이루어진다: 악령이 일곱 다른 악령을 데리고 돌아온다. 어둠, 불안, 무거움 — 이것이 만족된 모든 정욕의 보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이한 일이다! 정욕이 행위로 만족되기 전에는, 그 만족으로 인해 낙원이 기대된다: 너희는 신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만족되면, 눈에서 매력이 사라지고, 환영은 흩어지며 오직 공허함, 그리움, 좌절감, 무거움만 남는다 —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다. 원수를 갚았으니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보십시오,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 죄에 빠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신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이 진실하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 후 당신에게 제안된 조언을 따라 항상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자신을 엄격히 감시한다면, 당신 안에는 정욕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경향과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적 투쟁의 대상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며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 그것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욕망이 생기는 순간 정신을 차려 그들을 적대적인 분노로 쫓아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책감은 생각과 감정, 소망 모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한 후에도 내쫓지 않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지체함에 달려 있다. 생각을 내쫓으면 감정이나 동정심은 생기지 않는다.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내쫓으면 소망은 생기지 않는다. 소망을 쫓아내면 — 시작하고 정욕에 빠질 위험이 없을 것이다. 만약 정욕적인 생각을 발견하고 임의로 주의를 기울여 그 생각에 머문다면, 당신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이자 당신의 원수임을 알면서도 그 생각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즉시 그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쫓아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의지적인 주의가 정욕적인 생각에 집중되어 당신 안에 정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면, 당신의 죄책감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나 정욕적인 감정이 생겨난 것을 깨닫고도 계속해서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감정을 부채질한다면, 당신의 죄책감은 이전보다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 만약, 정욕적인 감정을 발견하고 놀라서 그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내쫓는다면, 당신은 오직 임의로 정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점에 대해서만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각의 작용 아래에서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허용된 열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작용으로 당신 안에 열정적인 행동(예를 들어 복수)에 대한 욕망이 생겨난다면, 이것 또한 당신의 죄책감을 조금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욕망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남아 있는 죄책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욕적인 대상에 집착했고, 그로부터 정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과 그것을 낳은 생각을 당신 안에 지속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의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열정적인 욕망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지체하게 내버려 두고 즉시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죄책감은 한 단계 더 증가하여 세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당신을 경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만약 즉시 열렬한 생각을 쫓아낸다면, 모든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욕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왜 굳이 싸움이라는 불필요한 수고를 자초하고, 때로는 위험까지 감수하겠습니까? 이미 열렬한 것, 즉 신을 거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생각과 함께 감정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그 감정과 생각을 쫓아내십시오. 만약 그들에게 욕망이 저절로 달라붙으면, 즉시 그 욕망도 함께 쫓아내십시오. 자신 안에서 정욕적인 움직임을 발견하는 즉시, 그때부터 그것을 쫓아내십시오. 법칙으로 정하여 생각이나 감정,

욕망에 대해 마음대로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발견하는 즉시 완전한 증오로 쫓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흠이 없을 것이다. 당신 안에는 정욕의 더러움이 있지만, 동시에 흠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세탁소 일을 하듯,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58 |

지난번에 나는 단순한 생각에서 열렬한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에서 행동으로 이르는 전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행동의 흐름이 종이에 묘사된 것처럼 항상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종종, 아니 대부분은 모든 단계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서 생각이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행동, 특히 말이 따라나오곤 합니다. 이 모든 우연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욕과의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정욕이 느껴지는 즉시, 분노와 적대적인 격노로 무장하십시오. 이 격노는 마음속 싸움에서, 악한 사람이 공격해 올 때 그의 가슴을 세게 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격에서 가슴을 치는 것이 항상 악한 사람도 도망가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 싸움에서 욕망, 감정, 열망에 대한 분노가 항상 그것들을 영혼에서 쫓아내고 그들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순서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생각의 흥분을 일으키는 데 종종 악령들이 관여하는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아무리 그들에게 화를 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수한다. 분명히 화를 낸 후에는 다른 수단에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악한 사람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가슴을 치며 소리칩니다: "도와주세요!" 그의 부르짖음에 경비병이 달려와 그를 위험에서 구합니다. 마음속의 정욕과의 싸움에서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정욕에 화가 났을 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을 들으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은 후에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라. 그러면 원수는 불에 타는 듯이 즉시 도망갈 것이다. 어떤 성인이 말하였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사를 치라. 주님을 대적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니, 진실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나니,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하시리라" (시편 144:18-19). 그분께서 친히 필요할 때에 그분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고, 나를 아는 자를 내가 보호하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내가 그와 함께 고통 중에 있으며, 그를 구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0:14-15).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항상 성공적으로 당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욕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그 부도덕함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교만의 생각이 들면 그들은 이렇게 읽기 시작한다: "교만은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이니, 너는 흠과 재로 된 자로서 어떻게 생각으로 교만해지려 하는가, 네 죄를 기억하라" —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 모두 교만을 반대하는 생각을 골라, 이렇게 하면 교만한 생각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틀렸다. 정욕적인 생각을 고발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 사이 그것은 감정을 움직이고 욕망을 깨우쳐, 즉 계속해서 영혼을 더럽힌다. 게다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움이다. 그런데 정욕적인 생각과 말다툼을 벌이지 않고, 두려움과 경외심, 소망과 그분의 모든 행위에 대한 헌신으로 주님께 직접 돌아서면, 그 자체로 정욕적인 생각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에서 이미 멀어진다. 이런 주의로 영혼에서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극된다면 저절로 사라진다. 여기에 원수가 끼어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지혜의 빛이 그를 치게 된다.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서 그분께 부르짖기만 하면, 정욕의 공격으로부터 즉시 평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더 명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한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고요한 사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령들이 그를 덮쳐 와서 그의 방에서 끌어내려 완전히 사막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 그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악령들이 그를 제압하고 문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를 밖으로 내던져 버릴 참이었습니다. 극한의 위기를 본 노인은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와주소서, 주님!" 부르짖자마자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네가 나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원수들을 물리치려 하였기에 내가 도우러 나아가지 않았노라. 네가 스스로를 의지한 것이 네 잘못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항상 준비된 도움을 만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셨다. 이 사건은 노인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 즉, 자신의 정욕적인 생각들과 정신적으로 다투며 허우적거리지 말고, 즉시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대적하라는 것이다.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은 정욕과 정신적 싸움을 벌일 때 그렇게 행동한다. 성 요한 콜로프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아래 앉아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짐승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다가와서 주위를 맴돌다가 물러납니다. 나도 마음속의 짐승들이 정욕적인 생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마음으로 주님께 올라가니, 이 마음속의 짐승들은 내게 다가오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달아나곤 한다."

내가 전에 당신께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주의를 마음에 굳게 세우고 거기서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는 지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적인 생각이나 감정, 욕망이 일어날 때 주님께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마음의 주의를 심장에 내려놓고 거기서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작은 규칙을 꾸준히 지켰다면: 마음으로 심장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헌신으로 서 있었다면, 우리 안에 욕망적인 소망과 감정뿐만 아니라 헛된 생각조차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멀리 방황한다는 것이다. 이때 욕망의 생각이 스며들고, 조금만 방심하면 벌써 욕망의 감정이 일어나고 같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싸워야 한다. 누가 잘못인가?! 생각이 방황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욕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여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 그로 인해 화를 불러왔다면, 적어도 이제 화가 이미 드러났으니, 서둘러 다시 그곳으로 숨어가자 — 주님 앞에 있는 마음 속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주제에 대해 성 요한 콜로프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했습니다: 한 곳에 품행이 나쁜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는 그런 미모가 망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적절한 때를 엿보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장난을 그만두어라. 내가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가 내 아내가 되고 많은 보물의 여주인이 되게 하리라. 다만 꼭 지켜야 할 것은,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녀는 동의했고 통치자의 집으로 데려가졌다. 예전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보고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녀가 통치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통치자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들은 그녀의 약점을 알고 다시 그녀를 유혹해 데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집 뒤로 가서 휘파람만 불면, 그녀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고 즉시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집 뒤로 다가가 휘파람을 불었다. 미녀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 안에 예전의 감정이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정신을 차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통치자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안쪽 방으로 달려가 즉시 진정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친구들은 휘파람을 불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 비유의 뜻은 분명하다. 이 미녀는 타락한 영혼을 상징하는데,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 오직 그분께만 속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게 된 것이다. 예전의 친구들은 정욕이다. 그들의 휘파람은 정욕적인 생각과 감정, 욕망의 움직임이다. 내면의 방으로 도피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주님 앞에서 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면, 영혼을 괴롭히던 정욕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든 저절로 사라지고 영혼은 평온해진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뜻대로 항상 행하십시오. 그러면 곧 당신 안에 열정의 출현으로 인해 흔들리던 내적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구원 받으소서!

마음의 싸움에 관해 이제 모든 것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욕은 많지만,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설명된 방식으로 접근하며, 말씀드린 대로 모두 쫓아내고 극복됩니다. 물론 각 정욕은 그것을 일으키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에도 수많은 우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것들과 싸우는 일반적인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힘으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든 모든 정욕을 성공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지 달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예루살렘의 장로 이시키우스 성인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분의 책은 제가 당신께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으로 수련하는 자는 매 순간 다음 네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 극도의 주의, (생각에 대한) 대립, 그리고 기도. 겸손은 — 그의 적들이 싸움에서 교만한 악마들이기 때문에 — 마음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도움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든, 비록 그것이 선해 보일지라도,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반박 —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분노로 악한 자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기도 — 반박 후에 즉시 그리스도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수행자는 적으로 묶이거나 쫓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경배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지처럼 바람에 날아가거나, 연기처럼 자신의 꿈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0항).

또 다른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싸움에서는 (일반적인) 전쟁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이 생각을 내밀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분노를 품고 저주하며 그를 쳐부숴야 합니다; 셋째, 그에 맞서 기도해야 하며,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악마의 환영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마음이 어떤 마술사(술수, 광대)에게 현혹된 아이처럼 환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5).

“만일 네가 마음속으로 항상 겸손한 지혜로, 죽음에 대한 기억으로, 자기 비난으로, 생각에 대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 무기들로 매일 정신 차리고 좁고, 기쁘고 창조적이며 즐거운 마음의 길을 걷는다면, 거룩한 자들의 거룩한 묵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깊은 비밀들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추어져 있으며”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골로새서 2:3, 9). 이는 네가 예수 안에서 네 영혼에 성령이 내리셨음을 느낄 것이니, 그 성령은 마음이 밝아져서 진실한 얼굴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도는 말하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물론, 그는 신비롭게 찾는 자를 확증하는 것이다(29).

이 구절과 다른 유사한 구절들에서 성 이시히오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싸움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는 각 싸움의 방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마음에 대한 주의, 그곳에 머무름, 그리고 거기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특히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그 책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몇 가지 요점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입법자 모세,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에 불법의 은밀한 말을 두지 말라’ (신명기 15:9). 은밀한 말이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것(정욕적인 것)에 대한 마음속의 한 가지 생각을 가리키는데, 이는 또한 성부들이 마귀가 마음에 불려일으키는 유혹이라 부르며,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는 즉시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달려가 정욕적으로 그것과 교감하게 된다” (2).

“주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마음의 침묵으로, 그 속에서 영혼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인 분을 항상, 끊임없이 호칭하며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용감하게 원수들에게 맞서며,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그분께 고백하며; 자주 은밀한 부르심으로 마음의 유일한 알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껴안는다” (5).

“절제는 생각의 확고한 자리 잡음과 그것이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는 슬그머니 다가오는 생각들을 보고, 악령들이 어떤 형상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각인하여 상상력을 통해 유혹하려 하는지 깨닫는다”(6).

“(마음에) 서서 원수들에게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분께 의지하는 생각은 마치 많은 개들에게 둘러싸여 요새에서 방어하는 어떤 짐승과 같다. 그것은 멀리서 보이지 않는 적들의 정신적 매복을 정신적으로 간파하고, 그들에 맞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그들에게서 무사히 지낸다”(8).

기도가 마음의 생각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싸울 무기가 없다. 내가 말하는 기도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로, 은밀히 싸우는 원수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쳐부수어지고 불타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는 날카롭고 긴장된 마음의 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알아보아야 하며, 알아본 즉시 반박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동시에 신음하며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때 경험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마음의 바른 상태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21, 22).

“그러므로 영혼이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부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혼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 육체적인 것과 비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신 두려운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40).

이 발췌문들로만 제한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발췌한다면 책의 절반을 다시 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발췌문들은 내가 당신의 기억 속에 새기려 한 것이다. 즉, 신성한 기억과 내면의 정욕과의 싸움에 대해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설명해 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핵심임을 알아두십시오.

이것을 읽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광야의 은둔자이기에 그런 규칙을 지켜야 하겠는가?! 당신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시작한 이들 중에서는 아닙니다. 이 일에 나선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영으로 살고자 한다면, 즉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충 살고자 한다면, 물론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님께 속하겠다는 결심이 진실하다고 믿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심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우회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직접 가리켜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 그러면 곧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 모든 일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살든지, 수도원에서 살든지, 세상에 살든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이에게 마음의 정욕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급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거부하지도 말고 발버둥 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60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움직임을 적대적인 거부로 추적하며, 동시에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시작하자마자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모두 순수하고 기록해졌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들은 점차 평온해지고, 감정과 욕망의 격렬한 움직임은 점점 더 드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은 터져 나올 것이며, 때로는 큰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뚫고 나왔으면 쫓아내고, 또 뚫고 나오면 다시 쫓아내라. 그러나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제 나는 오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심의 법정에 따라 이 같은 침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관심하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주님께 회개해야 할까? 이 같은 침범에 무관심할 수는 없으며, 그들을 쫓아낸 후에는 매번 주님 앞에서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생각과 감정, 욕망이 갑자기, 아무런 의지 없이 튀어나온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그곳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마태복음 15:19)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정함을 슬퍼하고, 주님께 이 부정함을 회개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는 의지가 여기에 섞이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부주의로 인해 정욕적인 생각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것이 정욕적인 감정을 낳았습니다 — 귀하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부주의로, 혹은 감정의 달콤함 때문에 여러분은 그에 맞서 무장하고 쫓아내지 않았고, 그것은 욕망적인 소망을 낳았습니다 — 여러분은 잘못했습니다, 왜 즉시 무장하지 않고 최악적이고 욕망적인 것에 동조했습니까. 그 욕망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어쨌든 당신은 욕망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고 즉시 그것을 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더욱 유죄로 만듭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이 허용된 것은 죄입니다; 그로부터 악한 감정이 생겨나게 허용한 것은 또 다른 죄입니다; 악한 감정으로부터 악한 소망이 생겨나게 허용한 것은 세 번째 죄입니다; 악한 소망이 지체하도록 허용한 것은 네 번째 죄입니다. 이토록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옆으로 가리면서 자신을 위장하거나, 양심 속에서 당신에게 다가와 책망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덤불 속에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책망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녀에게 화를 냈다면 — 특히 그녀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다면 — 하녀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녀가 실수했을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왜 화를 냈는가입니다. 화내지 않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을까? 설령 바로잡을 수 없었다 해도, 화내지 않고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화가 치밀고, 저기서는 비난이, 또 다른 곳에서는 시기심이, 또 다른 곳에서는 허영심이 생긴다. 이 모든 것에는 물론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감정을 허용한 당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직접 자신을 책망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쁜 감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쫓아내며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회개와 통회로 주님과 양심과 화해하고 다시 평안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은 당신에게 무겁고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녁까지 회개로 정화하지 않은 정욕의 방종들을 남겨두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자마자 즉시 정화하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은 회개 속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악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흔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차례대로 다시 모든 정욕적인 죄악들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뉘우침으로 그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매일의 회개입니다. 여기에 다시 성 이시히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들을 우리는 매시간 주의 깊게 살피고, 저녁에 회개를 통해 그 무게를 가능한 한 반드시 덜어야 한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정욕을 이기려 한다면 말이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행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정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을 어리석은 자처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124).

자신에게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정해진 대로 행동한다면, 곧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빛날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욕이 마음을 갇아먹기 때문이다. 정욕을 물리치면 마음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어느 성인은 마음을 뱀으로 가득 찬 굴에 비유합니다. 이 뱀들은 정욕입니다. 마음에서 정욕이 드러날 때, 그것은 마치 뱀이 굴에서 머리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머리를 치면, 뱀은 숨을 것입니다. 또 다른 뱀이 나타나면 그것도 치십시오. 그리고 모든 뱀을 치십시오. 열 번쯤 그렇게 뱀, 즉 정욕을 치면, 그것은 머리를 내밀기를 잊거나 아예 죽어버릴 것입니다. 어쨌든, 구멍을 메우거나 뱀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욕들도 그들의 속삭임에 동조하는 먹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분노로 그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죽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욕으로부터 정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순수함을 사랑한다면, 이 길로 달려가십시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욕은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고쳐 흠잡을 데 없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친 듯한 처녀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길! 구원받으소서!

| 61 |

지난번에 나는 여러분에게 정욕적인 생각과 감정,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 말했고, 그것들에 죄를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 몇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감정과 욕망은 때로 저절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부적인 인상들의 작용 아래에서 생겨납니다. 마주치는 사물, 사람, 사건들은 그 본성상 마주하는 이의 생각도 자극합니다. 선한 것들로부터는 선한 생각이, 악한 것들로부터는 악한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선한 것에서 악한 생각이 생기고, 악한 것에서 선한 생각이 생기기도 한다. 모든 것은 만나는 사람의 지속적인 또는 우연한 기분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특히 눈과 귀를.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지 마라. 우리의 감정은 창문이나 문과 같으며, 더 나아가 국자와 같다. 창문을 열어 나쁜 공기를 들여보내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문을 열어 자신의 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사람은 책망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국자나 컵, 잔을 들고 더럽고 불결한 웅덩이를 돌아다니며 거기서 물을 퍼서 자신에게 끼얹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호기심으로 나쁜 것에 멈춰 서서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를 통해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로부터 악한 감정과 욕망으로 이어져 마치 안개 속을 걷듯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분별력과 자기 보호(내적 평화)의 의무는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만지지 말 것을 요구한다. 조금이라도 정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로부터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도 듣지 말아야 한다.

둘째: 어떤 것에서 나쁜 인상을 받고 나쁜 생각이 생기는 일이 생겼다. 즉시 앞서 보여준 방법으로 그 인상을 지우고 생각을 끊어야 하며, 물론 미리 인상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나쁜 인상에 머물거나 그 지우기와 마음의 평화 회복을 다른 때로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한 인상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나쁜 생각과 감정이 번식하도록 돕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이 나쁜 것을 자신 안에 남겨두면, 그것이 더 깊이 뿌리내리고 나중에 추방과 정화에 더 오래 저항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며, 심지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다.

셋째: 어떤 것에서 나쁜 인상을 한 번 경험했다면, 그 인상을 일으킨 대상들과 다시 마주치는 것을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쁜 것에 취하는 것을 좋아하며, 따라서 마음 깊은 곳까지 깨끗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필요에 의해 그것과 마주쳐야 한다면, 미리 무장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나쁜 인상에 맞서고 그것을 자신에게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강화된 자기 저항, 그리고 기도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나는 이미 당신에게 당신이 만나는 모든 것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라고 쓴 바 있습니다. 이는 악한 의미를 지닌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그것들을 만날 때 당신은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치 성 에프렘 시리아인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음탕한 미녀를 만나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보라, 그녀가 곧 흠이 될 자신의 몸을 꾸미는 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우리로서는 어떻게 불멸의 영혼을 꾸미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규칙들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내적 삶에 불리한 우연한 사건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집 밖에서, 예를 들어 당신이 최근에 있었던 그 사회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한 일들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항목에 언급된 내용을 따르십시오. 그 항목 아래에 나중에 발생할 모든 유사한 사례들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은 그것이 내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으십시오. 건설적인 것은 허용하고, 파괴적인 것은 어떤 형태로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독이 든 잔에 손을 뻗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너무 억누르며 은둔자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영혼에 해로운 것을 취하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삶만이 진정한 삶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넘어 체험한 후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62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정욕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신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말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당장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더 덧붙이겠습니다.

글로 표현된 정욕과의 싸움은 마음속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욕이 무엇으로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적극적인 싸움도 있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들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색함을 억누르려면 관대함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만함에 맞서려면 자신을 낮추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즐기는 욕망에 맞서려면 집콕 생활 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 방식만으로는 바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억눌리면 욕망이 내부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욕망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적인 투쟁에 내적, 정신적인 투쟁이 결합되면, 둘이 함께 곧바로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욕망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요 정욕을 찾아내고, 그것에 맞서 생각뿐 아니라 행동으로 싸우십시오. 저는 정확히 무엇이 당신의 주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의 움직임에 더 엄격히 관찰한다면 당신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그때, 만약 당신이 저에게 말하시겠다면, 함께 당신의 주요한 약점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지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 열정과의 적극적인 투쟁에는 가혹한 방법들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에게 흔한 방법은 세속을 버린 삶, 즉 모든 것을 단호히 버리고 주님께 모든 희망을 맡긴 채 수도원에 들어가 순종하며 불평 없이, 엄격한 금식, 한 기도와 부지런함, 그리고 깨어 있는 절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 자기 의지를 끊어냄, 그리고 자신을 아끼지 않음이 곧 영혼에서 모든 정욕을 씻어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로운 질서와 마음의 순결이 자리잡게 되는데, 이것이 세속을 버린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마치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단지 이것을 마음의 정욕을 정화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삶의 질서로서 상기시킬 뿐입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우리에게 대한 신의 섭리의 법칙 중 하나는 각자의 삶과 그 안의 우연한 사건들의 흐름을 그렇게 꾸려서, 그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한때 당신이 왜 사람들의 운명이 서로 다른지, 왜 변덕스러운지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신 것은 사람들이 정욕에서 벗어나기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는 그분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의 굳어진 자아, 우리의 완고한 이기심, 즉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정욕이 의지하는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없애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정욕은 안팎으로 치고, 선한 면모는 길러서 그들에게 공간과 연습을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행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당신이 삶의 광범위한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독서와 대화, 교회 의식의 수행, 그리고 자기 죽임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필요할 때 조금씩 음식, 잠, 오락, 그리고 자기 만족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하고, 끊임없는 자기 저항과 자기 강요 속에 자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는 모든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서 진행 중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를.

| 63 |

열정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서둘러 끝내려 했으나 — 비록 여기서 결코 끝을 맺을 수 없지만 — 그 당시 당신이 쓴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거의 답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쓴 글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겠습니다.

집안일이 많다고 쓰셨군요. 부탁받은 일은 성실히 다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근심)은 내면의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는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맡겨진 일을 차분히 논의한 뒤,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세상 살다 보면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일이나 바쁨이 아니라 마음을 갇아먹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입니다. 그런 걱정들은 일을 머리카락 한 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회오리바람처럼 생각을 휩쓸어 버리죠. 그러면 항상 혼란만 생기고 일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한 열심과 마땅치 않은 걱정과 분주함을 구분하고, 모든 일을 정신 차리고 하도록 연습하십시오. 생각을 주님께에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것으로 그분께 기쁨을 드린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으시니: “노래와 피아노, 오르간 연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곡의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연주하고 노래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모든 곡의 내용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매우 조화롭게 작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즉시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부르던 것과 연주하던 것을 계속 부르며 연주하되, 내용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한편으로는 조금씩 좋은 내용이나 적어도 참을 만한 내용의 곡들을 골라 더 많이 부르며 연주하세요. 그러면 결국 다른 곡들은 완전히 잊게 될 것입니다. 피스하모니는 교회 성가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투르차니노프의 작품을 구해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익히십시오. "하나님, 왕을 보존하소서", "우리 주님이 시온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등과 같은 곡들을 익히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종류의 곡들을 진심 어린 감정으로 부르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찮은 곡들을 부르거나 연주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 위엄 있는 작품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오래전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와 노래를 칭찬받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둘 다 좋으면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노래에 대한 취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오. 당신은 오직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여 헛된 일에 썼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돌아섰으니,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쪽으로 돌리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면, 하물며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주하고 부르는 것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탄식하게 하거나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올라가게 한다면, 당신은 교회에서 훌륭한 설교자가 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 사용을 이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세속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곡들과 영적인 곡들을 골라 오직 그것들만 노래하고 연주하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당신 자신은 결코 세속적인 것을 노래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만 노래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건대: 갑자기 바꾸지 말고 서서히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평소처럼 친절하고 상냥하며 명랑하게 대하십시오. 다만 웃음과 우스꽝스러운 행동, 그리고 온갖 헛소리는 삼가하십시오. 그것 없이도

친절하고, 명랑하고, 유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구세주께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씻고 머리를 기름으로 바르고 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우울해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 64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혼자 남아서 외롭습니다"라고 쓰셨군요.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당신의 결심과 그에 따라 제안된 일들을 실천하셨다면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마지막 제안이 당신 안에 조금이라도 뿌리내렸다면, 비록 혼자 계시더라도 결코 자신을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수호천사가 함께하신다는 것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그리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적인 그리움이 금방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혼자 있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수호천사도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재빨리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고독의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그분과의 달콤한 대화로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누리는 고독은 달콤합니다. 언젠가 이 달콤함을 맛보아, 지상의 낙원처럼 그것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한 책을 넘기다가 아버지가(스페란스키 백작) 딸에게 한 조언을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지루함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가 말하길, 일상적인 일들의 범위가 있는데, 그는 이를 마치 세금처럼 내는 것처럼 처리한다. 그러나 이런 세금 같은 일들이 복잡하지 않고 짧게 끝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는데, 이를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순간도 빈둥거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적절한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세요. 한 일을 마치고 자유로워질 때면, 이미 다른 일이 준비되어 있어 바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일들인가? 1. 미적 활동: 음악, 노래, 회화. 그러나 이는 생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치품이다. 2. 어떤 수예 — 뜨개질, 자수 등. 3. 그러나 지루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지한 독서와 아직 알지 못하는 주제를 연구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지루함을 쫓아내는 것은 독서 자체보다 연구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그때 나는 이 방법을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필요성이 생겼군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그렇게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있고, 어디에도 나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루하지 않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일을 하고 또 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다 해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당신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공부란 물론 온전한 학문이나 그 일부를 완전히 익히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헛된 책들을 읽는 모든 행위는 분명히 배제됩니다. 당신도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잘됐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책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이는 가장 진지한 주제들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결코 낡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아직 알지 못 한 주제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들을 이해하려는 적응력은 오직 영적인 삶의 길에 실제로 들어섰을 때만 생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신 순간부터, 저는 당신께서 이 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에 관한 책도 읽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누가 성 피멘에 대해 알려 주셔서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지요? 하지만 누가 알려 주셨든, 저는 매우 기쁩니다. 성 피멘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셨는지는 8월 27일자 《성인행전》(Chetii Minei)과 《성인과 복된 아버지들의 수도생활에 관한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Dostopamyatnye skazaniya o podvizhnichestvi svyatykh i blazhennykh otcov)이라는 책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그의 수많은 가르침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배움이 깊지 않았으나, 영적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영적 완성에 이르는 법칙에 대한 섬세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인해 그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신비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 가르침과 훈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을, 내가 오랫동안 설명해 온 내용에 적용하여 적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의 시작은 회개와 죄에 대한 통곡입니다. 성 피멘이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덤 위에 앉아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에 나타난다 해도 그녀의 영혼을 슬픔에서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울어야 한다" (26). (「성인과 복된 아버지들의 수도생활에 관한 기억할 만한 이야기」 중에서). 27항에서는 같은 사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며 성 피메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내가 너에게 장담하노니, 사람이 육신의 모든 욕망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울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여인의 온 영혼과 생명이 슬픔에 잠겨 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울며 뉘우치는 자는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행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악한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가 악에서 멀어지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생각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성 피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형제가 아바 피멘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바! 제게 많은 생각이 들어서 위험합니다." 노인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하였다: "가슴을 열고 바람을 들이지 마라!"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형제가 대답하였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노인이 말했습니다, "생각의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네 일은 그것에 맞서는 것이다" (28).

대항하되, 어떻게? 첫째,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려라. 한 형제가 자신에 대해 말하길, 다른 이들을 만나면 즐기다가 돌아올 때면 나갔을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돌아왔을 때, 나갔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싶느냐?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자신을 지키라." (137) 그리고 아바 피멘은 항상 말하곤 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마음이다 (135).

자신을 지키다가 정욕을 발견하면 즉시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물러갈 것이다. 한 형제가 아바 피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과의 싸움에 대해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일은 마치 한 사람에게 한쪽에는 불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물이 담긴 그릇이 있는 것과 같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는 물그릇에서 물을 떠서 불을 끈다. 불은 원수의 속삭임(정욕)이고, 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다" (146).

정욕적인 생각으로 덜 고통받으려면, 그것들을 자극하는 계기를 멀리해야 한다. 아바 피멘은 모든 정욕적인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가까운 사람은 깊은 심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인간의 적은 그를 이 심연으로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서 멀어지는 자는 심연에서 멀리 서 있는 자와 같다. 원수가 그를 끌고 심연으로 떨어뜨리려 해도, 강제로 끌고 갈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다(59).

가장 중요한 것은, 온갖 방법으로 생각에 굴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성 피멘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한 형제가 그에게 물었다: '사람이 항상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단 하나도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인은 대답했다: '열 가지를 지키되 한 가지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 같은 형제가 아부 시소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말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적에게 내주지 않는다' (88, 89).

또한: "아바 아누비우스가 아바 피멘에게 인간의 마음에 생기는 불결한 생각과 헛된 소망에 대해 물었다. 아바 피멘이 그에게 대답했다: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자 앞에서 자랑하겠느냐?' (사 10:15).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완고함에서 무엇이 나올까? 정욕이 죽을 것이다. 아바 피멘이 아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아바 피멘에게 불결한 생각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옷이 든 상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옷이 썩어 버리듯이, 생각들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마치 썩어 버리듯이 사라질 것이다” (20).

아바 요셉이 아바 피멘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항아리에 뱀과 전갈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당연히 그 독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마에게서 비롯된 나쁜 생각들도 인내로 맞서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죽어갈 것이다” (21).

그러나 악을 그런 무자비한 저항으로 멀리하는 동시에, 자신 안에 온갖 덕을 심어 선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곧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다. 성 피멘은 덕을 심는 것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그는 아바 요한 콜로바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느 정도라도 모든 덕을 갖고 싶다” (46). 그리고 이어서 자신도 이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 할 때,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재료와 온갖 물건을 모읍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모든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0).

그러나 근원적이고 지도적인 덕목들이 있으니, 바로 그것들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성 피멘은 종종 이를 지적한다. 자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의, 그리고 분별력—이 세 가지가 영혼을 이끄는 덕목들이다(35).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이것이 영혼의 일하는 도구다! (36).

성경에 기록되었나니: “그 가운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세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영혼만 구원하였으리라” (겔 14:14, 20). 노아는 탐욕 없음, 욥은 인내, 다니엘은 분별력을 상징한다. 이 세 가지 덕이 사람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60).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것이 완전함의 세 가지 기초이다(160).

아바 피멘은 한 평신도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다: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비유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을 만나고 싶으니, 나와 함께 가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반쯤은 함께 가겠다.’ 그는 또 다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다 달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궁까지 데려다 주마.” 그가 세 번째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왕에게 가자.” “가자, — 세 번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 내가 너를 궁전까지 데려다 주고, 그 안으로 들여보내며, 너에 대해 왕에게 말하고 그를 네게 소개해 주마.”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인가?” 그가 대답했다: “첫 번째 친구는 참된 길로 이끄는 수행이다; 두 번째는 하늘에 이르는 순결이다; 세 번째 친구는 담대함으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비이다” (109).

이렇게 한 편으로는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편으로는 덕을 심어 나가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182), 따뜻해지며 신성한 불을 받아들인다. 그 불만 지키면 안전할 것이다. 아바 피멘은 이렇게 말한다: “항아리가 아래에서 불로 달궈지면, 파리나 다른 어떤 기어다니는 것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식으면 그때 그들은 그 위에 앉는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일(하나님께 대한 영의 불타는 열정) 안에 머무는 한, 원수는 그것을 해칠 수 없다” (111).

이 인용문들로 충분합니다. 성 아바의 글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다른 것들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발췌문들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당신의 기억 속에 다시 새기려 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걸어 들어선 길 전체가 있습니다. 어떤 성인의 글을 읽든, 모두 본질적으로는 동일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록 표현과 설명 방식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아, 그래서 누가 당신을 성 피멘에게 이끌었는지 알겠군요! 신성한 일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누군가. 짐작이 갑니다. 분명히 그분이 바로 제가 당신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분일 것입니다. 이 일에 매우 기쁩니다 — 기쁘네요, 당신 곁에 그렇게 말할 줄 아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활용하시고, 그분이 당신 곁에 올 때마다 그런 주제로 이끌어 내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끌어내어 스스로 습득하십시오.

세르기에프로 가시나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길. 게다가 걸어서! 두 배, 세 배로 좋겠네!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도록 어떻게든 숨길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그냥 말하게 뒤. 하지만 이걸 즐거운 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헛된 생각이야. 50베르스트를 걸으면 처음엔 즐거울지 몰라도, 그다음엔 예상치 못한 걸 느끼게 될 거야. 이틀이면 도착할 거야. 첫날 밤에 걸어나는 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전에 몰랐다면요. 소금 넣은 보드카 병 하나 챙겨서 밤에 발에 문질러 바르세요. 저녁이 되면 발이 자기 발 같지 않을 거예요. 문질러 바르면 아침이 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아침에는 모스크바에서 갈 때처럼 걷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올 때는 철길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틀을 더 걸을 힘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수고라면,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에 띄게든 보이지 않게든 무언가를 주실 것입니다. 성 세르기우스도 무언가를 주실 것입니다. 성인들에게는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보고, 그들이 무엇을 청하는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직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전신이 한 순간에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그리고 더 멀리 소식을 전하듯, 마음속에서 싹트는 것은 한 순간에 그 소식을 받는 이에게 알려줍니다. 성 세르기우스는 당신이 그에게 가려고 마음먹자마자 이미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길을 떠나면 더 많이 바라보실 것이며, 여행의 수고를 기쁘게 견디고 기쁨으로 그분의 수도원에 도착하면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축복하소서! 다만 즐거움은 기대하지 마시고, 피로와 굳은살, 뼈의 쑤심만을 예상하십시오.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희생할 준비를 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내가 당신에게 쓴 짧은 기도를 끊임없이 되뇌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각들이 어디로 당신을 이끌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것들, 하물며 순례길에 오른 자들이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들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외우다 지치면, 어떤 시편을 골라 묵상하며 암송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나 "주여, 나의 도움을 들으소서" 또는 아는 다른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데 집중하십시오. 각 단어에 깊이 빠져들어, 그것이 왜 말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당신은 거리(里程)가 하나둘 지나가는 것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묵상하며 시편을 암송하는 것은 초기 위대한 성부들인 안토니우스와 파코미우스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몇 편의 시편을 암송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읽기를 모르는 사람은 읽기를 배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로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몇 편의 시편을 암송한 후에는 일하는 동안 앉아서, 특히 어딘가로 걸어갈 때 읽어야 했습니다. 고대인들의 모범을 따라 해 보십시오.

수도원에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성사를 받도록 잊지 마십시오. 여행의 수고가 금식의 수고를 대신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상세히 고백한 후라면 이제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즉 회개의 눈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의 눈물만으로도 마치 목욕을 하거나 목욕탕에서 몸을 씻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눈물에 대해 전에도 당신께 뭔가 쓰고 싶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써 보겠습니다. 당신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시죠. 주코프스키의 책을 빌려 '페리와 천사'라는 글을 읽어 보세요. 아마 다섯 번째 권에 있을 겁니다. 감동적입니다. 꽤 긴 글이죠.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 영혼 중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유혹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천국의 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들어갈 희망은 있지만, 합당한 선물을 가져오라." 페리는 지상으로 날아갔다. 전쟁을 목격한다. 용맹한 전사가 죽어가며 눈물을 흘리며 임종 기도로 조국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한다. 페리는 이 눈물을 받아 들고 간다. 가져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천사가 그에게 말한다: "좋은 선물이지만, 너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이는 모든 시민적 미덕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페리는 다시 땅으로 날아간다. 전염병을 본다. 미남이 죽어가고 있다. 그의 약혼녀가 자신을 희생하며 그를 간호하지만, 그녀도 감염된다. 그녀가 그의 눈을 감겨 주자마자, 그녀도 그의 가슴에 죽은 몸으로 쓰러진다. 여기서도 눈물이 흘렀다. 페리는 그중 하나를 주워 들고 가지만, 천국의 문은 이것으로도

열리지 않았다. 천사가 그에게 말한다: "좋은 선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네게 천국을 열어줄 힘이 없다." 이는 가족의 덕목만으로는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찾아라! 희망이 있다. 페리는 다시 땅으로 내려갔다. 회개하는 누군가를 찾았다. 그의 눈물을 가져와 운반했다. 그리고 천국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모든 문이 그를 위해 열려 있었다. 그러니 주님께 가져다 드릴 눈물을 이렇게 가져오라. 하늘에서는 누군가 울며 자신을 죄인이라 느끼며 통회할 때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길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주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 67 |

당신은 당신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예언한 피로와 쭈심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영혼에게 약속된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의 기쁨으로 당신을 위로하셨고, 성 세르기우스가 당신의 혼란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에 강렬하고 불안한 혼란이 일자, 나는 성 세르기우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요하고 기쁜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하늘에 즉시 들리고, 그곳에서 즉시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것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어디에서 평안과 깨달음을 찾아야 하는지.

그러나 고해성사 때 어떤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크든 작든, 행동이든 말이든, 양심이 그것이 죄라고 말한다면, 고백과 회개로 정화해야 합니다. 회개의 성사의 본질은 고백된 죄를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혼에 남아 저 세상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하얀 옷에 검은 얼룩이 더 눈에 띄듯이 말입니다. 교활함은 여기서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네 죄악을 고백하라. 그리하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사 43:25-26).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이 때로서는 쉽지 않은 일의 완화를 위해 법을 정하셨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8:18). 땅에서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로 풀리지 않은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음을 잘 새기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누락을 서둘러 채우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고백에서 빠뜨린 죄를 회개하면서, 고의로 빠뜨린 것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길 거의 내내 짧은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항상 그 기도와 떨어지지 않도록 배우라. 기도는 주의력을 모아주고, 헛된 생각과 헛된 염려를 물리치며, 주님께서 수호천사를 통해 필요한 때에 깨우침을 주실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된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이다. 작은 기도는 위대한 보배입니다. 영적인 일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때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단지 끊임없이 말만 반복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며 경외심을 함께 하십시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 그분이 모든 이를 돌보시고 모든 이를 보살피시며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데도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무관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제외하고, 마음의 눈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면 적어도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위에 계시어서 따뜻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미 기도입니다.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낮에 성화 앞에 서서 절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침과 저녁 시간을 모두 주님께 드리십시오. 거기서 경배하고, 생각하고,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잠을 자는 듯하면서도, 일찍 깨어나서 서둘러 일어나 주님과 달콤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아침에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 하루 종일 잘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복음서와 사도행전 및 다른 영혼에 유익한 책들의 독서는 당신 안에 마땅한 것에 대한 개념을 열어 보이고 확고히 할 것입니다. 양심이 이 개념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실천하기 시작하며, 그것들이 지시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오직 법으로 삼으십시오. 결코 양심에 반하는 일, 크든 작든 하지 말고, 만약 무너진다면 즉시 회개로 만족시키십시오 — 자신의 내적, 가정적인 회개로. 고해신부 앞에서는

고백하십시오. 양심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 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서 양심과 화해한 자는 하나님과도 화해한 자입니다.

주님, 당신을 축복하소서!

| 68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당신의 말씀 "소문이 돌았다"가 내 마음에 얼마나 아프게 울렸는지! 오, 말과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뼈를 깎는 불인지! 그래서 성 다윗 예언자가 시편에서 자주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의 혀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어디에서 위안과 지지를 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양심의 증거에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행동이 지닌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니, 마음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말이 돌아다니든 담대히 맞서십시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중함은 다음까지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자극하지 않고 눈을 흐리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적인 일들을 미루는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특별한 점을 드러냈습니까?! 설마 성 세르기우스에게 갔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공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며, 거기서 당신은 동료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든 주일과 명절에 밤샘 예배와 성찬식에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극도의 궁핍뿐이며, 게으름과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잊은 것에 대한 비난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스크바 아가씨들의 나쁜 습관들을 보지 말고 그들의 헛된 말도 듣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일이면 죽음이다. 죽음은 미인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도 쓰러뜨린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즉시 심판이 따른다. 그곳에서는 아가씨들의 교활함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쪽에서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난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위안과 용기를 북돋우기에는,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양심 속에서 의롭다 하신다면, 그 모든 심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내게 말하길, 사람의 말은 진정으로 나쁜 것에 매달리지 않는 한, 사람 위에 잠시 머물다 물기 없는 구름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도 식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늘 그랬듯이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이.

당신의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수도자의 엄격함 대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기억을 가지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의 은밀함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영적 삶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 특히 내면의 일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누군가를 두어야 합니다.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기록하십시오.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는 어떤 나쁜 힘이 있어, 온갖 환상적인 선함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일을 혼란스럽게 하여, 때로는 쓸데없는 일에, 때로는 심지어 해로운 일에 빠지게 합니다. 적이 바로 옆에 앉아 모든 일을 부추깁니다. 그에 대항하는 데는 자신의 판단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즉시 행하지 말고 미리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논의하기 시작하면, 적이 자신의 유혹을 감추는 선한 것의 허상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항상 이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이 종종 자신의 속삭임으로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우리 선배들은 이를 속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글을 쓰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와 자주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사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실수는 다음에 어떻게 더 잘 행동해야 할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가정도, 영혼의 일도. 참아내십시오. 어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당신의 운명과 모든 이들의 운명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확고한 소망과 견고한 평안을 얻으실 것입니다.

일부 가족 오락은 즐겁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위로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 위로를 마치 그분의 손에서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혼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삶의 길에 대한 깨달음과 지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오히려 슬픔을 낳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죄악은 아니지만,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변덕스러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며, 오직 한 가지에만 신경 써야 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고 항상 굳건히 지켜야 할 핵심적인 결심, 즉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목표입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원하시고, 마음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항상 갈망합니다. 이 점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거기서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친구 중 한 명과 마음으로 멀어졌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매력적이고 교묘한 성품으로 당신에게 삶의 목표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에 불리한 영향이었으니, 이는 매우 좋습니다. 당신은 한때 이 영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저는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절로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더 이상 믿지 말고 그녀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자신을 차분히 유지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어떤 영국인 사도(레드스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 속에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답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보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그곳에서는 그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만약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 터키인이나 다른 이교도들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기적과 성인들의 유물, 그리고 주님과 성인들의 현현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우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사도는 영국 전체의 신앙이 아니라 최근에 나타난 특별한 어떤 신앙입니다. 최근 그곳에 성령론자라는 종파가 생겼다.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사도 시대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성령이 가지적으로 강림하시고 신자들에게 가지적으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믿었는데, 대부분 미녀들이었다. 그들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성령이 분명히 자신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확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어두운 기적들을 꾸며내어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교회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도도 나왔다. 그는 성령에 대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 이 생각은 완전히 옳다. 나는 첫 편지들에서 그 진리를 당신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오직 그 진리만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은사를 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사를 통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성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 바울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후에 그들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들은 새롭게 되었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세례는 그들에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합당함을 부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신자들처럼, 사도들과 그 후에도 모든 이에게 그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즉 사도들이 안수 대신 도입한 성유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가 작용하게 하는 방법은 제 첫 편지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영국 사도에게 가서 그 자신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는 견진 성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사 없이는 사도들의 안수 없이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영국인에게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사만 있을 뿐, 견진 성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다. 이 사도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해 설교한다. 그의 말에서 성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단지 성령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외친다: 믿으라! 마치 입만 벌리면 성령이 들어올 것처럼 말이다.

이 사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노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말에 동의하시고 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특히 당신 앞에서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 사도에 대한 이런 관점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구원 받으소서!

| 70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당신의 바람에 따라 성 안토니오와 그의 저술을 보내드립니다. 읽고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십시오. 그는 학자가 아니었고 학자들의 책도 읽지 않았으며, 오직 시편을 노래하고 사도와 함께 복음서를 읽었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의 마음속에 묵상을 열어주셨고, 보십시오, 그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말을 시작하면 그의 말은 강물처럼 흘러나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이런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도, 듣는 이들도 피곤함을 모르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라핌 사로프스키 신부님도 배운 바 없었지만, 영적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그를 지혜로운 자 중의 지혜로운 자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삶에서 책은 단지 지침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실천을 통해 얻어진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조차도, 마치 명확하고 상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천을 통해 시험받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영적 삶은 인간의 지혜가 침투하지 못하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거나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니 앉아서 기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많이 읽는데, 이건 나쁜 건가요?"라고 쓰셨군요. 읽는 내용과 읽는 방식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며 읽고, 읽은 내용을 우리 신앙의 참된 진리로 검증하십시오.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즉시 신을 거스르는 생각으로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이 담긴 책은 내버리십시오. 당신은 영적 삶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주제는 방대하고 고귀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마지막 행복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달콤하게 합니다. 이것을 시작했으니, 책으로도 배우고, 더욱 실천으로 배우십시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이미 알고 계시며, 어떻게 그에

맞는 삶을 꾸려야 할지도 아십니다. 진심으로 이 길에 들어서고자 한다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배웠고 모든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갖추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씀하시길: 그렇게 뒤쳐져 나가겠느냐? 무슨 문제인가! 한 가지에서는 뒤쳐져도 다른 한 가지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게 성공할 수 있다. 만일 인간의 지혜에서는 뒤쳐져도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서 성공하시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제대로 일을 시작하신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얻으실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비교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다른 것은 전혀 읽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손실 없이도 지낼 수 있지만, 그것에 치우치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두 가지를 쫓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시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을 수 있는가? 이빨 사이로 속삭이듯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조금만 그리고 가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십시오: 선한 영적 기분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다가 그 선한 기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책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지혜의 책들도 영혼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선함, 진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을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안에서 읽을 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들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자연과학 분야 책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의 모두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삶의 모든 도덕적·종교적 현상들을 영혼과 정신 없이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 책들은 손에 들지도 마십시오. 그런 허튼소리 없이 자연과학 분야를 다룬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읽어도 좋습니다. 식물과 동물, 특히 인간의 구조와 그 안에 드러나는 생명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헤아릴 수 없으십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앙의 주제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설과 장편소설은?! 그중에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지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하고, 읽은 후에는 그런 이야기와 이미지들로 가득 차게 될 테니, 하나님이 금하시길! 깨끗한 머릿속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청소하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읽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선의를 가진 독자 중 누군가가 어떤 소설을 추천한다면, 그때 읽으십시오.

좋은 지리 묘사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리고 마치 다양성을 위한 것처럼만 읽으세요. 자신의 일을 지키고 그 일에서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71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제 기도가 잘 안 됩니다"라고 쓰셨네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기도가 잘 될 것입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에게 꾸짖고 위협하면, 그는 곧바로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꾸짖고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꼼꼼히 고쳐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꾸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즉시 꾸짖지 않으시며, 그분께 드리는 봉사를 자녀들의 열정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앞에서 이 일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때 얼마나 쓰라릴까.

도대체 당신의 기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분명히 잘 진행되고 있었고,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선한 효과를 느끼고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두 번 열심히, 따뜻하게 기도하고 성 세르기우스에게서 기도로 인한 빠른 도움을 경험한 후,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이미 자리 잡았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절로 잘 진행될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기도할 때 기도를 대충하고 서둘러 읽으며 생각에 집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고 생각이 사방으로 흩어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니 기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도를 되찾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로부터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영적 행위도, 하물며 기도는 결코 정착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하는 일에는 첫 번째 열심이 담긴다. 기도할 때, 마치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고 지금이 처음인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지면, 항상 첫 열정으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서둘러 기도 규칙을 대충 마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대충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아무것도 주님을 이처럼 모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도를 모두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대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한 가지 기도라도 제대로 읽거나, 무릎 꿇고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주의함에 대해 스스로를 잘 꾸짖으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주의 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 누구도 기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기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 우리가 부주의하게 기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에게서 어떤 복을 빼앗고 있는지요!

기도에 왜 서두름이 생기는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일에는 몇 시간을 보내도 길게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벌써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서둘러 끝내려고 자신을 재촉한다. 기도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이런 자기기만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 기도할 시간을 15분, 30분, 1시간 등 자신에게 편한 대로 정하고, 시계의 초침이 30분이나 1시간을 가리킬 때 기도가 끝났음을 알도록 기도 시간을 맞춘다. 그런 다음 기도할 때, 더 이상 몇 번이나 몇 번의 기도를 읽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정해진 시간 내내 기도로 주님께 합당하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한다: 기도할 시간을 정한 후, 그 시간 동안 목주를 천천히 돌리며 몇 번이나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런 다음 기도할 때, 천천히 정해진 횟수만큼 목주를 돌리면서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말로 그분과 대화하거나, 어떤 기도를 읽거나, 그것도 없이 경건히 그분의 무한한 위엄 에 경배를 드린다. 이들 모두 기도를 습관화하여 기도하는 순간이 달콤한 시간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고, 두 배, 세 배로 늘립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지키십시오. 우리에게는 정확한 규칙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기도자들에게는 어떤 규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께 기도문을 암기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서 없이 암기한 대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할 때 암기한 기도문이나 시편을 읽고, 그 한 마디 한 마디를 생각뿐 아니라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이때 시편이나 기도의 어떤 말씀에서 자신의 기도하는 탄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지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읽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은 목주나 시계로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입니다. 기도를 서둘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편의 시편이나 한 편의 기도만 읽으십시오. 어떤 이는 정해진 기도 시간 동안 종종 한 편의 '주님의 기도'만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말씀이 온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는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을 때, 그는 아침 기도 시간 내내 경건한 기도로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읽으며 시편을 다 마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곧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어떤 규칙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일에서도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마지막 편지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일상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하셨군요. 주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자비롭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한 결정을 축복하시기를! 주님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속으로 이미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전에도 당신께서 이 세상에 마음이 없으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이 약하셔서, 혹은 다른 가정에서 보신 실패를 두려워하셔서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말이었고, 지금은 다른 말입니다. 일은 같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세속적인 이유로 세속적인 삶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지금은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속에서 끊어내려 하십니다. 자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걱정과 일상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결정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근원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삶의 질서에 속하며 당신을 그곳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결정을 내리게 한 그 정신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결정은 내렸지만,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는 갑자기 뛰어 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가로막힐 테니까요. 부모님의 축복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당신 안에 이처럼 선한 뜻을 심어주신 주님께서, 마치 언덕 아래로 썰매가 미끄러지듯 눈에 띄지 않게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품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로운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한편 스스로 그 생활 방식에 적응하십시오. 외적인 질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많이 기록되었고 이미 시작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이제 모든 지시 사항을 더 단호하게 실천하십시오. 기초는 놓였습니다. 건물을 세우십시오.

세속적인 것에 등을 돌렸으니, 더 이상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모든 오락적인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고, 집에서 고독 속에 머물며,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그 일과 당신의 기분에 맞는 활동 사이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점에서 더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기억하라.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아시되, 행하기까지 하신다면 복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라.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며, 당신과 함께하시고 당신 안에 계신다는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과 함께 항상 함께하라: 일할 때, 앉아 있을 때, 잠잘 때, 깨어 있을 때. 이 기억과 함께 다른 기억도 가지십시오. 죽음에 대한 기억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두 기억은 모든 선을 지키는 두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이 기억들이 당신을 모든 것에 가르쳐 줄 것이며, 당신 안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신성한 지혜의 근원—을 불태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나가며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결심하고 이 일에 임하시길 바라서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그러나 성취는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서둘러 같은 주제에 대해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준 성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길로 치우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약혼하여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데려가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2-3). 나도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대화의

시작부터 보아온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주님께 순결한 처녀로 자신을 바친 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약혼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 저는 오직 당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견고한 구조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 구조는 안전한 배처럼, 당신이 이 덧없는 세상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 대한 소절은 당신에게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보라 — 결심입니다!

결심! 그러나 일이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의 마음이 단순함으로 인해 썩지 않도록, 그리고 교활한 적으로 인해 유혹받지 않도록, 마치 옛날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런 우연한 사건들로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항상 깨어 있고 경계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신이 결심한 후에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적이 순식간에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동안은 견디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임을 깊이 확신하십시오. 구세주께서 하늘나라를 위해 거세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그 방식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을 때, 그녀가 좋은 부분을 선택했다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며 그 삶을 선호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 주님의 세례자 요한 성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결의 친구이자 근원이신 성모 마리아의 모범에서 그 빛나는 본보기를 보십시오. 그녀의 모성적 보호가 항상 여러분을 덮어 주시기를. 처녀들은 그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입니다.

처녀들은 처남들처럼 사도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 자리 잡았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왔고, 거룩한 교회가 서 있는 한, 즉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이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 본성에 낫설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에 의해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많은 처녀들이 그리스도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한 분 신랑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은 성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성 바울은 그들에게 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자유를 주고, 결혼하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이 조언을 따랐고, 처녀들은 처녀로 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본을 다른 교회들도 따랐고, 처녀성은 곳곳에서 꽃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처녀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일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썼는데, 그들의 진정한 생애가 이를 증언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무리에 들어가는지,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는지, 누구의 보호를 받는지, 누구의 말씀을 듣는지. 보십시오, 쟁기를 잡았으니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도가 결혼을 포기한 자들에 대해 말한 말씀을 굳게 새기고 자주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미혼 여성은 주님의 일을 돌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몸과 영으로 거룩해지려 합니다*”(고린도전서 7:34).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룩함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 조심하라*”(엡 5:15).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마음이 아무것도 붙지 않도록, 사람에게만 붙지 않도록—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어떤 사물에도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집착은 주님과 약혼을 깨뜨리는 것이요, 그분께 대한 불충실함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불충실한 마음을 엄히 벌하십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당신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협이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혼계가 통하지 않을 때, 당신 스스로를 두려움으로 깨우쳐야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투와 변함없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정한 것을 저버리면 얼마나 나쁜 일이 될지 알아두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당신은 이렇게 씁니다: "아, 빨리만 된다면! 지금 당장 사막 어딘가로 날아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아니, 아닙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서두름과 그런 열망—빨리 빨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욕망과 선한 것들도 선하지 않으며 선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굳건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출구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살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실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모든 것이 마련될지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약혼하십시오, 지금 바로 — 여러분 스스로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약혼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그분의 신부들의 합창단에 들어갈지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당신은 수도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가족의 유대를 맺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한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도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세속적인 번잡함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이들은 자신의 집 안에 은둔처를 마련하고, 금식, 기도, 그리고 신성한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꽤 시간이 지나 집에서 살기 불편해지자, 어떤 이들은 도시와 마을을 벗어나 자연 동굴이나 무덤, 또는 특별히 마련한 초막 같은 작은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공동체 생활과 공동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특별한 수행을 통해 구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수도원도 생겨났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주님께 독신으로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이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 구호소, 여인숙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 그리스도 교회 초기에 형성된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항상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독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구원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도원에 들어가며, 어떤 이들은 자비의 수녀로서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습니다.

당신도 이 생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기다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시하시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수도원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의 정화와 성령의 기쁨이라는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이 이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건강 상태로 보아 수도원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때까지는 첫 번째 삶, 즉 집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방을 가지십시오 — 그 방을 수도원의 방처럼 여기고 거기서 마치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신에게 수녀원장 대신이 되게 하고, 가족 모두가 수녀 대신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모두에게 변함없는 수련자가 되십시오.

너는 마치 자유와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수도원으로 서둘러 간다. 물론, 거기에는 영혼을 위한 완전한 자유가 있지만, 육체와 외적인 일들을 위한 자유는 아니다. 이 점에서 거기에는 완전한 속박이 있고,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있다 — 자기 뜻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도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찾는 길이 항상 화려한 행진길은 아니다. 그곳에 진실로 있지만 가시덤불과 가시나무로 막혀 있어 그곳에 도달하려면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에 찢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수도원에서 자유와 낙원을 바라는 마음을 고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가정교사를 기억하십시오! (편지 28 참조) 그녀는 일곱 해 동안 기다리며 자신의 결심의 굳건함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불같은 수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서두르겠는가? 수도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어느 곳에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신은 의지를 굳건히 하고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당신 집안의 모든 관행은 경건합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친척들도 모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한 결심에 반하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십시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삶과 습관들은 조금씩 수도원 생활에 맞춰 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쓰셨군요: “슬프네요,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가슴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갑자기 덮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견디십시오. 이는 적이 당신이 그 원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 원에서는 그가 기독교인들 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는 당신을 그리움과 갈망으로 맞이합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런 공격을 겪지만,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다른 이는 생각 속에 산처럼 높은 장애물을 쌓아 올리고; 또 다른 이는 시작하려는 일이 부적절하다고 머릿속에 그리게 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다가와 생각의 흐름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내면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폭풍의 돌풍처럼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수들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무질서한 무리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린다. 문이 열려 있고 경비도 없음을 보자마자 우리 집에 쳐들어와 모든 것을 뒤집어놓는다. 약탈하고는 달아난다.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 우리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이 초래하는 우리 내부 질서의 혼란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에서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일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참아내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어떤 특징으로도 규정하지 않았습시다. 아마도 그것이 실제로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불분명함이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여기에 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견뎌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이 서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겪는 시련을 주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여기고, 읊처럼 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소서! 평온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고통이 왔습니다! 평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고통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겠습니다!" 오직 주님, 참아내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모두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모 마리아를 부르십시오.

너희는 공격을 견디고 있다. 이는 선한 일에서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며, 군인에게 있어서는 적이 공격할 때 두각을 나타낼 기회이다. 적이 치게 내버려 두라. 너희는 선한 일에 굳건히 서라. 심지어 말로도 선언하라: 내 뜻과 결심에서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리라. 적군이 속삭이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속삭이는 것을 열거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저주하라.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한 선한 평신도에게 모독과 불신의 영이 덮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귀에 적군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 나는 오직 되뇌었어: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쳤어.” 바로 이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외치세요: 이것도 원하지 않고, 저것도 원하지 않고, 셋째도 원하지 않는다—적에게서 오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 원한다, 주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고백한 바로 그것이다.

말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큰 죄인이고 주님께서 저를 벌하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느끼는 것은 좋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큰 죄인이라 느낄수록, 마땅한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 죄인이며 갚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일도 자신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면의 결심을 저버리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모두 우리의 정화와 구원을 향해 이끕니다. 주님 자신도 가까이 계셔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도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되살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면류관을 위하여 허락하시나니. 견디는 자는 승리자요 그에게 면류관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나니. 다만 주의와 용기가 필요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중요하도다.

그러므로 온유하게 지내며 어떠한 흔들림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 76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자, 보라! 첫 번째 시련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준비되었으니,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것이다. 누가 거기서 것처럼 떠들어댔는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당신의 머릿속에 쏟아부었는가?! 믿음을 흔들고 그리스도 주님께게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신론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수가 당신에게 보낸 그런 현명한 자였습니다.

당신은 불신자들과의 대화와 그들과의 모든 만남을 피하기로 잘 결심했습니다. 악한 대화는 영혼의 선한 기분을 타락시킵니다. 가서 싸우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 그러나 피할 수 없느니라. 이 악한 것들이 사방에 기웃거린다. 보라, 그가 여기 있도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하라: 뜻밖에도 믿음에 반하는 말을 듣게 되면, 들은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도록 힘쓰라. 동시에, 불신자의 말에서 주의를 돌리면서, 우리 믿음이 모든 점에서 변함없이 참되며, 그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반박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도요. 마음속에서 회복된 확신은 말하는 이의 좁은 시야와 불순한 마음을 생각할 때, 당신의 영혼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악한 말들이 부딪혀도 흔적도 없이 튕겨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영혼에 스며든다면, 성 세르기우스가 했던 것처럼 즉시 기도에 의지하십시오: 수호천사,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이신 하느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들이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음에 든든한 의문을 스스로 논의하거나, 어떤 책에서 그 반박을 찾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되, 반드시 그 흔적조차 마음속에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겨진 흔적은 계속해서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마치 걸어가는 이의 발밑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편지를 쓰십시오.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비록 당신께서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말들로 인해 마음에 박혔던 모든 것이 이미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에 대해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신앙은 교육이 채운다.”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특정한 형태를 부여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이는 믿음을 가진 사회에 들어섭니다. 사회의 믿음은 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능력과 영혼의 필요성은 사회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교육을 통해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자신이 얻은 지식을 전수하지만, 그에게 지식을 깨닫는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능력은 영혼의 불가분의 속성이다.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와 그 전능성에 대한 믿음은 영혼의 불가분의 속성으로, 그 능력이 발달하는 대로 누구에게나 힘차게 드러난다. 사회는 단지 자신들의 믿음의 형상만을 전할 뿐, 믿음 자체의 힘과 필요성은 전하지 않는다.

사회는 교육을 통해 믿음을 주입한다. 그런데 사회는 어디서 그 믿음을 얻었는가?! 사회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영혼에서 나온다. 사회는 마치 저수지처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회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영혼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혼에서 나온 믿음은 사회에 자리 잡았다. 믿음은 사회와 가족보다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교육 자체보다도 오래되었다. 교육은 신생아에게 가족과 사회에 영혼으로부터 먼저 주입된 것을 전달할 뿐이다.

그러니 마음속에 확고히 새기십시오. 교육은 오직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만을 발전시킬 뿐,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주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교육이 신앙을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신앙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아무도 가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영혼 속에 이것이 불가피한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가장 야만적인 자들에게도 그것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학식 있는 자들 중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한 걸음 앞서 나갔거나 높이 날아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 본성에서 벗어났고, 자신을 왜곡하고

훼손했다는 뜻이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눈을 뽑거나 코를 자른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인간 삶의 규범은 필연적으로 믿음을 포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규범에서 벗어난 도덕적 괴물이다. 모든 불신앙은 바로 그런 등급이다.

“어릴 때부터 동물들 사이에 살게 된 사람은 그들처럼 변한다.” 이는 지난 세기 말 프랑스 소설과 장편소설에 쓰인 내용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인간은 어디에서나 인간이다. 비록 동물들 사이에서 자라더라도, 그는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였다 해도, 동물들 사이에서 자란 이 인간을 데려와서, 그 동물들 중 두 마리를 골라 당신의 세계로 데려가 보라. 일주일만 지나면 그 사람이 동물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왜냐고? 그 안에는 더 높은 삶의 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 믿음은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어둡고 억눌려 있다. 첫 지시만으로도 깨어나 곧 힘을 발휘할 것이다. 동물들은 모두 그대로 동물로 남을 것이다.

인간 본성의 규범에서 벗어난 불신자들은 보통 자신의 불신을 증명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례들을 인용한다. 그들이 지어낸 동물들 사이에서 인간을 비정상적으로 키운 사례 외에도, 그들은 타고난 바보들을 예로 든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무슨 말이라도 다 지어내지 않는가?!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아무것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례들 자체가 아직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도 영혼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있지만,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에 적용해 보라. 때로는 누군가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들로 인해 위험이 닥칠 수 있다.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가 된다면 말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보내시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 상황들은 그의 참여 없이 지나간다. 그렇게 그는 재난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만약 그가 건강했다면 반드시 그 일에 휘말려 재앙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타고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영혼은 지상에서의 전 생애 동안 묶여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을 풀어준다면, 그들로부터 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 자신에게도. 다른 생애에서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아기들의 영혼처럼 저 세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는 저 세상에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반박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

당신이 들은 다른 터무니없는 말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스스로 잘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조심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라” (엡 5:15).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77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 하나! 그 불신자는 당신을 불신자로 만들고자 했으나, 이제는 반역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부모님을 상대로요.

세상에, 당신의 편지가 참 불평불만 투성이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분명, 벼룩에 물린 모양이군요. 여러모로 추측해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일 테고, 말할 가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소한 일이 엄청난 크기로 부풀려져서 눈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적이고, 모든 것이 적입니다. 그 적은 당신을 부모님의 품에서 쫓아내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소한 일들을 산처럼 부풀려 당신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건대, 설명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는 적의 흔한 술책입니다 — 우리의 마음을 불확실함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슬픔과 어리석은 위안마저도, 그는 환상으로 가려서, 그 안에 분명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도, 그것들이 대단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슬픔도 위안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산처럼 쌓여 있던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속임수였죠. 지금도 당신 위에 그 속임수를 꾸며냈습니다. 마음껏 십자가를 긋고, 이 적의 조언들에 침을 뱉으십시오.

불편한 일들, 불편한 일들! 나는 그것들이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설령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도망쳐야 할까요?! 그것들은 평온하게 견디며 주님께 감사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원수가 바로 당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전사가 적을 만났을 때, 도망쳐야 할까요? 싸워야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적이 뿔만 내밀고 무슨 불행이라도 일으키려 하는데, 벌써 도망치려 합니까?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집에서 나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수도원으로 가거나 자선 수녀회가 되는 것, 둘 중 하나를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선택하십시오. 아직 어느 쪽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집에 앉아 모든 것을 참으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나쁜 동요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굳건한 결심을 선언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그럽게 참아내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부모님과 무엇이든 의견이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라면, 왜 매번 겸손히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습니다. 판단에서의 실수는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잘못 본 거야' 하고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세요. 집안일 관련 지시라면, 또다시 그들의 방식대로 하고 끝내세요. 무엇인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역시 끝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서 그 어떤 불화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 불화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적은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만듭니다.

아니, 당신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참 오만한 사람이야! 이것은 집안 일에 대해서만 불법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도 불법입니다. 부모님께 완전히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분들의 기쁨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수도원에서의 순종이나 자비의 자매 공동체에서의 성실함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법을 세웠습니다(엡 5:21). 그런데 당신은 부모님께 대들고, 그들과 다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누구의 학교에서 이런 지혜를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78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다시?! 불공정과 억울함! 분명 어디선가 외부에서 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디서 왔든 말씀드리건대, 단지 용기를 내고 견디기만 하라 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정화하려 인도하시고, 원수는 당신 안에서 강한 경쟁자를 만납니다. 그러니 굳건히 버티십시오. 불공정함과 모함으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르든,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런 일을 당하는 자는 그것을 너그럽게 참으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칭찬이나 책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불의를 참아내셨습니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참아내지 못하셨습니까?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지만 그건 불공평해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든 아니든, 그것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왜 참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는 불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허락받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진실로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일이다. 순교자들을 예로 들겠다. 그들이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그런데 주님은? 그분은 바로 그곳에 계셨고, 그들에게 나타나 위로하시며 고통을 덜어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고통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 끝까지 참아내어 완전한 면류관을 쓰게 하려고. 그러므로 모든 불의와 모든 모함은 면류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리는

자는 그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 필요성이 지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든 기꺼이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거짓에 평생을 내맡기는 것이 두렵다고.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네 마음이 굳건해지라" (시편 26:14).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국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에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어줌 속에, 말씀드리건대, 참된 길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결정에 모든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부모님 집을 뛰쳐나왔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마치 그분들로부터 어떤 억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부모님의 의무는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동자처럼 소중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바람과 반대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서 오로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욕망만 보는 것은 불공평하며,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확신으로 순종의 괴로움을 달래십시오.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그 괴로움이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이 순종으로 당신은 가족 안에서 받는 것에 보답해야 합니다. 음식, 옷, 지붕은 적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불행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부리와 발톱은 당신에게 모욕이나 불행을 가하려는 자를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덮어주는 독수리가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쫓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지만, 그때는 모두가 달려들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호막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거나 그 아래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래에서 벗어나면 다시 보호막 아래로 가야 합니다 — 수도원의 벽 안이든 자비의 자매 공동체이든. 혼자서 싸움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쫓아대고, 피할 곳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강하게 드러난 자유에 대한 갈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쁜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쁜 갈망이다. 당신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디로 뛰쳐나가려는 건가요?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셨나요? 내적 자유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영혼의 불가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외적 자유인가 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달성 가능한 것인지? 어디로 뛰쳐나가도, 어디에서나 당신은 당신과 동등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들에 의해 자신을 제한하고,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의 억제이며, 그것도 합법적이어서 자신의 양심으로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무지개 쫓기나 다름없고, 더 나쁘게는 유령을 잡으려는 욕망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천 배나 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충동을 다스리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일과 삶을 꾸려가며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리 가자, 이리 가자, 아무도 말리지 말라고요. 진정한 여성 해방론자군요! 한번 보세요, 혹시 자만심에 걸리진 않았나요? 모든 여성 해방론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디로 뛰쳐나가는 게 뭐가 대단한가? 끊임없이 뛰쳐나가는 자들을 보지만, 그들 중 행복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충동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도 없다. 오직 허세뿐이다: 물러서라!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누가 나에게 명령하냐? 그리고 이 명령 없는 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밑도 보지 않은 채, 빠져나올 길 없는 심연에 빠질 때까지 달려간다. 충동일 때 이 점을 명심하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당신의 의도 중 하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아닐까요? 저는 자선 수녀회에 입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질서한 충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미 여러 번 쓴 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날아갈 때가 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79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아직도 불안해하시네요. 그런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겉으로는 다 잘 되어 있고, 속으로는 다 검토하고 정리해서 결심까지 굳혔잖아요. 불안이 어디서 오겠어요?! 다 적이고, 다 적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혹시 이것 말고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비록 정해진 대로라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 하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서둘러 고치십시오. 이런 태도로는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기록된 모든 것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의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 결국 확고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그런 다음 기도에 임하여, 열심히 기도한 후 주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모든 접촉과 우연들을 포함하여.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끊고, 오직 한 가지 염려만 품으리니, 곧 주님 앞에서 항상 기쁘게 여겨지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우연한 일을 평온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기쁘든 불쾌하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염려는 오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제 스스로를 돌보며 모든 우연도 자기 뜻대로 꾸미고 돌리려 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신은 이것저것 잘못되었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면, 아무런 걱정 없이 주위만 살피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보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계명에 맞추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명에 맞추어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불쾌하게 여기는 그 상황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다만 덧붙여 말하건대: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고 당신에게 구원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은 물론 때가 되면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도 변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며,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나비처럼 꽃 위를 날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내해야 할 기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주부가 오븐에 파이를 넣고는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께서 당신도 오븐에 넣고 그 안에 두시며,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니 참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익는 순간, 단 한 순간도 더 오븐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당신을 꺼내실 것입니다. 스스로 뛰쳐나간다면, 익지 않은 파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로 무장하십시오. 또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주님의 손길로 여겨지며 기꺼이 마주하는 불행을 견디는 자는 순교의 동참자가 됩니다. 이 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것으로 마음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감정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성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은 감수성이 풍부하여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편지드린 대로 하십시오: 미리 어느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는 마음의 동요를 경계하거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를 연습해야 하며, 연습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씁니다. 참 영리한 분이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이교도라도 된 건가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준비된 기도문만 읽지 말고, 당신의 말로 그분께 마음속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세요. 보소서, 주님, 제게 무엇이 있나이다? 이것저것 다 있나이다.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나이다. 도와주소서,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그리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모든 것에 맞는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인쇄된 기도를 읽지 않고 항상 자신의 기도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게으름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당신은 기도하라고 속삭이는 자의 말을 듣습니까? 그것이 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분명히 적입니다. 그는 귀에 속삭입니다: 그만뒀라; 때로는 온몸을 휘감은 듯 재빨리 침대로 끌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며 선한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적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속삭임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적에게 화를 내는 것은 가슴에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즉시 물러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마침내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 80 |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자,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자신의 불안에 맞서거나, 더 나은 방법은 그 불안을 일으킨 적에게 맞서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폭풍우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쳐려 뿌리려 하였노라” (눅 22:31). 사탄이 여러분을 어디에나 던져버렸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사탄이 여러분을 뿌렸습니다: 이쪽저쪽으로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이제 배우십시오. 삶의 교훈은 경험으로 얻어집니다. 이 나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떠올려 보시고, 더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적의 공격을 받을 때를 미리 알아차리십시오. 적은 항상 의로움의 유령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말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바로 끊임없는 불안과 흐릿한 불확실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즉시 적이 다가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거부와 기도로 그를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영향은 항상 빛을 발합니다. 수호천사가 당신 귀에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자신을 갈고닦으십시오. 적은 서두르도록 부추깁니다. 그는 항상 일을 방해하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기다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제가 이미 쓴 대로 썰매를 타고 산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갈 것입니다.

시골로 가시려 하고 시골 생활의 달콤함을 꿈꾸시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삶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도시들, 특히 수도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코미디를 연기할 뿐입니다. 주여, 주여, 당신이 그렇게 평온하게 자라고 길러진 그곳에 빨리 그리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소서. 고대 수도에서의 체류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고, 특히 마지막에는 당신을 프라이팬에 제대로 볶아버렸지요.

시골에서는 은둔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꿈에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자연 동굴을 찾거나 직접 파내십시오. 한쪽에는 가능하면 작은 샘이 있고, 다른 쪽에는 과일 나무가 있으며, 앞쪽에는 작은 화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와 꽃에 노래하는 새 몇 마리를 길들여 보세요. 일찍 일어나 이곳에 혼자 앉아 새들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찬양을 부르세요!

주님, 당신의 길을 축복하소서!